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 현대중국어 가능보어의 연구

-‘~不了(liǎo)’의 사용 환경과 구조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旻 宣

2014年 6月

# 현대중국어 가능보어의 연구

-‘~不了(liǎo)’의 사용 환경과 구조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李 滢 鎬

金 旻 宣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6月

金旻宣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審査委員 \_\_\_\_\_

審査委員 \_\_\_\_\_

審査委員 \_\_\_\_\_

審査委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6月

# A Study on Potential Complement in the Modern Chinese

–Focussing on the language environment and  
grammatical structure of '~不了(liǎo)'–

Min–Se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eong–Ho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2014.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Jae–Cheol Ahn  
Joong–Sub Kim  
Eun–Ju Kim  
Eun–Hee Kim

Thesis director, Yeong–Ho Lee, Prof. of Literature

2014. 6.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현대중국어 가능보어 연구

-‘~不了(liǎo)’의 사용 환경과 구조를 중심으로-

金 旼 宣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 李 滢 鎬)

## 【국문요약】

본 연구는 ‘~不了(liǎo)’의 사용 환경과 사용상의 특징 및 부대 성분의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不了(liǎo)’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수행되었다.

가능보어는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과 ‘~得/不了(liǎo)’ 형식, ‘~得/不得’ 형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得/不了(liǎo)’ 형식은 다른 형식에 비해 앞에 놓이는 동사나 형용사에 대한 제약이 적어 다른 형식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많은 동사와 형용사를 가능보어로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의미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구어에서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형식이다.

‘~不了(liǎo)’구는 문장에서 주로 술어를 담당하며, 술어 외에도 관형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앞에 놓이는 동사나 형용사와의 결합 정도가 매우 높아 동사 취급을 받는 離合詞와 함께 사용될 때는 동사와 목적어를 분리시키고 동사 뒤에 놓인다는 특징이 있다. 의미적인 특징으로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일수록 褒義의 단어와 결합되었을 때 대상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고, 貶義의 단어와 결합되었을 때 대상의 평가가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의 語料庫(CCL)를 비롯해 신문기사와 어법서, 논문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不了’ 형식의 사용 환경은 크게 ‘주관적 조건의 작용’과 ‘객관적 조건의 작용’, ‘주·객관적 조건의 동시 작용’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了(liǎo)’가 나타내는 의미와 술어의 이행 여부는 ‘~不了’ 형식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친다. ‘~不了’ 형식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와 술어 이행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경우,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세 경우 모두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 ‘주·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본고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조건이란, ‘술어 이행을 하는데 제공되거나 혹은 술어 이행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을 위해 제공된 환경이나 술어 이행의 대상이 술어 이행 주체가 가진 능력이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환경이나 대상일 때 사용되며, ‘다~하지 못하다’로 해석 가능하다. 대체로 수량이나 정도와 관련된 문장으로, 이때 등장하는 대상이나 환경은 매우 큰 규모나 높은 정도임이 드러나는 단어이거나 話者和 聽者 간 확인 혹은 인지된 상태의 일정 수량이나 정도를 포함하는 단어이다. ‘了(liǎo)’가 완료·완성을 표시하지만, 경우에 따라 ‘了(liǎo)’를 ‘完’으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了(liǎo)’가 포함하는 의미의 범위가 ‘完’이 포함하는 의미의 범위보다 넓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객관적 조건에서 완료·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을 ‘不能~’으로 대체할 경우, ‘금지’의 의미로 인한 중의적 해석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② ‘不了(liǎo)’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경우, 대상의 상태나 선행조건의 종결 여부 등 상황의 영향을 받는 다거나 대상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 또는 보편적 인식이나 인정, 허가 등 의식의 작용에 의한 원인 등이 술어 이행을 막는 환경으로 작용하며, ‘~할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조동사 ‘不能~’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문장으로 바뀔 경우에는 대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不了(liǎo)’가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환경이나 술어 이행의 대상이 술어 이행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만을 갖추었을 뿐, 술어 이행의 정도나 결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특징이 있다. ‘了

(liǎo)’가 완료·완성의 의미를 나타내지도 않고, 술어는 이행되거나 이행될 여지가 있으며, ‘얼마 ~지 못하다’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 ‘了(liǎo)’ 대신 방향동사 ‘上, 下’등과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不能~’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조건이란, 술어 이행 주체의 신체적 조건이나 심신의 상태, 성격, 성향 등 ‘술어 이행 주체와 관련된 내적 조건’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 주체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나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조건 등이 술어 이행을 완료나 완성이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며, 객관적 조건에서와 같이 ‘다 ~할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수량만을 포함하는 환경일 경우는 대체로 ‘了(liǎo)’를 ‘完’과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정도나 범위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바꾸어 쓸 수 없다.

② ‘不了(liǎo)’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 주체가 자신의 신체·심리적 상태를 통제하지 못하여 술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능력이 부족하여 술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술어 이행 주체가 태생적으로, 혹은 성장 과정에서 구비하게 된 개별적 특성이 술어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조건에서와 같이 ‘~할 수 없다’로 해석 가능하며, 주관적 조건이 불가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에 변화가 생길 경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조건과 차이가 있고, 대체로 ‘不能~’로 대체가 가능하다.

③ ‘不了(liǎo)’가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능력, 신체·심리적 조건 등이 술어 이행의 최소 조건만을 갖추었다는 점이 객관적 조건과 다를 뿐, 술어 이행의 정도나 결과가 매우 미미하며, ‘了(liǎo)’를 ‘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술어는 이행되거나 이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객관적 조건에서와 일치한다. ‘~不了(liǎo)’구 뒤에 수량성분 등이 놓이면 ‘不能~’로 대체할 수 없다.

셋째, 주·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란,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내적 조건과 술어 이행의 환경이나 대상이 주는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여

술어 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 조건에서도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으며,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앞선 두 조건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으로 ‘~不了(liǎo)’구의 전후에 위치하는 성분들이 문장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不了(liǎo)’구를 사용하는 문장의 경우 사용되는 주어의 성격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주어는 의미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른 두 형식을 제외한 ‘~不了(liǎo)’ 형식만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동사나 형용사 자체의 의미가 수동문에 어울리는지와 주·객관적 조건의 제약 관계, 그리고 ‘~不了(liǎo)’구와 함께 사용되는 기타 성분과의 의미관계가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 모두 ‘不了(liǎo)’ 형식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지만, 공통적으로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나타내는 경우에 비해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의 출현 빈도가 훨씬 높다. 객관적 조건 중 ‘상황의 영향’이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不了(liǎo)’ 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환경이고, 주관적 조건 중 ‘능력의 한계’가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不了(liǎo)’구의 뒤에는 ‘명사성 구’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술어성 구’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부사어가 ‘~不了(liǎo)’구의 앞에 놓여 불가능의 원인을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성분의 조합이 ‘~不了(liǎo)’구 뒤에 출현하여 의미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不了(liǎo)’구 뒤에 수반되는 부대 성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량성분’이 ‘~不了(liǎo)’구의 뒤에 출현하여 술어 이행의 범위를 제한한다. 둘째 ‘의문 대체사(+형용사/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가 미약함’을 나타낸다. 셋째 ‘지시 대체사+(형용사/명사)’가 놓여 ‘도저히 따라잡지 못 할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술어 이행 주체의 역량 부족이 불가능의 전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구가 ‘~不了(liǎo)’구의 목적어로 사용되어 ‘정도의 미약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



不了(liǎo)'구는 앞·뒤 부대 성분의 영향을 받아 사용 환경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술어 이행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비교적 간결한 문장으로도 불가능의 원인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본고는 '~不了(liǎo)' 형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용 환경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그 원인을 고찰하여 문장 사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 사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不了(liǎo)'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평소 궁금하던 '不了(liǎo)'의 사용 환경에 대한 초보적인 구분은 이루어졌다고 본다. 앞으로 문학작품이나 신문 기사 등 보다 체계적인 예문 수집을 통해 '不了(liǎo)'의 사용 환경과 '不了(liǎo)'의 역할에 대한 보충 연구를 해 나가 고자 한다.

## 目 次

I. 緒論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II. 가능보어의 의의	5
1. 가능보어의 정의	5
2. 가능보어의 형식	9
3. 가능보어의 변천	18
4. ‘~不了(liǎo)’의 역할	22
III. ‘~不了(liǎo)’의 사용 환경	37
1. 객관적 조건의 작용	39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39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47
(가) 상황의 영향	48
(나) 대상의 특성	56
(다) 의식의 작용	62
다.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68
2. 주관적 조건의 작용	74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75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88
(가) 심신의 상태	88
(나) 능력의 한계	92
(다) 개별적 특성	97
다.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100
3. 주·객관적 조건의 동시 작용	104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104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107
다.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110
<b>IV. ‘~不了(liǎo)’의 전후 성분의 구조</b>	<b>114</b>
1. 주어와 목적어	115
가. 주어	115
나. 목적어	120
(가) 명사성 구	121
(나) 술어성 구	122
2. ‘~不了(liǎo)’의 부대 성분	123
가. 부사어	124
나. 부대 성분	128
(가) 수량성분	128
(나) ‘의문 대체사+형용사/명사’	129
(다) ‘지시 대체사+형용사/명사’	132
(라) 정도를 표시하는 구	135
<b>V. 結論</b>	<b>138</b>
<b>【參考文獻】</b>	<b>143</b>
<b>【 부 록1 】</b>	<b>147</b>
<b>【 부 록2 】</b>	<b>167</b>
<b>【 부 록3 】</b>	<b>174</b>

# I. 緒論

## 1. 연구 목적

현대중국어에서 능력, 허가 등의 ‘~할 수 있다’의 의미를 표시하는 경우 가능보어가 상용된다. 가능보어는 일반적으로 ‘동사·형용사+得/不+보어’의 형식을 이루지만, 가능보어의 특수형이라 할 수 있는 ‘~得/不了(liǎo)’로 이루어진 가능보어의 경우, 언어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一个人一辈子**做不了**太多的事。

(한 사람이 한평생 지나치게 많은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2) 她不是不愿意做, 是身体不好, **做不了**。

(그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것이다.)

‘不了(liǎo)’를 사용한 문장 중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형식임에도 문장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의 예문은 같은 ‘做不了’를 사용하였음에도 예문(1)의 ‘做不了’는 ‘做不完’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예문(2)에서의 ‘做不了’는 ‘做不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不了(liǎo)’ 형식의 의미를 사전이나 어법서의 내용에만 의지하여 해석했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做不了’가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원인을 살펴보면, 예문(1)의 경우, 행위자가 처리해야 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완료하지 못하는 것 즉, 외적 환경이 원인이 된 것이고, 예문(2)의 경우는 행위자에게 문제가 생겨 술어 이행을 할 수 없는 것 즉,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조건이 불가능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밖에도 ‘~得/不了(liǎo)’ 형식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사어나 목적어 등 부대

성분 역시 불가능의 원인과 범주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차적인 원인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得/不了(liǎo)’로 이루어진 가능보어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이들 부대 성분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得/不了(liǎo)’를 이용한 가능보어 형식에 대한 연구가 예전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다른 언어와의 비교<sup>1)</sup>  
나 ‘能/不能+V(C)’와의 차이점<sup>2)</sup>에 대해 문법적, 의미적 비교대상으로 다루고 있  
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중에는 가능보어가 출현하는 언어 환경<sup>3)</sup>을 비롯하여 가  
능보어의 문장 내 역할<sup>4)</sup>이나 목적어, 수량보어 등 문장 내 기타 성분과의 제약  
관계<sup>5)</sup>에 대해 연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용 환경에 따른 의미의 차이  
를 연구한 부분은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得/不了(liǎo)’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劉  
月華의 견해<sup>6)</sup>와 마찬가지로 ‘了(liǎo)’의 의미를 기준으로 ‘得/不了(liǎo)’의 종류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구분만으로 다양한 예문에 등장하  
는 ‘得/不了(liǎo)’ 형식의 가능보어 문장을 이해하기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에  
‘得/不了(liǎo)’ 형식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 연구 중 대부분이 ‘得/不了(liǎo)’의 의미나 ‘~得/不了(liǎo)’ 형식을  
이루는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不了(liǎo)’ 형식과 결합관계  
를 이루는 기타 부대 성분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보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不了(liǎo)’의 언어 환경과 사용상의 특징 및 부대 성분의 영향에 대해 이해  
하게 되면 ‘~不了(liǎo)’ 형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세한 감정이나 상황 묘사, 정도의 표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 朴貞姬, 「韓漢能性結構及相關問題對比研究」, 清華大學碩士論文, 2008.

杉村博文, 「可能補語의 語義分析—從漢日語對比的 角度」, 『世界漢語教學』, 2010年2期, 世界漢語教學學會, 2010.

2) 潘璇, 「可能補語的對外漢語教學研究」, 湖南師範大學碩士論文, 2012.

劉慧芳, 「能/不能+V(C)与“V+可能補語”的語義用法差异及相關教學研究」, 中央民族大學碩士論文, 2013.

3) 孫姪愛, 「現代漢語可能補語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論文, 2009.

4) 張婉, 「能性述補結構“V得/不了”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論文, 2009.

5) 駱莉萍, 「現代漢語的可能補語与“可能”意義」, 蘇州大學碩士論文, 2012.

6) B類可能補語是由“得/不了(liǎo)”構成的。“了(liǎo)”的本意是“完”、“結束”, 由“得/不了(liǎo)”構成的可能補語用在某  
些動詞後, “了(liǎo)”有時仍表示“完、掉”等結果意義。這類“得/不了”与A類可能補語所表示的意思是一樣的, 所以應  
屬於A類。由“得/不了”構成的B類可能補語, “了”本身不表示結果意義, 整個“得/不了”表示“主、客觀條件是否容許  
實現(某種動作或變化)”。(劉月華·潘文娛·故韞,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2007, pp. 589-590.)

본고는 ‘不了(liǎo)’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 및 ‘~不了(liǎo)’구에 수반되는 기타 부대 성분의 종류와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 ‘~不了(liǎo)’가 나타내는 어법적·의미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不了(liǎo)’가 출현하는 다양한 사용 환경을 통해 ‘~不了(liǎo)’ 형식의 사용 조건과 사용상의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현대중국어 가능보어의 특수형인 ‘~不了(liǎo)’를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참고적인 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가능보어의 특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得/不了(liǎo)’의 형식은 부정형식이 긍정형식에 비해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는데, 이 점에 대해 김윤정은 ‘일반적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낼 때 되도록 능동적이거나 의지가 담긴 표현을 피하고 가능한 한 수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부정의 결과를 부득이한 측면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수동성을 내포하는 가능보어의 부정형식이 바로 이런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은 것’<sup>7)</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와 연계하여 수동자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능보어 부정형식이 상용된다고 보는 견해는 참고할 만하다. 본고는 ‘~不了(liǎo)’ 형식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고 그 사용 양상과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 환경에 따른 ‘不了(liǎo)’의 의미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문은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의 전자코퍼스(語料庫-이하 ‘CCL’로 약칭)를 비롯해 신문기사와 어법서, 논문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우선 ‘不了(liǎo)’를 취할 수 있는 동사와 형용사를 찾기 위해 ‘現代漢語’로 범위를 제한하여 CCL 검색창에 ‘不了(liǎo)’ 항목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27,655개의 문장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사용 환경 및 구조의 특징에 부합되는

7) 김윤정, 「가능보어의 수동자 중심 양상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6, p. 180.

351개의 문장<sup>8)</sup>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CCL에서 검색 가능한 ‘~不了(liǎo)’ 형식의 문장을 모두 수집·분류 후 중심 술어로 등장하는 동사와 형용사 목록을 작성<sup>9)</sup>하고, 일정 기준에 따른 출현 빈도를 조사하여 ‘~不了(liǎo)’ 형식 문장의 술어 사용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밖에도 문장 내 기타 부대 성분이 ‘~不了(liǎo)’구의 의미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점에 주목하고, 부대 성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부대 성분의 문장 내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선행연구의 소개와 연구목적을 설명하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가능보어의 의의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不了(liǎo)’구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 환경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不了(liǎo)’구와 함께 출현하는 전후 성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不了(liǎo)’구의 의미에 제약을 가져오는 부대 성분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 結論에서는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얻어진 결과를 정리한다.

語法用語는 「韓國中國言語學會」에서 심의 규정한 「中國語文法用語 統一 試案」에 의거하였고 우리 文法과 혼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中國語用語를 괄호로 附記하였음을 밝혀둔다.

---

8) 본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장 259개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사용 환경을 조사하는 데 사용된 모든 문장은 [부록 1]로 첨부하였으며, 각 장의 예문과 같은 예문도 다수 이에 포함되었음을 밝힘.

9) ‘不了(liǎo)’를 보어로 취하는 술어는 총 1,260개(단음절:210, 이음절:750), [부록 2] 참조.

## Ⅱ. 현대중국어 가능보어의 의의

### 1. 가능보어의 정의

먼저 보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邢福義는 보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10)</sup>

보어란, 술어성 구조의 중심어 뒤에서 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며, 중심어와 보어 사이에는 ‘得(de)’가 출현하여 ‘중심어+得+보어’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종종 보어의 의미 유형 및 구조와 관계가 있다.

보어의 의미와 술어의 성질에 따라 ‘중심어 행위의 성질 상태와 관련된 상황을 나타내는 보어(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정도보어, 평가보어 등이 포함)’와 ‘중심어 행위의 성질, 상태와 관련된 시간, 수량, 대상, 방식 등을 나타내는 보어(시간·장소보어, 수량보어, 관계보어 등이 포함)’로 구분할 수 있다.

朱德熙는 보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sup>11)</sup>

抓緊, 寫完, 煮熟, 說清楚, 寫上, 走回去 등과 같이 술어의 뒤에 보어가 바로 따라오는 술보 구조를 ‘접합형 술보 구조(粘合式述補結構)’라 하고, 走得快, 抓得緊, 看得多, 寫得很清楚, 看得見, 聽得出來 등과 같이 ‘得’를 삽입하는 술보 구조를 ‘조합형 술보 구조(組合式述補結構)’라 한다. ‘조합형 술보 구조’는 다시 가능성을 표시하는 것과 상태를 표시하는 등의 두 종류로 나눌 수

10) 補語是謂語性結構里心語后邊起補充作用的成分。心語和補語之間有時出現“得(de)”。“心得補”格局的形成，往往跟補語語義類型和補語結構情況都有關係。根據語義和語詞性質，補語大体可以分爲兩大類 - ① 狀況類補語：表示跟心語行爲性狀有關的狀況，主要包括結果補語、趨向補語、可能補語、程度補語和評判補語；② 物體類補語：表示跟心語行爲性狀有關的時間、方所、數量和對象、方式等，主要包括時地補語、數量補語和關係補語。(邢福義, 『漢語語法三百問』, 商務印書館, 2002, pp.46-47.)

11) 粘合式述補結構指補語直接粘附在述語后頭的格式，例如：抓緊、寫完、煮熟、說清楚、寫上、走回去。組合式述補結構指帶“得”字的述補結構，例如：走得快、抓得緊、看得多、寫得很清楚、看得見、聽得出來。組合式述補結構有兩類，一類表示可能性，一類表示狀態。表示可能性的述補結構里的“得”是一個獨立的助詞，它出現在述語和補語之間，既不屬前，也不屬后。(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2007, pp.125-126.)



있는데, 가능성을 나타내는 술보구 안의 ‘得’는 독립된 조사로서 앞에 있는 동사나 뒤에 있는 보어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現代漢語』에서는 기능과 특징에 근거하여 보어의 작용과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12)</sup>

보어가 술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개괄적인 설명이다. 의미관계 면에서 볼 때, 어떤 보어들은 확실히 술어가 되는 동사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어떤 것은 술어 동사의 행위자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술어 동사의 대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보어란, 동사·형용사가 중심어 역할을 하는 술어구에서 중심어의 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며, 결과보어·정도보어(‘得’자를 수반한 형태 제외)·방향보어·개사구보어 등과 같이 술어의 뒤에 보어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와 가능보어·정도보어 등과 같이 술어와 보어 사이에 ‘得’를 삽입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때 보어는 행위자, 동작, 대상 등 문장에 따라 의미적인 보충을 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보어의 경우 보어로 사용되는 성분이 술보구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도 한다.

가능보어는 ‘可能式補語, 動詞的可能態, 能性補語’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sup>13)</sup> 가능보어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한 몇몇 論著를 통해 정의와 종류에 대한 설명을 살펴본다.

12) 보어가 술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예.

他走得很快。(그는 걸음이 매우 빠르다.)

你得抓紧。(네가 단단히 잡아야 한다.)

보어가 행위자를 설명하는 예.

我吃饱了。(나는 먹다가 배가 불렀다.)

他走累了。(그는 걷다가 지쳤다.)

보어가 동사의 대상을 설명하는 예.

衣服洗干净了。(옷은 깨끗하게 빨았다.)

紙已经用完了。(종이는 이미 다 썼다.) (北京大學中文系,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譯, 『現代漢語(현대중국어의 이해)』, 차이나하우스, 2009, pp.368-369.)

13) 郝維, 『補語的可能式研究綜述』, 『漢語學習』第3期, 上海辭書出版社, 2001, p.29.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어의 형식을 가능보어로 칭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도 가능보어로 통일함. 【부록 3】 참조.

가능보어는 ‘행위의 성질 상태에 일어나는 변화를 나타내는 보어<sup>14)</sup>’로서 중  
 심어와 보어의 의미관계는 ‘能/不能+중심어+보어’라 할 수 있으며, ‘得’를 사용  
 하지 않는 결과보어와 방향보어는 ‘得’를 삽입함으로써 가능보어로 전환될 수  
 있다.

일부 가능보어는 단순가능보어이다. 예를 들어, 吃得/吃不得! 看得/看得不!  
 등에서 쓰인 ‘得’는 구조조사가 아니라 ‘得’와 ‘不得’ 자체가 보어로서, ‘吃得’는  
 ‘먹다’의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긍정이고, ‘吃不得’는 ‘먹다’의 가능성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sup>15)</sup>

가능을 나타낼 때는 동사 앞에 조동사 ‘能, 會, 可以’ 등을 놓고, 불가능을  
 나타낼 때는 이들 조동사의 앞에 ‘不’를 붙인다. 이러한 방법은 ‘能拿, 不能拿,  
 能拿出去, 不能拿出去’와 같이 단일 동사나 동보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  
 러나 동보구로 가능성을 나타낼 때 더 자주 쓰이는 형식이 동사와 보어 사이  
 에 ‘得’나 ‘不’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得’를 삽입한 구조는 가능식의 긍정형이고, ‘不’를 삽입한 구조는 가능식의  
 부정형이다. 이 두 가지 형식을 통틀어 ‘보어의 가능식’이라 부를 수 있다.

‘能’과 ‘可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得’를 삽입한 동보구 앞에 ‘能’이나  
 ‘可以’를 덧붙일 수 있다.<sup>16)</sup>

가능과 불가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형식으로 동사 뒤에 ‘得了(liǎo)’와 ‘不了  
 (liǎo)’를 넣는 방법이 있다. ‘了(liǎo)’ 하나만은 별다른 뜻을 가지지 않고, ‘得/  
 不’와 함께 가능과 불가능을 나타내는데, ‘得了(liǎo)’와 ‘不了(liǎo)’는 가능보어

14) 원문에서는 狀態類補語로 칭함.

15) 可能補語也是狀況類補語。這類補語表示行爲性狀可能有的發展變化。如果以XY分別代表心語和補語，那麼二者的語義關係是：能XY，或者，不能XY。這類補語，跟結果補語、趨向補語，可以通過加“得”轉化成爲可能補語。

有的可能補語，是簡單可能補語。如：吃得! | 吃不得! | 看得! | 看得不! 在結構上，心補採取“X得”和“X不得”的形式，其中的“得”不是結構助詞，“得”，“不得”本身就是補語；在關係上，補語是對心語可能性的全面肯定或否定：“吃得”是對吃的可能性的全面肯定；“吃不得”是對吃的可能性的全面否定。(邢福義, 『漢語語法三百問』, 商務印書館, 2002, p.48.)

16) 表示可能，在動詞前面加助動詞“能, 會, 可以”等；表示不可能，再在這些助動詞前面加“不”。這個辦法适用于單個動詞，也适用于動補結構。例如，“能拿, 不能拿”，“能拿出去, 不能拿出去”。但是動補結構表示可能性的更常見的格式是在中間加“得, 不”。

帶“得”的格式是補語的肯定可能性，帶“不”的格式是補語的否定可能性，簡單點可以合起來叫做補語的可能式。有時候爲加強“能”或“可以”的意思，用了“得”字還可以再加“能”字或“可以”。(丁聲樹·呂叔湘·李榮 等, 『補語(節選)』,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pp.118-121.)

이다.<sup>17)</sup>

「吃」(먹다)에 가능, 불가능의 의미를 가지게 할 때에는 「不能吃」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왜 「能」 혹은 「不能」인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가능, 불가능을 나타내는 것과 더불어 이유를 포함해서 말할 수 있는 보어에 의한 표현이 있다. ‘吃得起/吃不起’, ‘吃得了/吃不了’, ‘吃得來/吃不來’, ‘吃得/吃不得’, ‘吃得着/吃不着’ 등은 ‘得起’, ‘不起’에 의해 經濟能力的 유무, ‘得了’, ‘不了’에 의해 量的인 처치 능력의 여부, ‘得來’, ‘不來’에 의해 습관의 여부, ‘得’, ‘不得’에 의해 사후지장 유무, ‘得着’, ‘不着’에 의해 먹을 것의 존재 여부 등을 나타내고 있다.<sup>18)</sup>

上述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능보어는 ‘能, 可以’ 등의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이 나타내는 뜻과 일정한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형과 부정형을 사용할 수 있고, 동사 뒤에 ‘得/不’를 첨가한 세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능보어란, 술어 이행의 가능과 불가능을 표현하는 어법적 기능을 가지며, 술어와 보어 사이에 ‘得’를 삽입하여 긍정형을, ‘不’를 삽입하여 부정형을 구성하는 보어를 가리킨다. 보어의 위치에 결과보어·방향보어가 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며, 이 경우 술어의 이행을 통해 결과나 도출되거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이외에도 ‘~得/不了(liǎo)’와 ‘~得/不得’의 형식이 있으며, 술어 이행의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17) 表示可能和不可能, 還有一種格式, 在動詞后頭加“得了(liǎo)”和“不了(liǎo)”。例如:

明天來得了嗎? (내일 올 수 있습니까?) - 明天來不了。(내일 올 수 없습니다.)

只要男女本人願意, 就能到區上登記, 別人誰也作不了主。(남녀 당사자들만 원한다면 구청에 가서 등록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這事情, 我們管不了。(이 일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大家都同意, 只是決定不了該選誰好。(모두가 동의하였다. 단지 누구를 뽑아야 좋을지 결정을 하지 못할 뿐이다.)

到了上面的例子里, “了”字單獨已經沒有多少意思, 只是和“得、不”合起來表示可能和不可能, “得了”和“不了”是可能補語。(丁聲樹·呂叔湘·李榮 등, 『補語(節選)』,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p.120.)

18) 고후원, 『현대중국어의 ‘동+보’관계(1)-현행대학교계에 나타난 문장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17集, 한국중어중문학회, 1990, p.271.

## 2. 가능보어의 형식

가능은 ‘~할 수 있다/없다’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듯하지만, 사실 가능은 언어 환경에 따라 다양한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단어를 골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조동사를 사용하거나 가능보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동사 ‘能’이 나타내는 의미 중 가능보어의 용법과 관련 있는 의미에 대해 劉月華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19)</sup>

- ①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주관적 조건이 어떠한 동작의 실현을 허용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② 어떠한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객관적 조건이 어떠한 동작이나 변화의 실현을 허용함을 나타낸다.
- ③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④ ‘허가’를 나타낸다.
- ⑤ ‘도리상의 허용’을 나타낸다.

그는 또한 가능보어의 형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20)</sup>

- 가. ‘得/不+結果補語·趨向補語’로 구성된 A類의 可能補語
- 나. ‘得/不了(liǎo)’로 구성된 B類의 可能補語
- 다. ‘得/不得’로 구성된 C類의 可能補語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구분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본고도 劉月華의 구분

19) 能愿動詞“能”的意義很多，与本文有關的有以下五个：(1) 表示具有某种能力，或主觀條件容許實現(某一動作)，如：“我能舉起一百斤東西(나는 100근 나가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2) 表示具備某种客觀條件，或客觀條件容許實現(某一動作或變化)，如“今天氣溫很低水能結成冰(오늘은 기온이 매우 낮아서 물이 얼 수도 있겠다.)”。(3) 表示“有可能”，如“都十點多了，他還能來嗎?(벌써 10시가 넘었는데, 그가 올 가망성이 있겠니?)”。(4) 表示“准許”，如“沒有我的命令你不能動!(내 명령 없이 너는 움직이지 마!)”。(5) 表示“情理上許可”，如“里面正在開重要會議，你不能進去(안에서 지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으니 당신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劉月華, 『可能補語用法的研究』,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p.313.)

20) 劉月華外二人著, 尹和重·朴靚植·李陸禾·吳憲必共譯,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3, p.281.

방법을 참고로 하여 가능보어의 세 가지 형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가.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에 대해 기존의 어법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動詞와 結果補語 또는 方向補語 사이에 ‘得’ 또는 ‘不’를 삽입시키면 ‘吃飽’ - ‘吃得飽’, ‘吃不飽’, ‘出來’ - ‘出得來’, ‘出不來’ 등과 같이 A類 가능보어가 된다. A類 가능보어는 주관적 조건(능력, 힘 등) 또는 객관적 조건이 어떤 結果 또는 방향의 실현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주의할 점은 가능보어와 ‘能’의 뜻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인정(情理)상의 동의 여부’, ‘허락 여부’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能’ 또는 ‘不能’을 사용할 수 있으나, A類 가능보어는 쓸 수 없다.<sup>21)</sup>

결과보어와 방향보어의 가능형이란 2단 구조(동보구조)인 동사와 보어 사이에 ‘不’나 ‘得’가 끼어들어 가는 형태를 말하며, 이 중간에 끼어드는 ‘不’나 ‘得’는 그 뒤의 보어에 작용하여,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능보어는 부정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긍정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긍정형에서 쓰이는 경우는 의문문일 때가 많다.

‘~할 수 없다’는 조동사 ‘能’의 부정 형태인 ‘不能~’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동사가 결과보어, 방향보어를 동반하고 있다면 ‘~할 수 없다’는 일반적으로 ‘不’가 끼어드는 형태로 나타낸다. 이때 ‘不能~’은 ‘~할 수 없다’의 의미와 ‘~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뜻이 되는데, ‘不能’은 자주 금지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보어와 방향보어를 동반하는 동사구에서 ‘~할 수 없다’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不’ 끼어들기 형식을 사용한다.<sup>22)</sup>

위의 내용에 필자의 견해를 더하여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1) 劉月華外二人著, 尹和重·朴靚植·李陸禾·吳憲必共譯,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3, p.281.

22) 相原茂·石田知子·戶沼市子, 박귀진·민병석 편역, 『중국어문법책』, 시사중국어문화원, 2001, p.223.

‘找得到/找不到’, ‘回得來/回不來’ 등과 같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로 이루어진 가능보어 형식은 ‘동작을 통해 행위자가 목적으로 삼은 결과를 얻거나 행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형식은 ‘能找到’나 ‘不能回來’ 등과 같이 ‘能/不能~’의 형식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서술하되 話者의 주관에 개입되지 않은 문장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能, 可以’ 등의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이 ‘里面在開重要會議, 你不能進去。(안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어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나 ‘這個東西不是你的, 你不能用。(이 물건은 너의 것이 아니므로 너는 사용할 수 없다)’ 등과 같이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거나 도리상 어긋남으로 인해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장은 話者의 주관적 판단이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里面在開重要會議, 你進不去。/ \*這個東西不是你的, 你用不了。’와 같은 가능보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가능을 나타내는 문장이 긍정을 표현하는 문장일 때에는 조동사 ‘能~’ 형식이 주로 사용되고, 부정을 표현하는 문장일 때에는 ‘동사+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이 주로 사용된다.

#### 나. ‘~得/不了(liǎo)’ 형식

구어체 문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得/不了(liǎo)’ 형식은 ‘了(liǎo)’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의미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형식에 대한 어법서와 논문에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B類 가능보어는 ‘得/不了(liǎo)’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了(liǎo)’의 본래 뜻은 ‘完’, ‘結束’이므로, ‘得/不了(liǎo)’로 구성된 가능보어가 어떤 동사 뒤에 쓰이면 ‘了(liǎo)’는 때로 ‘完’, ‘掉’등과 같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了(liǎo)’가 ‘完’, ‘掉’의 의미를 가질 경우, 이는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인 경우와 같아 A類 가능보어로 보아야 하고, ‘了(liǎo)’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

내지 않고, 전체의 ‘得/不了(liǎo)’ 형식이 ‘주·객관적 조건(어떤 동작 또는 변화의 실현에 대한)의 허용 여부’를 나타낼 때를 진정한 B類 가능보어로 보아야 한다.<sup>23)</sup>

\*동사+‘得/不’了(liǎo)

- ① 동작이나 변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 ② 형용사 뒤에 쓰이는 경우 성질이나 정도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며, 주로 구어에서 부정 형식이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긍정문에 사용된다.<sup>24)</sup>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구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李艷은 ‘~得/不了(liǎo)’ 형식이지만 의미를 고려했을 때, 위의 A類 가능보어와 B類 가능보어 중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25)</sup>

冰箱里的菜吃不了一个星期, 你再去买点吧。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은 일주일도 채 먹을 수 없을 터이니, 네가 다시 가서 좀 사 와라.)

위 예문의 ‘吃不了’ 뒤에는 시량보어<sup>26)</sup>가 있으며, 이 문장의 어법적 의미는 ‘吃(먹다)’라는 동작행위가 현재든 미래든 반드시 발생할 것이지만, ‘菜太少(음식이 너무 적다)’라는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一個星期’라는 최장 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 구조는 ‘V/不了’로 나눌 수 있는데, ‘V/不了’가 나타내는 것은 비록 ‘V’라는 동작행위는 발생이 되지만 시량보어가 정한 최장 시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23) “了(liǎo)”的本意是“完”、“結束”，由“得/不了(liǎo)”构成的可能補語用在某些動詞后，“了(liǎo)”有時仍表示“完、掉”等結果意義。這類“得/不了”与A類可能補語所表示的意思是一樣的，所以應屬於A類。由“得/不了”构成的B類可能補語，“了”本身不表示結果意義，整个“得/不了”表示“主、客觀條件是否容許實現(某种動作或變化)”。(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商務印書館, 2007, pp.589-590.)

24) 최병덕, 『현대중국어어법』, 학고방, 2005, p.222.

25) (원문 중 예문(10))“吃不了”后面有時量補語，其語法意義表示的是“吃”的動作行爲無論現在還是在將來都是必然發生的，但因為“菜太少”這一外在的客觀原因，而無法滿足“一个星期”最高量度的需要。它的結構划分也應該是“V/不了”，“V/不了”表示的是雖然“V”動作行爲發生實現，但無法滿足時量補語所規定的最高量度。(李艷, 『“V不下”与“V不了”句法語義語用對比探析』, 『常熟理工學院學報』, 2005年第3期, 常熟理工學院學報編輯部, 2005, pp.71-72.)

26) 시량보어: 동사의 뒤에 ‘수사+양사’의 조합이 수반되어 동작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냄.

본고도 李艷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시량보어가 나타내는 것이 최장시간<sup>27)</sup>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다. 위의 예문에 사용된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話者가 임의로 정한 시간이거나 話者의 필요에 의해 설정 혹은 예견된 시간이며, 이 문장에서 나타내는 것은 주어진 시간만큼 공급될 음식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일주일 동안 사용할 양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일주일 이상의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話者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得/不了(liǎo)’ 형식 뒤에 수반되는 시량보어가 나타내는 것이 話者의 기준에서 설정된 시간이며, ‘~得/不了(liǎo)’ 형식을 통해 주어진 시간까지 술어 이행이 지속될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得/不了(liǎo)’ 형식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做得了/做不了’ 등과 같이 ‘~得/不了(liǎo)’로 이루어진 가능보어 형식은 문장에 따라 ‘동작이 완성이나 완료로 이어질 가능성’과 ‘동작이 실행될 가능성’, ‘동작 실행은 가능하나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각각의 의미를 통해 ‘~得/不了(liǎo)’ 형식이 문장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得/不了(liǎo)’ 형식에서 ‘了(liǎo)’가 ‘完, 掉’의 의미를 가질 경우, 술어가 목적한 바를 완성하거나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상의 변화 즉, ‘실현 여부’가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了(liǎo)’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得/不了(liǎo)’ 형식 자체로 주·객관적 조건이 어떠한 동작 또는 변화의 실현 가능성을 표현할 때에는 ‘동작 자체가 실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모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술어의 이행 여부’가 의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了(liǎo)’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지도 않고, 동작은 실행되거나 실행될 가능성이 있

27) 원문에 사용된 ‘最高量度的需要’가 시간과 관련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가장 긴 시간’으로 해석하였다.



는 경우, 뒤에 대체로 수량사가 수반되어 ‘동작은 행해지되 일정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술어를 통해 발생한 ‘결과의 정도’가 의미의 중심이라 본다.

‘동사+不了(liǎo)’는 ‘這個菜已經壞了, 我吃不下了。(이 음식은 이미 상했으므로, 나는 먹을 수 없게 되었다.)’등과 같은 문장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문장의 경우, 먹는 행위를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동사를 이용하여, ‘這個菜已經壞了, 我不能吃了。(이 음식은 이미 상해서 내가 먹을 수 없게 되었다.)’로 고쳐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사용 환경에 따라 금지를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과 구별된다 할 수 있다.

#### 다. ‘~得/不得’ 형식

‘~得/不得’ 형식에 대한 어법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得/不得’만을 보어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C類 가능보어라 한다. 예를 들면, ‘吃不得’, ‘去不得’, ‘急不得’ 등이다. 이런 가능보어는 문법상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① ‘주·객관적 조건의 허용 여부(어떤 동작)’를 나타낸다.<sup>28)</sup> 즉, B類 가능보어의 의미와 같다. ② ‘인정상의 허가 여부’를 나타내는데,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sup>29)</sup>

\*‘동사+得/不得’

- ① ‘得’는 긍정 형식으로서 ‘能够’·‘可以’의 의미를 나타내고, ‘不得’는 부정 형식으로 ‘不能够’·‘不可以’의 의미를 나타낸다.
- ② 일부는 구조 형식의 용법이 관용화되어 하나의 단어로써 기능한다.
- ③ 주로 권고·일깨움·경고 등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된다. 그래서 대개 부정형식이 사용되며, ‘어떤 동작을 하지 말라’, ‘어떤 현상의 발생을 피

28) 가능보어 ‘~得/不得’의 ‘~得/不了(liǎo)’ 형식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예.

(三仙姑)羞得只顾擦汗, 再也开不得口。(三仙姑)는 부끄러움에 땀만 닦을 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다.)

29) 劉月華外二人著, 尹和重·朴靚植·李陸禾·吳憲必共譯,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3, p.289.

하라'는 의미를 전달한다.<sup>30)</sup>

가능보어의 ‘~得/不得’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得/不得’만을 수반하는 경우로, ‘~得/不了(liǎo)’ 형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권고·일깨움·경고 등 ‘인정이나 규칙 등에 의한 동작의 실행 허가 여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부정 형식이 주를 이룬다.

가능보어는 동작의 주체가 어떠한 일을 하거나 일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구비하였다는 전제 조건을 갖추고 진행된다. 때문에 동작의 실행 가능 여부는 동작 주체의 사상·조건·능력 등 주관적 조건과 시간·장소·환경 등 객관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세 가지 형식 모두 불가능이라는 결과에 행위자의 의지가 반영되기 보다는 처한 환경이나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조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김윤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1)</sup>

가능보어와 조동사는 능력이나 가능의 개념을 나타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법 형식이다. 능력은 행위자가 지니고 있는 조건으로서 행위자는 이 능력에 의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능동적으로 실현시킨다. 그에 반해 가능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행위자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행위자 이외의 요인에 의해 실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가능보어의 수동자 중심적 특징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수동자에게 돌림으로써 행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기능 역시 가능보어의 부정형식이 자주 출현하게 만든다.

范曉는 ‘동사+보어’로 이루어졌으나 가능보어 형식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에

30) 최병덕, 『현대중국어어법』, 학고방, 2005, p.222.

31) 김윤정, 「가능보어의 수동자 중심 양상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6, pp.163-180.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한 바 있다.<sup>32)</sup>

대다수의 V-R<sup>33)</sup>은 가능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V-R은 가능식으로 확장할 수 없으며, 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나는 ‘禁止’, ‘改善’, ‘改良’, ‘証明’ 등과 같이 복합어로 정착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做錯’, ‘打輸’, ‘跑慢’, ‘起晚’ 등과 같이 습관상 또는 의미상 가능식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상반되는 의미의 ‘做對’, ‘打贏’, ‘跑快’, ‘起早’ 등은 모두 가능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CCL 검색 결과, 范曉에서 언급된 가능식으로 확장할 수 없는 단어들 중에는 아래와 같이 ‘不了(liǎo)’를 수반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으며, 가능보어의 형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做對’, ‘打贏’, ‘跑快’, ‘起早’ 등은 ‘~不了(liǎo)’ 형식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 (1) 至于商店、商品取洋味儿的名字, 我想既无须禁止(也**禁止不了**), 也不宜提倡。  
(상점과 제품에 서구식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나는 금지할 필요도 없지만(금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장려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2) 搞平均主义, 吃“大锅饭”, 人民生活永远**改善不了**, 积极性永远调动不起来。  
(평균주의를 행하며 공동분배를 하면, 국민 생활이 영원히 개선될 수 없으며,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 (3) 大系统若不革命化, 小系统根本就没办法, 连改良都**改良不了**。  
(큰 체계가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작은 체계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으며 개선조치 불가능하다.)
- (4) 这种东西几乎人人都有, 什么也**证明不了**。  
(이런 물건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예문(1)부터 예문(4)까지의 ‘~得/不了(liǎo)’ 형식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행위자의 주동적 입장이 반영되는 단어이며, ‘동작을 실행하거나 시도하려고 해도 의도

32) 范曉 著, 김난미, 김정은, 김진아, 서희명 譯, 『三个平面的語法觀』, 차이나하우스, 2007.

33) V-R: ‘동사+결과보어의 조합’을 가리킴.

한 대로 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范曉는 '禁止, 改善, 改良, 證明'과 같은 복합사들을 가능보어의 형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得/不了(liǎo)' 형식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활용도도 낮지 않은 편이다.

'~得/不了(liǎo)' 형식을 취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동사에 대해 郭志良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34)</sup>

동사에 가능보어 '了'가 수반된 형식 앞에 부사어가 있을 때, 이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동보구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你还占得了他的便宜呀? (너는 아직 그에게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부사어 '還'는 '占得了'를 수식하고 있으며, '了'는 동사 '占'의 가능보어로만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부사어는 동보구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만을 수식하기도 한다.

A: 别乱花钱! (함부로 돈을 쓰지 마시오!)

B: 放心吧, 乱花不了! (걱정 마십시오, 함부로 쓸 리 없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乱'은 동사 '花'를 수식하는 부사어이지 '花不了'의 부사어가 아니며, '了'는 '乱花'의 가능보어이다.

'乱花'와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사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으로 수식구조라고 하는데, 가능보어 '了'를 취하는 동사들과 비교하여 이러한 구조를 상동구(狀動結構)라 부른다.

이밖에도 '少來, 輕饒, 多拿, 白死' 등이 '~得/不了(liǎo)' 형식 앞에 놓여 가능보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의 형성은 '~得/不了(liǎo)' 형식이 구어체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위의 내용들은 '~得/不了(liǎo)' 형식이 다른 형식에 비해 중심 술어와의 결합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며, '~得/不了(liǎo)' 형식이 더욱 다양한 동사와 형용사를 가능보어 형식에 적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郭志良, 「可能補語“了”的使用範圍」, 『語言教學與研究』 1期, 1980, pp.22-25

### 3. 가능 보어 변천

양희석은 ‘得’를 사용하지 않는 보어는 唐代에 이미 정착 되었으나 ‘得’를 사용한 보어는 宋代 이전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宋代에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고 말하고, ‘得’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35)</sup>

先秦時代에 ‘得’는 타동사로서 ‘획득’의 의미 → 引伸되어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 → 漢代에 이르러 ‘得’가 동사 뒤에 놓여 보어 역할을 하기 시작 → 宋代에 크게 성장함.

윤유정<sup>36)</sup>도 ‘得’자의 어법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위의 과정보다 좀 더 세분화 되었으나 비슷한 흐름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得’자의 본래 의미는 ‘획득’이다. (‘얻다, 획득하다’의 뜻을 가진 타동사)  
西南得朋, 东北喪朋. (『易·挂辭』)  
(서남쪽으로 가면 벗을 얻고, 동북쪽으로 가면 벗을 잃는다.)

↓

이후 동사 ‘得’가 명사 앞은 물론 점차 동사 앞에도 놓여 ‘能够’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면서 조동사의 용법이 생겨남.

寡人虽无似也, 愿闻所以行三言之道, 可得闻乎? (『禮記·哀公問』)

(과인이 비록 부족하나, 삼言之道를 행하는 방법을 듣고자 하오는데, 들을 수 있겠습니까?)

↓

先秦兩漢에 ‘得’는 점차 타동사의 뒤에도 쓰여 ‘V得’ 연동구조를 형성함.  
(여전히 ‘획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35) 양희석, 「중국어 보어 발전 - 원곡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3권, 중국인문학회, 1984, pp.199-201.

36) 윤유정, 「현대중국어에서 ‘得’자의 어법화 현상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제41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pp.78-83.

孟孫獵得麋，使秦西巴持之歸。(『韓非子·說林上』)

(노나라 대부 孟孫이 사냥하여 사슴새끼를 잡았는데, 秦西巴로 하여금 그  
것을 수레에 싣고 돌아가게 하다.)



漢魏六朝시기에 의미가 더욱 허화하여 동작이 실현되어 결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보어로 쓰이기 시작함.

證得道跡，諸漏已盡。(『佛本行集經』)

(도를 깨달으니,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唐代에 ‘得’는 더욱 허화되어 동작의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V  
得’ 뒤에 명사성 성분뿐만 아니라 술어성 성분도 쓰일 수 있게 됨.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은 점차 상실됨)

已應春得細，頗覺寄來遲。(杜甫『佐還山後寄三首』之二, 『全唐詩』2326쪽)

(아마도 곱게 쪼여야 하기 때문에, 꽤나 늦게 부치는 것이라고 느껴진다.)



宋代에 ‘得’를 사용한 가능보어의 틀이 완성됨.

旗下依依認得眞。(季佈罵陣詞文)

(깃발 아래에서 하늘거리니 진짜임을 알겠네.)

揚建國은 唐宋 무렵 중국어 보어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구조가 병존하였으며, 宋代 이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여 ②의 구조가 ①의 구조로 동화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보어의 성질이 점차 목적어가 앞에 놓이는 것을 거부하고 동사 뒤에 놓이는 추세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37)</sup>

①	②
동사+결과보어+목적어	동사+목적어+결과보어
동사+得+정도보어	동사+得+목적어+정도보어

37) 唐宋之際，漢語補語式并存有下列兩類格式。

這種并峙的局面，并未維持多久。宋代以後，就出現了②式向①式發展的趨勢，并最终爲①式所并。顯然，這應該理解爲補語有逐漸排斥它前面的賓語而自己緊置于動詞之後的趨勢。這種趨勢，完成了漢語補語格式的統一，豐富了漢語句式的表達功能。例如，由于受事B在句中所處的位置不同，就能表達細微的差別(請比較“狗壓死了”和“壓死了狗”)，有時并可以表達完全不同的意義(請比較“吃完了飯”和“飯吃完了”)。(揚建國，「補語式發展試探」，『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2，pp.112-113.)

동사+得+가능보어+목적어	동사+得+목적어+가능보어
동사+不+가능보어+목적어	동사+목적어+不+가능보어

그는 또한 중국어 가능식의 부정형이 대략 兩晉시대에 출현한 이후 점차 사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38)</sup>

樓高望不見，盡日欄杆頭。(白居易『西洲曲』)

(누대는 높아도 볼 수가 없고, 온종일 난간 끝에 서성이네.)

空裏流霜不覺飛 江上白沙看不見 (張若虛『春江花月夜 初終聯』)

(허공을 떠도는 서릿발이 살며시 날아들고, 물가 흰 모래는 바라봐도 보이지 않네.)

白玉高樓看不見，相思須上望夫山。(李白『別內赴徵三首』)

(백옥 누각에서는 볼 수 없으니, 그리워질 때마다 망부산에 오르리.)

剪不斷，理還亂。(南唐王 李煜『相見歡』)

(잘라도 끊어지지 않고, 다듬어도 여전히 어지럽다.)

秋風吹不盡，總是玉關情。(李白『子夜吳歌』)

(가을바람 그치지 않으니, 온통 옥관의 임 그리는 마음이로다)

또한 그는 가능식의 부정형이 上古 시대 ‘V/不V<sup>39)</sup>’ 병렬 형식의 결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不V’가 ‘동사’의 반대 결과를 의미하며, 두 항목이 갈수록 밀접한 관계로 발전·정착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능식의 부정형으로 합쳐지게 된 것이라 하였는데, 『漢書·李陵傳』 중 ‘吾士兵少衰，而鼓不起者何也? (나의 부대의 사기가 쇠하는 일이 드문데 어찌 북을 쳐도 일어나지 않는가?)’에서 쓰인 ‘鼓不起’의 경우, 비록 병렬식이지만, 이미 후에 나타난 부정형에 매우 근접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0)</sup>

38) 揚建國, 『補語式發展試探』,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p.108.

39) 원문에서는 동사를 ‘A’로 표시하였으나, 본고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V로 통일함.

40) 可能式的否定式, 究其來源, 可能是上古“A+不A”并列式的粘合。由于兩項之間意義聯系較密, 而且后項表示前項反面的結果, 這樣, 它們就日趨緊密、固定, 最后終於粘合成了可能式的否定式。『漢書·李陵傳』: “吾士兵少衰, 而鼓不起者何也?”句中的“鼓不起”即是并列式, 可是已十分接近于后起的否定式了。(揚建國, 『補語式發展試探』,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pp.109-110.)

石毓智는 가능형식을 情態式이라 표현하였는데, 가능형식의 성립이 3개 형태소 (동사+得/不+보어)의 통합과 관계가 있으며, 雙音化<sup>41)</sup>가 정태식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가능보어 부정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42)</sup>

共時적 관점에서 봤을 때, 情態式的 부정형은 단지 ‘不’로 中綴 ‘得’를 대신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형은 부정형만의 발전과정이 따로 존재한다. 13세기에 ‘得’가 앞에 있는 동사와 우선 통합되어 하나의 어법단위를 이루던 상황과는 다르게, ‘不’는 언제나 R<sup>43)</sup>과 함께 출현하다가 하나의 雙音單位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受事名詞가 있다면 그 형식은 오로지 ‘V/O/不R’로, ‘不R’이 먼저 하나의 어법 단위를 이루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是看他意不出。(朱子語類卷二十七)

(그의 뜻을 알아낼 수 없다.)

說自家意思不盡。(朱子語類第九)

(스스로 생각을 다 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13세기 무렵에 ‘V不RO’ 구조의 부정형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15세기 무렵에 분리 가능한 동보 조합<sup>44)</sup>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으며, 언어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적지 않은 방언의 情態式이 분리 가능한 형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현대중국어 방언에서 雙音化가 情態式 출현에 미친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이들 방언의 情態式的 발전이 북방 방언보다 느린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아마도 일반적인 동보구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남방 방언의 雙音化 추세가 비교적 약했기 때문일 것이며, 이 또한 雙音化 추세가 동보 발전 과정에 미치는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宋代 이전까지 가능보어가 사용된 일이 거의 없었고, 송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능보어의 표지 역할을 하는 데 ‘得’가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가능보어 긍정형에 대해서는 위의 변천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다.

가능보어 부정형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揚建國는 ‘V不V’병렬식이

41) 두 개의 다른 한자가 形音關係로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것.

42) 石毓智, 『現代漢語語法系統的建立-動補結構的產生及其影響』,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5, pp.81-87.

43) 원문에서는 보어를 ‘R’로 표기하고 있음.

44) 원문의 ‘可分離式動補組合’을 대체할 용어를 찾지 못하여, 본문에서는 ‘분리 가능한 동보 조합’으로 명명함.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가능보어의 부정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하고, 石毓智는 ‘不’와 보어가 雙音單位로 굳어져 ‘V不RO’ 형식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통된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揚建國와 石毓智 모두 ‘不’가 뒤에 이어지는 성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주장했다. 揚建國는 병렬식의 구성을 ‘V/不V’로 구분하였고, 石毓智는 ‘不R’을 긴 밀하게 통합된 雙音單位로 보았다.

시중에 출판된 다수의 어법서에서 가능보어를 ‘동사+결과보어·방향보어’ 사이에 ‘得/不’가 첨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마치 가능보어가 ‘동사+결과보어·방향보어’에서 來源한 것처럼 느껴진다. 가능보어는 긍정형과 부정형의 형성 시기와 과정 자체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며, ‘동사+결과보어’ 형식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동보구가 가능보어로는 성립되는 등의 예만 보더라도 위와 같은 설명은 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4. ‘~不了(liǎo)’의 역할

##### 가. 통사적 역할

‘~得/不了(liǎo)’ 형식은 주로 술어로 사용되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許帥는 ‘V不了’ 형식의 통사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45)</sup>

‘V不了’구는 문장에서 주로 술어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관형어,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다른 문장성분의 역할도 할 수 있다.

##### 1. ‘V不了’의 술어 역할

他预感到这关键的一大步走出去, 今后往回收都**收不了**了。

(그는 이 중요한 한 걸음을 떼고 나면, 앞으로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 없음을 예감했다.)

##### 2. ‘V不了’의 관형어 역할

45) 許帥, 『漢語否定式能性表達結構研究』, 青島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p.33.

不要去插手那些不该我们管、**管不了**的事情。

(우리가 간섭해서도 안 되고, 간섭할 수도 없는 그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3. ‘V不了’의 주어 역할

粮食不能浪费, 粒粒皆辛苦, **吃不了**可不行。

(양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한 톨 한 톨 다 고생이 배어 있는 건데, 다 먹지 못하면 안 되지요.)

4. ‘V不了’의 목적어 역할

不管医生怎么说, 他还是认为**好不了**。

(의사가 뭐라고 하든 그는 병이 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5. ‘V不了’의 보어 역할

她为我做了很多菜, 多得**吃不了**。

(그녀는 나에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이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不了(liǎo)’ 형식이 가장 많이 담당하는 문장 성분은 술어이다. ‘~不了(liǎo)’ 형식을 사용한 문장의 거의 대부분이 술어라 할 만큼 술어의 역할을 하는 일이 많으며, 본고의 거의 모든 예문에서도 ‘~不了(liǎo)’ 형식이 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술어 역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출현한 것은 관형어로 사용되는 경우였으며,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술어나 관형어로 사용된 경우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주어 역할인 경우 ‘~不了(liǎo)’ 형식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뒤에 목적어를 동반한 술목구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로 동사가 술보구의 중심어가 되어 ‘不了(liǎo)’를 보어로 취하지만, 형용사 뒤에 ‘不了(liǎo)’가 수반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술보구의 중심어로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단음절인 경우가 이음절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음절 단어의 상당 부분이 단음절 동사·형용사에서 확장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이음절 동사·형용사는 단음절 동사·형용사와 의미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sup>46)</sup>

46) 예: 受不了 → 接受不了, 經受不了, 承受不了, 忍受不了… 【부록2】 참조.

그중 동사에 속하는 離合詞<sup>47)</sup>도 자주 ‘不了(liǎo)’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때 이 합사의 목적어는 아래와 같이 ‘不了(liǎo)’의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1) 有时腰疼得**起不了**床。

(가끔은 허리가 아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2) 处在目前这种情况, 无论怎样**负不了**责。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질 수 없다.)

(3) 受教育而**就不了**业, 就算不上人才; 如果是人才, 不就业更是浪费。

(교육을 받았어도 취직을 못 한다면 인재라 할 수 없고, 만약 인재임에도 취직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낭비이다.)

(4) 这个问题如果不解决, 我们这些人就**交不了**帐。

(이 문제가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위의 예문에 사용된 ‘起床, 负责, 就业, 交帐’ 등은 모두 이합사에 속한다. 동목구이지만, 동사와 같이 취급되는 이들 이합사는 ‘不了(liǎo)’와 함께 사용될 때 동사와 목적어가 분리되며 ‘不了(liǎo)’가 술어구에 속하게 된다. 조동사 ‘能’과 함께 사용될 때 ‘不能起床, 不能负责, 不能就业, 不能交帐’ 등과 같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바로 수반되는 것과 차이를 보이며, 이밖에도 ‘帮忙, 生气, 放心, 见面, 游泳, 睡觉, 结婚, 出差’ 등 다수의 이합사가 위와 같이 사용된다. 하나의 동사와 같이 취급되는 이합사와 함께 사용될 때 목적어보다 우선적으로 동사 뒤에 놓여 술보구를 형성한다는 점은 동사와 ‘不了(liǎo)’의 결합 정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不了(liǎo)’ 형식은 의미적으로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예와 같은 ‘把’자문<sup>48)</sup>, ‘被’자문<sup>49)</sup>등의 특수문형과 명령문 등에 사용할 수 없다.

47) 離合詞: ‘동사+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진 동사로,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见面, 帮忙, 结婚, 畢業 등.

48) ‘把’자문: 술어에 전치사 ‘把’로 구성된 전목구(介詞短語-부록 참조)가 부사어를 담당하는 동사 술어문.

49) ‘被’자문: 동사 앞에 전치사 ‘被’ 혹은 ‘被’로 구성된 전목구가 놓여 부사어를 담당하는 문장.

- (5) \*我把东西买不了那么多。
- (6) \*他被我们接受不了。
- (7) \*我让他走不了。
- (8) \*你走不了!

‘把’자문과 ‘被’자문을 비롯해 使动词를 사용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물·사람이 동작을 통해 변화되거나 이동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了(liǎo)’가 완료·완성을 나타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不了(liǎo)’는 위와 같은 특수 문형에 쓸 수 없으며, 명령문 역시 ‘금지’의 표현이므로 ‘~不了(liǎo)’ 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 위의 문장들을 조동사 ‘能’으로 대체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면 문장 성립이 가능해진다.

- (5a) 我不能把东西买那么多。  
(나는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살 수 없다.)
- (6a) 他不能被我们接受。  
(그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 (7a) 我不能让他走。  
(나는 그를 가게 할 수 없다.)
- (8a) 你不能走!  
(가면 안 돼!)

## 나. 의미적 역할

石毓智는 보어의 陰性적 어법 관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보어의 陰性적 어법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동보구의 어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보어는 동사 뒤에 밀착되어 나타나는 성분이지만, 심층적

의미 관계를 따져보면 보어는 사실 문장의 모든 성분과 관계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한 동사 뒤에 각각 다른 보어를 배치했을 때, 그 보어가 가리키는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 ㉠ 砍累了 (꽤다 지쳤다.)
- ㉡ 砍鈍了 (꽤다 무더졌다.)
- ㉢ 砍完了 (다 뺐다.)
- ㉣ 砍掉了 (베었다.)<sup>50)</sup>

위의 예문들은 모두 동일한 동사 ‘砍(꽤다, 찍다)’을 사용하고 있지만, 뒤에 수반되는 보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작의 진행으로 영향을 받아 상태가 변하거나 결과가 나타나는 대상이 달라진다.

문장의 전후 내용과 상관없이 주어진 술보구만을 분석하자면, 예문㉠에서 동작으로 인해 ‘累累(지치다, 피곤하다)’의 상태가 되는 대상은 직접 도구를 들고 무엇인가 찍는 동작을 행한 ‘행위자’가 되지만, 예문㉡에서 동작의 영향을 받아 ‘鈍(무더다)’의 상태로 변하는 대상은 행위자의 손에 의해 ‘찍다’라는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된 도끼나 칼 등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의 경우, ‘完(끝내다, 마치다)’이 가리키는 것은 동작을 통해 일정한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의미이므로 ‘동작 행위의 완성’이라 할 수 있고, 예문㉣의 경우, ‘砍(꽤다, 찍다)’이라는 동작으로 인해 ‘掉(떨어지다)’의 상태가 되는 대상은 누군가로부터 찍힘을 당해 본래 모습에서 분리되어 아래로 이동된 ‘동작 행위의 대상’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결과보어와 마찬가지로 가능보어의 한 형태인 ‘~不了(liǎo)’는 문장 안에서 일정한 의미적 역할을 하는데 술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不了(liǎo)’ 구조로 쓰일 때의 의미나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몇 개의 술어<sup>51)</sup>를 통해 ‘不了(liǎo)’의 의미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50) 石毓智, 『現代漢語語法系統的建立-動補結構的產生及其影響』,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5, pp.37-38.

51) 주로 사전에 명시된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중국어 단어의 특성상 품사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본고에서는 사전에서 각 단어의 여러 의미만을 참고로 하였음.

① ‘多’<sup>52)</sup>

(9) 不用问, 他们的人**多**不了。

(물어볼 필요 없어. 그들의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10) 一个部长的工资虽比普通职工**多**不了多少, 但在住房上比普通职工要宽, 并且有可能产生了空房现象。

(부장 한 사람의 월급은 일반 직원보다 얼마 많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 일반 직원의 집에 비해 넓고, 방이 남는 경우마저 생기기도 한다.)

(11) 算起来, 今年种菜、卖菜挣的钱比去年**多**不了多少。

(계산해보니, 올해 심고 내다 판 채소로 벌어들인 돈이 작년보다 얼마 증가하지 않는다.)

(12) 其实说实话, 涨这点钱对我们也没有那么大的影响, 1个月也**多**不了多少钱, 但能省一点是一点, 工薪阶层嘛。

(솔직히 이 정도 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한 달이라고 해도 얼마 늘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지, 우리는 월급쟁이잖아요.)

예문(9)의 경우, 전후 내용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휘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제시된 문장만을 해석한다면 형용사 ‘많다’와 동사 ‘많아지다’의 의미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예문이라 할 수 있는데, 형용사의 의미를 적용했을 경우는 ‘많을 리 없다,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수량의 정도에 대한 추측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동사의 의미를 적용했을 경우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변화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52) (形) 1. (수량이) 많다.

2. 많다, 여분이 있다.

3. 과하다, 과분한, 불필요한

(動) 기존의 숫자나 자체 숫자를 넘어서다. 기존에 비해 다소 증가함. (多兩個人: 두 사람이 더 있다. / 多十塊錢: 10위안이 더 있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p.624-625. / 孟琮·鄭懷德·孟慶海·蔡文蘭, 『動詞用法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4, p.231.)

예문(10)은 부장과 일반 직원 월급의 액수가 비교되는 문장이므로 형용사의 의미인 ‘많다’를 적용할 수 있는데, 술보구 뒤에 분명하지 않은 수량을 나타내는 의문 대체사 ‘多少’가 놓여 ‘약간 더 많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1)은 작년과 올해의 수입을 비교하고 있고, 예문(12)에서는 기존의 수입과 현재의 수입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동사로서의 의미인 ‘증가하다’를 적용할 수 있다. 예문(10)과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은 수량을 나타내는 의문 대체사 ‘多少’가 수반되어 ‘약간 증가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전보다 얼마 늘지 않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을 통해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적용된 ‘多’의 뒤에 ‘不了(liǎo)’가 첨가되면, ‘많을 리 없다, 많지 않을 것이다’ 등의 수량의 정도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고, 동사로서의 의미가 적용된 ‘多’의 뒤에 ‘不了(liǎo)’가 첨가될 때에는 대체로 불분명한 수량성분이 수반되어 ‘늘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겨우 조금 늘어난’ 등의 이미 이행된 결과에 대한 낮은 평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CL을 통해 검색된 예문 중 ‘多不了’를 사용한 예문은 총 12개였으며, 이중 ‘多不了’의 뒤에 ‘多少, 很多, 几(+量詞)’ 등 불분명한 수량성분을 동반하여 ‘얼마 증가하지 않음’을 나타낸 예문이 10개였고, ‘多不了’만을 술어로 사용하여 ‘많을 리 없음’을 나타낸 예문은 단 2개에 불과했다. ‘多’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 중褒義에 속하는 단어라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 달리 ‘不了(liǎo)’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대상의 정도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아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 ② ‘好’<sup>53)</sup>

(13) 训练当中要是急躁的话,训练质量肯定也好不了。

(훈련 중 조바심을 낸다면 훈련의 질도 분명 좋지 못할 것이다./나아질

53) (形) 1. 좋다. 훌륭하다. 선량하다. 능숙하다.

2. 친근하다. 사이가 좋다. 우호적이다.

3. (몸이) 건강하다. 안녕하다. 성하다.

(動) (병이) 다 낫다. 나아지다. 좋아지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p.901-902.)

수 없을 것이다.)

(14) 到了作业海区, 情况也好不了多少。

(조업해역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할 것이다./얼마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15) 足足看了两年, 什么医生都看过, 什么药都吃了, 就是好不了。

(꼬박 2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 보았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병이 낫질 않았다.)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채로 제시된 문장만을 보고 해석을 한다면, 예문(13)과 예문(14)에는 형용사로서의 의미 ‘좋다, 훌륭하다’와 동사로서의 의미 ‘나아지다, 좋아지다’를 적용할 수 있다. 모두 미래의 상황 혹은 상태에 대해 예측하는 문장으로, 예문(13)의 경우, 부사어 ‘肯定’을 첨가하여 話者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예문(14)의 경우, 의문 대체사 ‘多少’를 첨가하여 ‘좋아봐야 얼마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상에 대한 話者의 낮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5)는 동사로서의 의미 ‘병이 낫다’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예문과 차이가 있다. 예문(15)에서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好’ 뒤에 ‘不了(liǎo)’가 첨가되어 원하는 바(병의 완쾌)를 실현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의 두 문장이 미래의 상태나 정도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이미 나타난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다.

‘好不了’를 사용하고 있는 총 139개의 예문 중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好不了’의 뒤에 ‘多少, 多久’와 같은 불분명한 수량을 나타내는 의문 대체사가 수반되면 상황이나 상태가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함을 나타내고, 위와 같은 의문 대체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황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음 의미한다. ‘好’ 역시 褒義에 속하는 단어라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 달리 ‘不了(liǎo)’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원래 단어에 비해 그 정도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아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은 ‘多’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少’<sup>54)</sup>

(16) 星图和星表是人们从事天文观测和研究必不可少的工具之一，就像我们学习地理知识少不了地图一样。

(항성도와 성위표는 사람들이 천문 관측과 연구를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우리가 지리에 대해 공부할 때 지도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17) 这种情况每年都少不了三、四次，碰到停电我们只能徒唤奈何！

(이런 상황은 매년 서너 번 이상 일어난다. 정전이 되면 우리는 그저 어찌해야 하냐고 소리만 칠뿐이다.)

(18) 欠你的书，一本也少不了。

(너에게 빌린 책은 한 권도 빠짐없이 돌려줄게.)

(19) 以后少不了还会麻烦您。

(앞으로 불가피하게 또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문(16)에는 형용사로서의 의미인 ‘빠지다, 걸핍되다’를 적용하여 ‘빠질 수 없다, 빠져서는 안 된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고, 예문(17)에는 형용사로서의 의미 ‘적다’를 적용하여 ‘서너 번 보다 적을 수 없다, 적지 않다’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서너 번은 반드시 발생하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문(18)에서는 동사로서의 의미인 ‘없어지다’를 적용하여 ‘한 권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한 권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話者

54) (形) 1. 적다.

2. 부족하다, 모자라다, 걸핍되다, 빠지다.
3. 진기하다, 드물다, 흔하지 않다.

(動) 1. 잃다, 없어지다, 분실하다.

2. 빌다, 빚지다. 빚이 있다.
3. 예누리하다, 값을 깎다.
4. 기존에 비해 다소 감소하다.

5. 少不了: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免不了)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2035. / 孟琮·鄭懷德·孟慶海·蔡文蘭, 『動詞用法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4, pp.638-640.)

의 의지가 담긴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문(19)는 ‘少不了’의 형식 자체를 부사어로 사용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신세를 지는 일이 또 발생할 것이며, 그 일이 話者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少’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동사의 의미가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만<sup>55)</sup>, 총 827개의 ‘少不了’ 사용 문장을 살펴본 결과, ‘不了(liǎo)’가 수반된 상태 일 때에는 대부분 형용사로서의 의미인 ‘없어서는 안 되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으로 사용되고 있고, 간혹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多不了’가 대체로 형용사로서의 의미로 사용될 때 수량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동사로서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少不了’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추측으로 사용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또한 貶義에 속하는 단어인 ‘少’가 형용사나 동사 단독으로 쓰일 때보다 ‘不了(liǎo)’가 수반되어 사용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多’와 대조적으로 대상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多不了’로 대상을 얕잡아보는 話者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少不了’로는 話者의 확신이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비교해 볼 수 있다.

④ ‘差’ 56)

(20) 我的表会慢! 这是我的曾祖父留下来的传家之宝。它一年也差不了四五分钟, 这是个标准表。

(내 시계가 느리다고! 이건 우리 증조부께서 물려주신 家宝야. 이 시계는 1년에 4, 5분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시계야.)

(21) 他们两个人的脾气差不了多少。

55) 동사로서의 의미가 적용되는 ‘少’의 예: 一分钱也不少你的。(네 돈이라면 한 푼도 빌리지 않을 것이다.)

56) (形) 1. 나쁘다. 표준에 못 미치다. 좋지 않다.

2. 다르다. 차이가 나다.

3. 틀리다. 잘못되다.

(動) 부족하다. 모자라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256. / 孟琮·鄭懷德·孟慶海·蔡文蘭, 『動詞用法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4, pp.73-74.)

(그 두 사람의 성격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22) 我的体重离标准差不了几斤。

(내 체중은 표준보다 조금 덜 나갈 뿐이다.)

예문(20)은 형용사로서의 의미 중 ‘틀리다, 잘못되다’를 적용하여 ‘틀려봐야 4, 5분도 틀리지 않는’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예문(21)은 ‘다르다, 차이가 나다’를 적용하여 ‘얼마 다르지 않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예문(22)의 경우는 동사로서의 의미인 ‘부족하다, 모자라다’를 적용하여 ‘표준에 조금 모자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少’의 경우처럼 ‘差’ 역시 貶義에 속하는 단어라 할 수 있지만, ‘不了(liǎo)’를 수반한 상태로 쓰이게 되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話者에게 대상이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문(20)은 ‘4, 5분도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정확함’을 의미하고, 예문(21)은 ‘두 사람의 성격이 매우 비슷함’을 의미하며, 예문(22)는 ‘약간 모자란 정도’를 의미한다. 총 88개 예문 중 5개만을 제외하고 모두 ‘多少, 几點, 什麼’ 등의 의문 대체사가 분명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대 성분으로 수반되어 기준이나 목표와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미약하여 큰 문제는 없다는 느낌을 전달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

⑤ ‘對’<sup>57)</sup>

(23) 对歌儿我可对不了。

(나는 대창의 주고받기를 아주 못 한다.)

57) (形) 1. 상대의, 적대의  
2. 맞다. 옳다. 정확하다. 정상이다.  
(動) 1. 대답하다. 응답하다.  
2. 상대하다. 대응하다. 대처하다.  
3. 서로 맞서다. 서로 마주 향하다.  
4. 맞추다. 접촉시키다. 조절하다.  
5. 의기투합하다. 적합하다. 어울리다. 사이가 좋다.  
6. 대조하다. 맞대보다. 맞추어 보다.  
7. 뒤섞다. 혼합하다.(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p.615-616. / 孟琮·鄭懷德·孟慶海·蔡文蘭, 『動詞用法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4, pp.226-229.)

(24) 我做的饭老是对不了他的口味。

(내가 한 밥은 항상 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25) 这笔迹太乱，我对不了。

(이 필적이 너무 어지러워서 대조할 수 없다.)

(26) 我对不了鸡尾酒。

(나는 칵테일을 제대로 섞지 못한다.)

(27) 他一道题也对不了。

(그는 한 문제도 맞힐 수 없었다.)

‘對’의 경우 ‘~不了(liǎo)’ 형식에도 매우 다양한 의미가 적용된다. 예문(23)에는 동사로서의 의미 중 ‘서로 맞서다, 서로 마주 향하다’의 의미를 적용하여 ‘주고받기를 못 한다’로 해석할 수 있고, 예문(24)에는 ‘상대하다, 대응하다’의 의미를 적용하여 ‘그의 입맛에 맞추지 못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25)은 ‘대조하다, 맞추어 보다’의 의미를 적용하여 ‘대조가 불가능하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예문(26)은 ‘뒤섞다, 혼합하다’의 의미를 적용하여 ‘혼합하지 못한다’로 해석할 수 있고, 예문(27)은 형용사로서의 의미 중 ‘맞다, 정확하다’를 적용하여 ‘맞는 답을 하지 못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주로 동작에 대해 설명하는 ‘對’의 경우, 각각의 동사로서의 의미에 ‘할 수 없다’ 혹은 ‘잘 못한다’의 의미만을 전달할 뿐 話者의 감정이나 성향·태도 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聽者에게 전달되는 느낌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중 褒義에 속하는 ‘多’나 ‘好’, 貶義에 속하는 ‘少’나 ‘差’가 ‘~不了(liǎo)’형태로 사용될 때 聽者에게 원래의 느낌과 상반되게 느껴진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는 술어의 경우, ‘不了(liǎo)’를 첨가했을 때 본래 가진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미지로 바뀌는 단어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특히 정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일수록 그 변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도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의 서술에 해당하는 술어의 경우에는 ‘불가능’의

의미만 더해질 뿐 이미지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 뒤에 ‘不了(liǎo)’를 첨가하여 사용할 때 중심 술어의 이미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 多年在一个车间里做生活, 短<sup>58)</sup>不了你帮助我, 我帮助你, 相互帮助, 共同进步啊!

(여러 해 동안 같은 작업장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돕는 것이 빠질 수 없지, 서로 도와가며 함께 발전하는 거야!)

(29) 条码把人们带入了信息社会, 信息社会缺少<sup>59)</sup>不了条码。

(바코드는 인간을 정보 사회로 끌어들였고, 정보 사회에서는 바코드가 없어서는 안 된다.)

(30) 史更新一定是离开了原来的地方, 可是他往哪里去呢? 既然他不能走路了, 当然就远<sup>60)</sup>不了。

(史更新은 분명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어차피 그는 걷지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31) 钱多少并不重要, 若光钱多, 但工厂没有发展, 那也长久<sup>61)</sup>不了, 个人的利益系于企业的长久利益。

(자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자금만 많고 공장에 발전이 없으면 그 또한 오래 가지 못한다. 개인의 이익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연결된 것이다.)

(32) 地方队水平下降了, 国家队水平也高<sup>62)</sup>不了。

58) 短: (形) ① 짧다. (動) ① 결핍되다, 부족하다. ② 빗지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608.)

59) 缺少: (動) 모자라다, 결핍하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1895.)

60) 遠: (形) ① (거리, 시간상) 멀다. ② (사이가) 멀다, 소원하다. ③ 심원하다. ④ (차이가) 크다, 심하다. (動) ① 멀리하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2965.)

61) 長久: (形) 장구하다, 영구하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271.)

62) 高: (形) ① (높이가) 높다. ② (품질·수준·정도 등이 보통 정도보다) 높다. ③ 소리가 높다. ④ 가격이

(지역팀 수준이 하락하면, 국가대표팀 수준 역시 높아질 수 없다.)

(33) 这是把大大超出我们理解力的东西, 贬低到了比人类智力**高级**<sup>63)</sup>不了多少的水平。

(이는 우리의 이해력을 크게 넘어서는 것을 인간의 지능보다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폄하하였다.)

(34) 忽视企业管理, 就是一时热销的产品也**火红**<sup>64)</sup>不了多少时间, 很快被更有竞争力的产品取代。

(기업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던 제품도 그 열기가 얼마 가지 못하고 더 경쟁력 있는 제품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35) 实际上, 他比一个要饭的乞丐**强**<sup>65)</sup>不了多少!

(사실 그는 밥을 구걸하는 거지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예문(28)과 예문(29)에는 ‘短’과 ‘缺少’의 동사로서의 의미인 ‘결핍되다, 부족하다’가 적용되었다. 貶義에 속하는 단어라 할 수 있는 ‘短’과 ‘缺少’에 ‘不了(liǎo)’가 동반되면서 ‘빠질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데,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 비해 대상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예문(30)에는 ‘遠’의 형용사로서의 의미인 ‘(거리상) 멀다’의 의미가 적용되어 ‘멀어질 리 없다’ 즉, ‘멀리 가지 못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의 상태를 근거로 멀리 갈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는 話者의 확신이 포함된 문장이라 볼 수 있다.

예문(31)에는 형용사 ‘長久’의 ‘장구하다, 영구하다’의 의미를 적용하여 ‘오래 갈

높다.

(動) ① 높아지다. ② 높다, 존경하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p.768-769.)

63) 高級: (形) 고급의, 상급의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770.)

64) 火紅: (形) ① 시빨갳다, 타는 듯 붉다. ② 정열에 불타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1022.)

65) 强: (形) ① 힘이 세다. ② (감정이나 의지의 정도가) 강하다. ③ 우월하다, 좋다.

(動) 굳어지다, 옹고하다.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pp.1819-1820.)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고, 예문(32)에는 '高'의 형용사로서의 의미인 '수준이 높다'를 적용하여 '높을 리 없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용사+不了(liǎo)'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경우 '그러한 상태가 나타날 리 없다'는 話者의 확신이나 추측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며,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예문(33), 예문(34), 예문(35)에서와 같이 '형용사+不了(liǎo)'의 뒤에 분명하지 않은 수량성분이 수반될 경우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가 매우 미약한 정도를 보인다는 의미와 함께 이를 낮게 평가하는 話者의 태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예문(33)에서는 형용사 '高級'의 의미인 '고급의, 상급의'가 적용되었는데, '高級不了(liǎo)'의 뒤에 분명하지 않은 수량을 나타내는 의문 대체사 '多少'가 사용되면서 '높아봐야 얼마 높지 않은'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고, 예문(34)에서는 형용사 '火紅'의 의미가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면서 '열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火紅不了(liǎo)'의 뒤에 '多少時間'이 사용되면서 '인기를 끌어봐야 얼마 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예문(35)의 경우, '強'의 형용사로서의 의미 '우월하다, 좋다'가 적용되었는데, '強不了(liǎo)'의 뒤에 '多少'가 수반되면서 '그다지 나올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短', '遠' 등과 같이 貶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단어는 '不了(liǎo)'를 동반하면서 술어 이행 주체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높여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반면, '長久', '高級' 등과 같이 본래 褒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단어는 '不了(liǎo)'와 부대 성분을 동반하면서 술어 이행 주체에 대한 낮은 평가를 이끌어낸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不了(liǎo)'가 가능성의 부정을 표시해주는 어법적 역할 외에도 중심 술어의 의미가 가지는 느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不了(liǎo)’의 사용 환경

가능보어를 사용한 문장의 경우 언어 환경에 따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관적 조건(혹은 환경), 객관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 환경을 구분하기에 앞서 주·객관적 조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객관성(objectivity)은 어떤 장면을 話者和 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리키고, 주관성(subjectivity)은 話者が 관련된 장면의 해석을 가리킨다.<sup>66)</sup>

주관적 환경이란 ‘話者和 聽者的 신분, 사상, 성격, 직업, 교양, 감정 등’을 말하고, 객관적 환경이란 ‘말화의 시간, 지점, 상황, 대상 등’을 말한다.<sup>67)</sup>

劉月華<sup>68)</sup>의 경우에는 가능보어와 관련된 ‘能’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에 대한 예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他能说三种外语。

(그는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

今天气温很低, 水能结成冰。

(오늘 기온이 매우 낮아서 물이 얼 수 있다.)

첫 문장은 주관적 조건의 예이고, 아래 문장은 객관적 조건의 예로, 문장의 내용을 통해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구분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다. 주관적 조건의 문장에서는 행위자가 가진 언어 능력이 동작을 가능하게 하지만, 객관적

66) Gunter Radden · Rene Dirven, 임지룡 · 윤희수 옮김, 『인지문법론』, 도서출판박이정, 2009, pp.59-61.

67) 주관환경指说话人和听话人的身份、思想、性格、职业、修养、心情等因素。客观环境指说话的时间、地点、场合、对象等客观因素。(劉順, 『現代漢語語法的多維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p.50.)

68) 能愿动词“能”的意义很多, 与本文有关的有以下五个: (1)表示具有某种能力, 或主观条件容许实现(某一动作), 如“他能说三种外语”, “能举起一百斤东西”。(2)表示具备某种客观条件, 或客观条件容许实现(某一动作或变化), 如“今天气温很低水能结成冰”, “只要控制饮食, 你就能瘦下来”。(3)表示“有可能”, 如“都十点多了, 他还能来吗?” (4)表示“准许”, 如“没有我的命令你不能动!” (5)表示“情理上许可”, 如“里面正在开重要会议, 你不能进去。”(劉月華, 『可能補語用法的研究』,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p.313.)



조건의 문장에서는 낮은 기온이라는 환경이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주관적 조건이란 키, 체중, 나이 등 신체적 조건을 비롯해 재산, 지식, 업무 능력, 성격, 성향과 같은 술어 이행 주체가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객관적 조건이란 시간, 장소, 사건, 상황, 대상 등 술어 이행에 제공되거나 술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환경적 조건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참고로 불가능을 유발하는 원인을 술어 이행 주체 자신과 관련된 내적 조건일 경우 ‘주관적 조건’으로, 술어 이행을 하는데 제공되거나 혹은 필요한 외적 조건인 경우 ‘객관적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불가능의 표현으로 ‘~不了(liǎo)’가 문장에 출현하는 배경이 바로 이 두 조건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본고가 ‘~不了(liǎo)’ 형식의 사용 환경을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으로 구분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不了’구<sup>69)</sup>는 우선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와 ‘~不了(liǎo)’의 형식으로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 ‘~不了(liǎo)’가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이나 실현을 표시하는 경우<sup>70)</sup>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경우는 각각 객관적 조건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주관적 조건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주·객관적 조건이 함께 작용하는 환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중의적 해석의 문제가 생기거나 사용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不了(liǎo)’구의 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장에서는 ‘~不了(liǎo)’구가 사용되는 문장의 사용 환경을 ‘객관적 조건’일 경우와 ‘주관적 조건’일 경우, ‘주·객관적 조건의 동시 작용’일 경우로 나누어 각각

69) 詞組, 短語를 ‘구’로 칭함. (【부록 3】 참조.)

70)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 술어가 이행·실현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은 있으나 그 결과나 정도가 아주 미약한(일정 수준의 결과나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의 환경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가능보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불가능의 원인과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 관계로 맺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심 술어는 고정으로 하고, ‘不了(liǎo)’ 부분만을 대체 가능한 기타 표현으로 바꾸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문장은 ‘不能~’ 형식을 비롯한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대체하였는데, 조동사는 대체로 아래의 구분을 참고하였다.

능력: 能, 能够, 會, 可以  
허가·동의: 能, 可以  
바람·터득: 會<sup>71)</sup>

‘了(liǎo)’가 완료·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不完’을 적용하여 의미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了(liǎo)’가 완료·완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임에도 ‘~不完’으로 대체했을 때 문장 성립이 불가능하거나, ‘了(liǎo)’가 완료·완성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의 예문은 動詞用法詞典<sup>72)</sup>에서 활용의 예를 참고하여 문장 성립이 가능한 기타 가능보어 형식을 적용하거나, 다른 대체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어 문장 간 의미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 1. 객관적 조건의 작용

###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的을 나타낼 때, ‘了(liǎo)’는 ‘完<sup>73)</sup>’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了(liǎo)’를 모두 ‘完’으로 대체할 수 있

71) 黃宣範, 『漢語語法』, 文鶴出版有限公司, 2012, p.145.

72) 孟琮·鄭懷德·孟慶海·蔡文蘭, 『動詞用法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4.

73) 完: ① 완전히 갖추다, 완벽하다. (齊全; 完整) ② 전부 소비하다, 남은 것이 없다.(消耗淨盡; 沒有剩餘) ③ 끝을 맺다, 완결하다(了結; 完畢)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1288.)

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조건에서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나타내는 경우는 대개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능력이나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량이나 정도, 범위 등이 술어 이행의 환경으로 작용하여 동작이 완료로 이어지거나 모종의 상태가 이 지속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객관적 조건의 사용 환경에서 ‘~不了(liǎo)’가 술어 이행의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1) 这么多菜, 我吃不了。

(이렇게 많은 음식은 내가 다 먹을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 술어를 통해 처리해야 할 대상은 ‘이렇게 많은 음식’으로 음식의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술어 이행 주체의 식사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의 양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술어 이행을 통해 전체 수량을 모두 소진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조동사를 비롯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면 아래와 같다.

(1a) 这么多菜, 我不能吃。

(1b) 这么多菜, 我吃不完。

(1c) 这么多菜, 我吃不下<sup>74</sup>。

원래의 문장은 話者が 음식을 다 먹고자하는 의지는 있으나 다 먹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1a)의 형식으로 고칠 경우, 의미상 큰 차이는 없으나 원래의 문장이 단순한 서술에 해당한다면, (1a)의 문장은 단호한 어기로 전달될 소지가 있어 聽者の 입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동사 뒤에 ‘完’을 놓아 ‘無法吃完’이나 ‘不能吃完’으로 바꾸게 되면 단호한 어기는 완화됨과 동시에 원래의 문장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74) 下: ① 동사 뒤에 놓여 수용할 공간이 있음을 나타낸다. ② 동사 뒤에 놓여 동작의 완성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1354.)

본고에서 정한 대체 기준에서 벗어나므로 대체 문장에서 제외한다. 위의 예문은 술어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 수량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1b)의 형식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으며, (1c)의 형식으로 대체할 경우, ‘下’가 공간의 수용 면적이 충분한 지에 대해 나타내기 때문에 대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정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으므로, 술어 이행 주체의 식사량에 비해 제공되는 음식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这个损失, 我文杰堂就是死100次也**挽回不了**!

(이러한 손실은 나 文傑堂이 백 번 죽어도 다 만회할 수 없을 것이다!)

예문(2)의 경우, 정확한 수치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백 번 죽어도 다 만회할 수 없을 것이다’를 통해 술어 이행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손실이 술어 이행 주체가 지닌 능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규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술어 이행 주체가 ‘挽回’라는 행위를 완성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a) 这个损失, 我文杰堂就是死100次也**不能挽回**!

(2b) \*这个损失, 我文杰堂就是死100次也**挽回不完**!

(2c) 这个损失, 我文杰堂就是死100次也**挽回不来**<sup>75)</sup>!

위의 예문은 조동사 ‘能’을 사용해 대체하여도 문제는 없겠지만, ‘不能’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서술 외에 話者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a)의 경우, 술어 이행 주체가 만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규모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전부 만회할 수 없지’와 같은 話者의

75) 來: ① 어떠한 사건을 완성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낸다. ② 어떠한 일(입맛이나 취향에 자주 사용됨)에 익숙한지(혹은 익숙하지 않은지)를 나타낸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745.)

반감 혹은 특정한 의도가 드러나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원래 문장의 의미와 차이를 보인다. (2b)의 경우, ‘挽回’라는 동사가 동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결과가 발생하는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의 지속이나 동일한 동작의 반복 출현을 마무리하는 ‘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2c)의 경우, 원래의 문장과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불가능의 원인이 외적 요인에 있는 원래의 문장과 달리, ‘來’를 통해 話者의 능력 부족도 불가능의 원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3) 一匹马可**载**不了全部的人哪!

(말 한 필로는 모든 사람을 다 태울 수 없잖아!)

예문(3)의 경우, 술어 이행 주체인 ‘말 한 필’이 감당해야 하는 술어 이행 대상은 ‘모든 사람’으로 정확한 인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話者와 聽者 사이에는 이미 인지되어 있는 숫자로, 말 한 필에 다 태우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과도한 대상의 무게나 수량, 필요 면적 등이 원인이 되어 술어 이행의 결과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다른 형식으로 고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a) 一匹马可**不能**载全部的人哪!

(3b) \*一匹马可**载不完**全部的人哪!

(3c) 一匹马可**载不下**全部的人哪!

원래의 문장 자체에 話者의 지적이나 질책이 포함되어 있어 (3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문장을 대체할 경우,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부사어 ‘可’와 함께 ‘모든 사람을 태워서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가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不能’ 보다는 ‘無法’를 사용하는 편이 감정적 어기가 더해지지 않아 원래 문장과 보다 가까운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b)의 경우, ‘載(신다)’라는 동사는 동작을 행한 직후 결과가 발생하고, 발생한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사로서 동작 행위의 지속이나 동일 동작의 반복 출현과 같은 특징은 없기 때

문에 ‘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3c)의 경우, 원래 문장과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원래 예문에서 ‘了(liǎo)’가 무게, 면적, 수량 등을 모두 포괄하여 불가능의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달리, ‘下’는 불가능의 원인이 공간의 부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一头母牛可**产生不了**这么多的东西！

(암소 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예문(4) 역시 예문(3)의 경우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술어 이행 주체는 ‘암소 한 마리’이고 이 암소 한 마리가 만들어 내야 할 생산물은 ‘這麼多的東西’이다. 정확한 수량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這麼多’는 話者和 聽者 사이에 이미 인지되어 있는 수량 혹은 정도이기 때문에 통해 암소 한 마리가 생산해 내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문장 역시 話者の 지적이나 질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형식으로 고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a) 一头母牛可**不能产生**这么多的东西！

(4b) \*一头母牛可**产生不完**这么多的东西！

(4c) 一头母牛可**产生不出来**<sup>76)</sup>这么多的东西！

원래의 문장에서 암소 한 마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4a)와 같이 고칠 경우, ‘말도 안 된다’와 같은 話者の 주관이 개입된 어기가 더해져 원래의 문장보다 더 강한 느낌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에 놓인 부사어 ‘可’로 인해 ‘암소 한 마리로 이렇게 많은 것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b)의 경우 ‘產生’ 자체가 동작과 함께 결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76) 出來: ①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 ② 출현하다.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2007, pp.123-124)

(4c)의 경우, ‘없는 상태에서 출현함’을 나타내는 ‘出來(출현하다)’를 사용하였으며, 문장 성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원래의 문장보다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게 된다.

(5) 虽然克雷姆斯的大病院和住房都已变成军医院, 但是仍然**容纳不了**全部伤病员。

(이미 크렘스의 큰 병원과 주택이 모두 군병원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모든 부상자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문(5)의 경우, ‘이미 크렘스의 큰 병원과 주택이 모두 군병원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을 통해 술어 이행 주체가 병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부상자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확보된 병실에 비해 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a) 虽然克雷姆斯的大病院和住房都已变成军医院, 但是仍然**不能容纳**全部伤病员。

(5b) \*虽然克雷姆斯的大病院和住房都已变成军医院, 但是仍然**容纳不完**全部伤病员。

(5c) 虽然克雷姆斯的大病院和住房都已变成军医院, 但是仍然**容纳不下**全部伤病员。

목적어에 사용된 ‘全部’가 완벽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음을 부각시킴으로 인해 (5a)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공간적 제약 외에 다른 제약(일정한 규칙이나 외부의 압력 등 상황적 요소)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며, ‘금지’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 (5b)의 ‘~不完’은 동작을 실행하게 되면 동작의 대상이 소진되거나 대상의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문장의 동사 ‘容纳(수용하다)’는 동작이 실행됨과 동시에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불가능의 원인이 수량과 관계되며, 부상자의 수는 수용 공간의 문제와 연

관될 수 있으므로 (5c)로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하다.

(6) 到了家里, 又是大鱼大肉, 吃不完, 用不尽, 有时候那几台冰箱冰柜**装不了**, 送人又怕影响, 不得不半夜里起来拿出去扔掉。

(집에 도착해서도 생선이며 고기며, 다 먹지도 못하였다. 어떤 날은 그 몇 대의 냉장고에도 다 담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자니 또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일어나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 버리기도 했다.)

예문(6)에서 술어를 통해 처리해야 할 대상은 정확한 수량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많은 양의 생선과 고기’이고, 술어 이행을 위해 제공된 환경은 ‘몇 대의 냉장고’라고 할 수 있다. 술어 이행 주체인 話者が 술어 이행을 완성할 수 없는 이유는 수용 공간에 비해 생선과 고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생선과 고기를 담는 동작이 실시되더라도 전체 수량을 모두 냉장고 안으로 옮기는 행위가 완성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6a) 到了家里, 又是大鱼大肉, 吃不完, 用不尽, 有时候那几台冰箱冰柜**不能装**, 送人又怕影响, 不得不半夜里起来拿出去扔掉。

(6b) 到了家里, 又是大鱼大肉, 吃不完, 用不尽, 有时候那几台冰箱冰柜**装不完**, 送人又怕影响, 不得不半夜里起来拿出去扔掉。

(6c) 到了家里, 又是大鱼大肉, 吃不完, 用不尽, 有时候那几台冰箱冰柜**装不下**, 送人又怕影响, 不得不半夜里起来拿出去扔掉。

예문(6)에서 話者は 생선과 고기를 냉장고 안에 모두 넣을 의도였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다 넣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을 (6a)와 같이 고칠 경우, 수용 공간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넣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원래의 문장에서 불가능의 주된 원인이 일정한 공간에 정해진 수량을 다 수용하지 못함에 있기 때문에 (6b)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6c) 역시 다른 문장에 비해 수용 공간의 부족을 보다 부각시킨다는 점이 다른 뿐 원래의 문장과 대체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7) 国有企业与专业银行之间的债务问题, 是多年来实行旧体制积累下来的问题, 原因在于计划经济体制本身, 企业与银行都**承担不了**全部责任, 国家要有一个统一的解决办法。

(국유기업과 특수은행 간의 부채문제는 수 년 간 시행된 구체제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계획경제체제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기업과 은행이 그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으며, 국가가 통일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의 예문에서 술어 이행의 대상은 ‘국유기업과 특수은행 간의 부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정치와 경제, 규칙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체제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속하는 ‘기업과 은행’이 술어 이행 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a) 国有企业与专业银行之间的债务问题, 是多年来实行旧体制积累下来的问题, 原因在于计划经济体制本身, 企业与银行都**不能承担**全部责任, 国家要有一个统一的解决办法。

(7b) \*国有企业与专业银行之间的债务问题, 是多年来实行旧体制积累下来的问题, 原因在于计划经济体制本身, 企业与银行都**承担不完**全部责任, 国家要有一个统一的解决办法。

예문(7)에서 기업과 은행은 최소한 일부 책임은 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의 예문을 (7a)로 고쳐도 큰 무리가 없지만 ‘不能’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된다’와 같은 話者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으로 느껴져 원래의 문장에 비해 강한 어조로 전달될 여지가 있다. (7b)의 경우, ‘책임지다’는 지속 시간이 없거나 드러나지 않는 동사 즉, 동작 자체가 완성의 의미를 포함하는 동사이

기 때문에 동작의 지속이나 동일한 동작의 반복 출현이 마무리됨을 나타내는 ‘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上述한 예문은 모두 술어 이행이 완료·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원인을 술어 이행 주체보다는 술어로 처리해야 할 대상이나 술어 이행을 위해 제공된 환경 등 외적인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술어 이행 주체에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대상과 환경 등 외적인 요소로 인해 술어 이행을 하더라도 정해진 수량 혹은 정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이때의 ‘~不了(liǎo)’는 대체로 ‘다 ~ 할 수 없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객관적 조건에서 ‘了(liǎo)’가 완료·완성을 나타낼 경우, ‘了(liǎo)’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결과보어나 방향보어로는 동작을 완성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來’와 동작의 완료나 상태의 완성을 나타내는 ‘完’, 수용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下’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의 가능보어들은 대개 조건의 범위가 어느 한 요소에 한정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비교적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지며, 만약 조건에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장 성립에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了(liǎo)’가 포괄하는 여러 정보(수량, 정도, 종류, 규모 등) 중 일부 의미는 문장의 의미에 포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不了(liǎo)’구 자체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때 ‘~不了(liǎo)’의 형식에서 사용되는 ‘了(liǎo)’는 완료·완성의 의미는 물론 어떠한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객관적 환경에서 ‘~不了(liǎo)’구 자체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는 공간·거리·정도·선행조건의 존재·특정 상황의 발생 등 상황의 영향을 받는 경우, 대상의 특성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사회적·도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이나 타인 혹은 대중 등으로부터 인정·동의·허가를 얻지 못

하는 등 의식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상황의 영향

우선 공간의 제약이나 자연 환경, 특정 상황의 발생 등 술어 이행의 환경으로 제공되거나 술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상이 술어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과 맞지 않아 술어의 이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할 때와는 달리 ‘술어가 이행될 수 있는지’만을 판단하면 되는 문장들은 대체로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대체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며, 다른 가능보어 형식이나 부사어 등으로 대체할 만한 적절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다.

(8) 那箱子太小, **装不了**一个死人, 那么它装的一定是钱了。

(그 상자는 너무 작아서 죽은 사람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 돈일 것이다.)

예문(8)에서는 술어를 이행하기 위한 환경으로 ‘상자’가 등장한다. 하지만, 시신을 담는 행위를 하기에는 상자의 규격이 부적합하여 ‘装’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때 술어 이행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환경으로 제공된 상자의 크기가 술어를 이행하는 데 유일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a) 那箱子太小, **不能装**一个死人, 那么它装的一定是钱了。

(8b) 那箱子太小, **无法装**一个死人, 那么它装的一定是钱了。

(8c) 那箱子太小, **不够装**一个死人, 那么它装的一定是钱了。

(8d) 那箱子太小, **装不下**一个死人, 那么它装的一定是钱了。

(8a)의 경우, 행위가 이행될 수 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시신을 넣으면 안 된다’와 같은 話者の 주관이 개입된 문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불가능의 원

인이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이나 의지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不能’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보다는 (8b)의 ‘無法裝(답을 방법이 없다)’이나 (8c)의 ‘不够裝(답기에 부족하다)’으로 대체했을 때 원래 문장과 가까운 의미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수용할 공간이 있음을 나타내는 ‘下’를 보어로 삼아 (8d)와 같이 바꾸면 원래 문장에서 불가능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공간의 문제를 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대체하기에 적절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9) 妈妈, 这间屋子住不了三个人。

(엄마, 이 집에서 세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예문(9)에서 세 사람은 한 집에 함께 살 가족이나 지인일 것이므로, 세 사람을 하나의 술어 이행 주체로 보아야 하며, 세 사람을 수용할 만큼의 공간이 있는지가 행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話者が 말하는 ‘이 집’은 세 사람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住’라는 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a) 妈妈, 这间屋子不能住三个人。

(9b) 妈妈, 这间屋子住不下三个人。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문(9)만을 해석한다면, (9a)로 바꿀 경우, ‘住’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면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9b)의 경우, ‘下’는 가능 보어에 사용될 때 일정 수량을 수용할 공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며, 원래의 문장에서도 공간적 여유 외 다른 방해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10) 这笔迹太乱, 我对不了。

(이 필적이 너무 어지러워서 대조할 수 없다.)

예문(10)에서는 話者의 시력이나 지식 등 주관적 요인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대상의 상태 즉, 대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지러운 필적의 상태가 ‘대조’라는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10a) 这笔迹太乱, 我不能对。

(10b) 这笔迹太乱, 我对不上<sup>77)</sup>。

(10a)와 같이 바꾸어 써도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지만, 짜증이나 단호함 등 話者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래의 문장과 차이가 나며, (10b)는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어체 문장의 특성상 원래 문장에 비해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된다.

(11) 有个患急腹症的战士因没有床位住不了院。

(급성 복통을 앓는 한 병사는 빈 병상이 없어 입원을 할 수 없었다.)

(11a) 有个患急腹症的战士因没有床位不能住院。

예문(11)에서는 ‘입원’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물리적 공간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즉, ‘빈 병상’이라는 술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환경의 부재가 입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내에 병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상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1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대체하여도 금지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원문과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12) 他们已经把儿子养大了, 既然防不了老, 也只有认命。

(그들은 이미 아들도 다 키웠는데, 늙은 후에 효도를 해주지 않으니 운명

77) 上: ① 동사 뒤에 놓여 목적이 달성됨을 표시한다. ② 동사 뒤에 놓여 동작이 시작된 후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1098.)

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문(12)는 ‘養兒防老(아들을 키워 자신의 노년에 대비하다)’에서 변형된 문장이라 할 수 있는데, ‘防老’라는 행위는 아들이 해주어야 가능해지며, 아들이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노후 보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것도 팔자라고 여기는 話者의 푸념 섞인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a) 他们已经把儿子养大了, 既然**不能防老**, 也只有认命。

(12b) 他们已经把儿子养大了, 既然**无法防老**, 也只有认命。

만약 이 문장을 (12a)와 같이 바꾸게 되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게 전달이 되겠지만, 술어의 이행 불가능의 원인인 ‘아들이 해주지 않아서’라는 의미가 많이 약해진다는 차이점이 있고, (12b)와 같이 바꾸게 되면 ‘防老’가 아들이 효도를 하는 것과 관계있음이 드러나지 않아 聽者 입장에서는 불가능의 원인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라 할 수 있다.

(13) 如果在氧化环境下, 暴露在地表, 那很快就腐烂了, 化石也**保存不了**。

(만약 산화 환경에서 지표면에 노출된다면 부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화석 역시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예문(13)의 경우, ‘산화 환경에서 지표면에 노출되면 부패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이 화석을 보존할 수 없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화석의 재료가 될 생물체나 생물체의 사체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부패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석화 될 가능성이 낮아져 보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3a) 如果在氧化环境下, 暴露在地表, 那很快就腐烂了, 化石也**不能保存**。

(13b) \*如果在氧化环境下, 暴露在地表, 那很快就腐烂了, 化石也**保存不下去**。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문장이므로 (13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話者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아 중의적 해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로 대체하여 표현하더라도 원래 문장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화석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장애 요인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술어가 이행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13b)와 같이 다른 형식의 가능보어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의 이어지는 예문들은 선행조건의 발생이나 존재가 술어의 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의 예로, 이때의 선행 조건은 술어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조건이 먼저 발생하지 않으면 술어 이행 주체가 자체적 혹은 자발적으로 술어를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술어 이행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다.

(14) 这种危机感将创造出许多智慧, 而平时是**产生不了的**。

(이러한 위기감이 많은 지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러한 지혜를 짜내지 못한다.)

(14a) 这种危机感将创造出许多智慧, 而平时是**不能产生的**。

예문(14)의 경우, 위기감이 생겼을 때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원인이 ‘위기감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위기감의 존재가 술어 이행 주체에게 적극성이나 계기 등을 제공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대체로 술어 이행을 통해 변화 혹은 결과가 발생하는 동사라 할 수 있다. (14a)와 같이 ‘不能~’의 형태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평소에는 지혜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 有的孩子学数学并不困难, 但一等到有应用题出现, 他们就应付不了了。

(어떤 아이들은 수학교육을 어려워하지 않지만, 응용문제가 나오면 손을 쓰지 못하고 만다.)

예문(15)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로 등장하는 ‘어떤 아이들’이 정형화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응용문제의 출현’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對應’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a) 有的孩子学数学并不困难, 但一等到有应用题出现, 他们就**不能**应付了。

(15b) 有的孩子学数学并不困难, 但一等到有应用题出现, 他们就**应付不来了**。

아이들은 대체로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응용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원래 문장의 의미이다. (15a)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해 문장을 바꾸어도 원래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며, 문장 끝에 어기조사 ‘了(le)’가 중의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b)에서와 같이 능력이 있고 없음을 표시하는 방향보어 ‘來’를 이용해도 잘 어울리는 문장이 되겠지만, 술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쪽으로 기운다는 점이 원래의 문장과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6) 这种体制不转变, 增长方式也**转变**不了。

(이러한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성장방식 역시 바뀔 수 없다.)

(16a) 这种体制不转变, 增长方式也**不能**转变。

(16b) 这种体制不转变, 增长方式也**不会**转变。

예문(16)의 경우, 성장 방식이 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제의 변화가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성장 방식에 자체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없으며, 선행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만 술어가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 발생의 가능성 자체를 의미하므로 (16a), (16b)와 같이 조동사 ‘能’



이나 ‘會’를 사용하여 문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不能’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성장 방식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문장의 경우 대체할 만 한 기타 가능보어 형식은 찾을 수 없었다.

(17) 谢谢你们, 没有你们的帮助, 我们就**来**不了。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지 못했을 겁니다.)

(17a) 谢谢你们, 没有你们的帮助, 我们就**不能**来。

(17b) 谢谢你们, 没有你们的帮助, 我们就**不会**来。

예문(17)에서는 상대방의 도움이 우리가 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도움’이라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 ‘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술어 이행 주체의 자체적 능력 만으로는 술어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 조건이 존재해야 하므로 (17a)와 (17b)와 같이 조동사 ‘能’이나 ‘會’를 사용하여 바꿀 수 있다.

(18) 不打大仗**出**不了将军, 不搞大课题**出**不了人才!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는 장군이 나올 수 없고, 막중한 과업 없이는 인재를 나올 수 없다.)

(18a) 不打大仗**不能**出将军, 不搞大课题**不能**出人才!

(18b) 不打大仗**不会**出将军, 不搞大课题**不会**出人才!

예문(18)의 경우, 장군을 배출할 수 없는 원인을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재를 배출할 수 없는 원인을 ‘막중한 과업의 부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군과 인재를 배출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큰 전쟁과 과업이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군과 인재를 외부 요소의 자극이 있어야만 탄생할 수 있으며,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18a)와 (18b)와 같이 조동사 ‘能’이나 ‘會’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

(19) 大系统若不革命化, 小系统根本就没办法, 连改良都改良不了。

(큰 체계가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작은 체계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으며 개선조차 불가능하다.)

예문(19)에서 작은 체계는 스스로 개선될 수 없으며 큰 체계가 먼저 변화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어 이행 주체는 출현하지 않은 채 작은 체계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동 주어로 사용된 문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a) 大系统若不革命化, 小系统根本就没办法, 连改良都不能改良。

(19b) \*大系统若不革命化, 小系统根本就没办法, 连改良都改良不成<sup>78)</sup>。

(19c) \*大系统若不革命化, 小系统根本就没办法, 连改良都改良不足。

조동사 ‘能’을 이용하여 (19a)로 고쳐도 문장의 의미에 큰 차이는 없으나 話者의 주관이 개입되어 원래의 문장에 비해 강한 어기로 전달될 소지가 있다. (19b)와 같이 동작의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내는 ‘成’을 사용하여 고친다면, 원래 문장에서 나타내는 ‘개선을 시작할 수조차 없다’는 의미와 모순이 생겨 잘못된 문장이 된다. ‘足’을 사용하여 (19c)와 같이 고치게 되면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개선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의미상의 모순이 생기며, ‘~不足’ 자체가 가능보어의 형식으로는 ‘連~ 都~’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고 본다.

(20) 如果没有多元化战略, 海尔就成不了中国家电第一品牌。

(다원화 전략이 없다면, 海爾은 중국 제일의 가전 브랜드가 될 수 없다.)

(20a) 如果没有多元化战略, 海尔就不能成中国家电第一品牌。

예문(20)에서 술어 이행 주체는 ‘海爾’이고, 중국 제일의 가전 브랜드가 되는 것이 술어 이행을 통해 이루어야 할 변화이며, ‘다원화 전략’이라는 선행조건이 우선 마련되어야 술어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조동사

78) 成: 완성이나 실현을 나타낸다.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商務印書館, 2007, pp.329-330)

‘能’을 사용하여 (20a)와 같이 고칠 수도 있지만, ‘成’보다는 ‘成爲’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조동사 ‘能’을 이용해 바꾼 문장은 원래의 문장보다 話者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장을 대체할 만한 기타 가능보어의 형식은 찾을 수 없었다.

上述한 예문들은 반드시 선행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술어가 이행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예들로, 술어의 이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보통 전후 절 술어에 모두 부정형을 사용하여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sup>79)</sup>’의 문장 형태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은 객관적 조건 중 여러 상황에 의해 술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의 예로, 불가능의 주된 원인이 술어 이행 주체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不能~’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술어의 특성에 따라 술어가 변형되어야만 ‘不能~’의 형식에 적합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不了(liǎo)’를 사용한 문장에 비해 話者의 주관이 개입되어 다소 강한 어기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단순 서술의 문장에서는 ‘~不了(liǎo)’ 형식을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 (나) 대상의 특성

다음은 술어 이행 주체가 처리해야 할 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술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의 예이다.

(21) 灯光究竟**夺不了**那边的月色; 灯光是浑的, 月色是清的。

(조명이 저 달빛을 가릴 수는 없다. 조명은 혼탁하지만, 달빛은 맑기 때문이다.)

예문(21)에서 술어 이행 주체로 등장하는 ‘灯光’이 ‘奪’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79) 예: 不~/沒有~, ~不了(liǎo)

는 그 보다 어두운 대상이 등장해야 하지만, 술어 이행 대상으로 등장한 달빛은 ‘천연의 빛’을 가진 존재로, 어떠한 조명도 달빛을 압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술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1a) \*灯光究竟**不能夺**那边的月色; 灯光是浑的, 月色是清的。

(21b) 灯光究竟**不能夺去**那边的月色; 灯光是浑的, 月色是清的。

(21c) 灯光究竟**不能夺走**那边的月色; 灯光是浑的, 月色是清的。

예문(21a)의 경우에도 조동사 ‘不能’을 이용하여 원래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동사 ‘奪’가 단독으로 중심 술어가 되어 문장을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원인은 동사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데, ‘奪(잃게 하다, 박탈하다)’와 같이 술어 대상의 이동과 변화가 발생해야 하는 동사의 경우, 조동사 ‘不能’과 함께 사용될 경우 ‘빼앗아서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가 부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無法’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동사 자체만으로 술어구 완성이 어려워 (21b)와 (21c)의 경우처럼 뒤에 방향보어나 결과보어가 수반되어야 문장이 완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문장 대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한다.

(22) 在这个边界上, 太阳风和恒星风它们的密度相当, 谁也**影响不了**谁。

(이 경계면에서는 태양풍과 항성풍의 밀도가 비슷하여 어느 쪽도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예문(22)에서 술어 이행 주체는 ‘태양풍과 항성풍’이고, 어느 한 쪽이라도 상대방보다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影響’이라는 행위가 발생한다. 그러나 태양풍과 항성풍은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兩者 모두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2a) 在这个边界上, 太阳风和恒星风它们的密度相当, 谁也不能影响谁。

(22b) 在这个边界上, 太阳风和恒星风它们的密度相当, 谁也影响不到谁。

(22a)에서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이용하여 대체가 가능하지만 밀도가 비슷하다는 과학적 사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谁也’에 의해 ‘금지’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다른 가능보어 형식으로 이 문장을 바꾼다면 (22b)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到’를 사용하게 되면 불가능의 이유가 거리 때문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래 문장의 의미 그대로를 표현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23) 各个群体的需要是很不相同的, 而商务规章又太复杂, 一个应用程序处理不了。

(각 집단마다 요구 사항이 매우 다르고, 비즈니스 규칙 또한 너무나 복잡하여 응용 프로그램 하나로는 처리할 수 없다.)

예문(23)에서 술어 이행 주체인 ‘一个应用程序’가 술어 이행을 통해 처리해야 할 대상은 ‘집단마다 다른 요구 사항과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이라 볼 수 있다. 대상을 설명하는 ‘不相同’과 ‘複雑’ 앞에는 각각 ‘很’과 ‘太’라는 정도부사가 놓여 처리하기 어려운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의 특성 때문에 술어 이행 주체로서는 ‘처리’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예문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a) 群体的需要是很不相同的, 而商务规章又太复杂, 一个应用程序不能处理。

(23b) 群体的需要是很不相同的, 而商务规章又太复杂, 一个应用程序处理不来。

(23c) 群体的需要是很不相同的, 而商务规章又太复杂, 一个应用程序处理不好。

위의 예문은 (23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대체할 수 있지만, ‘처리하면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술어 이행의 불가능으로 이해하더라도 話者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23b)

는 원래의 문장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으나 ‘~不來’의 경우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을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不了(liǎo)’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불가능의 주된 요인이 술어 이행 주체의 주관적 조건 쪽으로 기운다는 차이점이 있다. (23c)의 경우,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지만 ‘好’라는 결과보여는 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원래 문장과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24) 这是各门技术中流动最快的一个专业, 其人员流动量之大, 连他们也**掌握不了**详情。

(이 분야는 여러 기술 중 유동이 가장 빠른 전문분야이다. 많은 인적 자원의 유동량으로 인해 그들조차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이다.)

예문(24)의 경우, 술어가 처리해야 할 대상은 ‘인적 자원의 유동량’이고, 술어 이행 주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他們)’이며, ‘관련 전문가조차 자세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는 설명을 통해 대상의 특성 때문에 술어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여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4a) 这是各门技术中流动最快的一个专业, 其人员流动量之大, 连他们也不能**掌握**详情。

(24b) 这是各门技术中流动最快的一个专业, 其人员流动量之大, 连他们也**掌握不够**详情。

조동사 ‘能’을 사용한 (24a)는 ‘그들조차도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면 안 된다’와 같은 술어 이행 주체의 주관적 개입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술에 해당하는 원래 예문과는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4b)의 경우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세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어도 일부는 파악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자세한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원문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25) 单用经济学理论**解释不了**许多社会问题, 整个社会对社会学知识的需求量前所未有地激增。

(경제학이론만을 가지고 많은 사회문제를 전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학 지식에 대한 수요가 전에 없이 급증하고 있다.)

예문(25)에서 술어가 처리해야할 대상은 ‘많은 사회 문제’이고, 술어 이행 주체는 ‘경제학이론’임을 알 수 있는데,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종류 등 술어 이행 대상이 가진 특성으로 인해 술어 이행 주체만으로는 ‘解释’이라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5a) \*单用经济学理论**不能解释**许多社会问题, 整个社会对社会学知识的需求量前所未有地激增。

(25b) 单用经济学理论**解释不好**许多社会问题, 整个社会对社会学知识的需求量前所未有地激增。

(25a)의 형식은 ‘경제학 이론만을 가지고 많은 사회 문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내용상 맞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목적어에 ‘許多’라는 분명하지 않은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체 부정을 나타내는 ‘不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도 ‘不了(liǎo)’를 사용한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래 문장에서는 경제학 이론을 제외한 기타 이론의 필요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25b)와 같이 고치게 되면 경제학 이론만으로 해석 자체는 완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원래 문장의 의미와는 차이가 생긴다.

(26) 以我们现有的经验也**应付不了**千变万化的市场波动。

(우리가 가진 기존의 경험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의 동요에 다 대처할 수 없다.)

위의 예문에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이라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술어 이행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이를 처리해야 할 술어 이행 주체로 ‘우리가 가진 기존의 경험’이 등장한다. 시장이 변하는 속도와 정도는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이 더해져 발생·변화·발전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경험을 통해 처리 가능한 범위와 정도를 크게 넘어섰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상의 특성 때문에 ‘應付’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6a) 以我们现有的经验也**不能**应付千变万化的市场波动。

(26b) 以我们现有的经验也**应付不来**千变万化的市场波动。

예문(26)은 상황에 대한 단순 서술의 문장이지만,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26a)와 같이 고치게 되면, ‘대처하면 안 된다’와 같이 話者의 주관에 개입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26b)의 ‘不來’로 고친 문장은 원래 예문과 가까운 의미라 볼 수 있는데, 원래 예문에서 환경이 불가능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26b)의 경우에는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27) 任何历史变革和体制转换时期都**避免不了**“新”、“旧”两代的精神和文化冲突。

(모든 역사적 변혁과 체제 전환 시기에는 신구 세대 간의 정신적·문화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

(27a) 任何历史变革和体制转换时期都**不能**避免“新”、“旧”两代的精神和文化冲突。

예문(27)에서 술어 이행 주체는 ‘역사적 변혁과 체제 전환 시기에 처한 사회, 사람, 분위기, 정권 등’이라 할 수 있고, ‘신구 세대 간의 정신적·문화적 충돌’이 술어 이행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사례 등이 근거가 되어 그와 같은 상황에 항상 나타나는 특징으로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避免’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바꾸어도 원래 문장과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다른 가능보어 형식을 찾아 표현하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에서 보어로 사용되는 동사나 형용사는 대부분 의미가 동작의 결과나 상태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술어가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하는 문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다) 의식의 작용

아래의 예문들은 의식과 관련된 조건 중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이나 문화, 관습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행위나 상황 자체가 발생될 수 없게 하는 경우의 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話者 個人의 의식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일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話者의 自由意思가 보편적 인식이나 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28) 邪恶永远**战胜不了**正义。

(사악함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

(28a) 邪恶永远**不能战胜**正义。

예문(28)은 과학적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보다는 정의를 옳다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반영(邪惡<正義)됨으로써 ‘사악함’은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나 확신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28a)에서는 조동사 ‘不能’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지’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부사어 ‘永遠’이 술어를 강조하여 중의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문장 내용의 특성상 조동사를 이용한 문장이 주관적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話者의 입장이나 태도를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9) 世界上没有什么困难是**克服不了的**。

(세상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29a) 世界上没有什么困难是**不能克服的**。

예문(29)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노력으로 극복하는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보편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문장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29a)와 같이 바꾸게 되면 話者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되어 보다 더 확고한 표현으로 느끼게 된다.

(30) 婚姻大事老天爷早就安排好了, 是你的怎么也**跑**不了, 不是你的追也追不来。

(혼인대사는 조물주가 이미 정해 놓은 것이어서 당신의 짝이라면 달아날 수 없고, 당신의 짝이 아니라면 쫓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예문(30)에서는 ‘달아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인연이 있다고 믿는 문화적 정서가 반영되는 사회에서 운명을 믿는 사람들인 경우, 누구나 자신만의 운명과 대면하게 되며, 만약 정해진 운명이라면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a) \*婚姻大事老天爷早就安排好了, 是你的怎么也**不能跑**, 不是你的追也追不来。

(30b) 婚姻大事老天爷早就安排好了, 是你的怎么也**跑不掉**<sup>80)</sup>, 不是你的追也追不来。

(30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고치게 되면 ‘달아나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不能’ 대신에 ‘無法’를 사용할 경우에도 단음절 동사 ‘跑’만을 술어로 사용하게 되면 문장의 내용과 맞지 않는 표현이 된다. 예문(30)에서 ‘跑’는 달아난 결과, 자취가 사라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30a)는 달아나는 동작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 결과보어 ‘走’나 ‘掉’ 등을 동반해야 하는데, ‘無法跑走’나 ‘無法跑掉’를 사용할 경우에는

80) 掉: ① 타동사 뒤에 놓여 ‘제거하다, 없애 버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자동사 뒤에 놓여 ‘떠나다, 벗어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p.279-280.)

탈출을 막는 강제적인 무엇인가가 작용하는 느낌을 받게 되며, 본고에서 정한 문장 대체의 기준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 부적합한 문장이라 본다. 이 문장의 경우 (30b)와 같이 대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진 ‘掉’를 사용하면 원래의 문장과 가까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31) 人**摆脱**不了生老病死这些苦的煎熬。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문(31)에서 대상으로 등장한 ‘생로병사의 고통’은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1a) 人**不能**摆脱生老病死这些苦的煎熬。

(31b) 人**摆脱**不**掉**生老病死这些苦的煎熬。

(31a)와 (31b) 모두 원래의 문장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생로병사인 경우 누군가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도 ‘금지’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31b)에서 사용한 ‘~不掉’는 ‘대상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적절한 대체 표현이라 본다.

上述한 예문들에서는 믿음·확신·관습·문화적 정서 등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는 보편적 인식이 술어의 이행이나 사건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술어의 이행 가능성만을 표시하고, 문장의 내용에 주관적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동사 ‘不能’을 사용해 대체하더라도 내용 전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음은 의식과 관련된 요소 중 타인이나 단체 등 외부의 동의나 허가를 받거나 인정상 허용되어야만 술어 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이다.

(32) 偏偏到他家装电话这天, 他和妻子都**请不了假**。

(하필 그의 집에 전화를 설치하러 오기로 한 날, 그와 아내는 모두 휴가를 받을 수 없었다.)

예문(32)에서 술어 이행 주체인 ‘그와 아내’가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원인을 상사 혹은 사측의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32a) 偏偏到他家装电话这天, 他和妻子都**不能请假**。

(32b) 偏偏到他家装电话这天, 他和妻子都**请不下来假**。

원래의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술어 이행 주체는 휴가를 희망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단순한 사건의 서술이다. (32a)와 같이 고치더라도 離合詞인 ‘請假’를 통해 완전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지만, 話者의 불만이 포함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b)의 경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함’을 나타내는 방향동사 ‘下來’를 통해 상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수 있어 불가능의 원인을 더욱 잘 들어낼 수 있는 문장이라 본다.

(33) 那猫是女儿东梅的朋友送给东梅的, 东梅学业很紧, 根本**照顾不了**。

(저 고양이는 내 딸 東梅의 친구가 東梅에게 선물을 한 건데, 東梅가 학업으로 바빠서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다.)

예문(33)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인 ‘東梅’가 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원인을 ‘학업으로 바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술어 이행 주체는 학생으로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학업이기 때문에 학업을 뒤로 하고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인정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고쳐볼 수 있다.

(33a) 那猫是女儿东梅的朋友送给东梅的, 东梅学业很紧, 根本**不能照顾**。

(33b) 那猫是女儿东梅的朋友送给东梅的, 东梅学业很紧, 根本**照顾不来**。

(33a)의 경우, 의미 자체는 원래 문장과 큰 차이가 없지만, 학교 혹은 딸 등 특정 대상에 대한 話者의 불만 섞인 어기가 포함될 수 있으며, (33b)의 경우 내용 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가능의 원인이 외적 요인보다는 ‘東梅’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치우친다는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예문들은 타인이나 기관·사회·집단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자격이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34) 请你们带回北京去吧。我说, 这件事现在**决定不了**, 要请示领导。

(당신들은 이것을 가지고 베이징으로 돌아가세요. 이 일은 당장 결정할 수 없고, 상관께 지시를 청해야 합니다.)

예문(34)는 술어 이행 주체인 話者가 결정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원인을 결정권을 갖지 못한 술어 이행 주체의 자격, 즉 낮은 직급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4a) 请你们带回北京去吧。我说, 这件事现在**不能决定**, 要请示领导。

(34b) 请你们带回北京去吧。我说, 这件事现在**决定不下来**<sup>81)</sup>, 要请示领导。

(34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사용한 경우, 술어 이행의 불가능과 함께 ‘금지’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문장의 내용상 ‘금지’의 의미가 적용되어 ‘당장 결정

81) 下來: ① 동사 뒤에 쓰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향함을 나타냄. ② 동사 뒤에 쓰여, 동작의 완성이나 결과를 나타냄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p.1356.)

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때문에 중의적 해석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 (34b)와 같이 ‘下來’를 사용하여 바꿀 수도 있지만, 이때의 ‘下來’는 동작을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決定不了’에 비해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주동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상사이고, 話者는 상사의 결정에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話者가 직접 주동적으로 완성을 이룬 느낌의 ‘下來’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35) 海明威才21岁, 很想当作家, 但苦于入不了文坛的门。

(헤밍웨이의 나이가 21살에 불과해서,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컸으나 문단에 등단할 수 없어 괴로워했다.)

(35a) 海明威才21岁, 很想当作家, 但苦于不能入文坛的门。

예문(35)의 경우, 입문 조건에 맞지 않는 나이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대체하면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방해 요소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차이가 있으며, 동사 ‘入’만 사용하는 것보다 ‘踏入’로 바꾸어 넣는 것이 더 좋다. 이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보어 형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어체의 특성에 어울리는 원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6) 任何别的力量都取代不了中国共产党的领导地位。

(다른 어떠한 세력도 중국공산당이 가진 지도자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다.)

(36a) 任何别的力量都不能取代中国共产党的领导地位。

(36b) 任何别的力量都取代不得中国共产党的领导地位。

(36c) 中国共产党的领导地位, 任何别的力量都取代不得。

예문(36)은 話者의 주관이 강하게 드러나는 문장으로 ‘중국공산당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자격이 있으며, 다른 어떠한 세력도 그 위치를 대신 차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話者의 주장이 드러나는 만큼 (36a)와 같이 조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해도 잘 어울리는 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 話者의 주관에 포함된 내용의 특성상 조동사를 이용한 표현이 더 어울리는 문장이라 할 수도 있다. (36b)와 같이 ‘~得/不得’를 이용해 고칠 경우, 문장 성립 자체는 문제가 없겠으나 (36c)와 같이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옮기고, ‘~得/不得’를 문장의 끝으로 오게 하는 도치문의 형식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상은 특정 집단이나 타인에게서 얻은 동의나 허가, 자격 등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장들이며, 대체로 술어 이행 주체는 실현하고자 하지만, 상대방, 혹은 소속 집단 등의 동의나 허가를 얻지 못하여 술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라 볼 수 있다. 대체로 술어 이행에 당위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문장들이므로 ‘~不能’ 형식으로 대체하여 ‘금지’의 의미로 해석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 다. 술어의 부분적 이행 · 실현

‘술어의 부분적 이행 · 실현’이란 ‘了(liǎo)’가 완료나 완성을 의미하지도 않고, 술어는 이행되거나 이행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 환경은 앞서 소개한 ‘Ⅲ-나-(가), (나), (다)’의 조건에 두루 적용된다 할 수 있지만, 술어는 발생되어 어느 정도 이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객관적 조건에서 ‘了(liǎo)’가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 수 있다.

(37) 要是你找得到旧衣服, 还是穿上的好, 象眼前这样的衣服, 在这儿是穿不了多久的。

(만약 헌 옷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입는 것이 좋겠다. 지금 보이는 이런 옷은 여기에서는 얼마 입지 못 한다.)

(37a) 要是你找得到旧衣服, 还是穿上的好, 象眼前这样的衣服, 在这儿是不能穿多久的。

예문(37)의 경우, 눈앞에 있는 옷이 특정한 환경에 입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술어 이행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술어인 입을 동작 자체는 가능하지만, 입은 후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뒤에 놓인 분명하지 않은 수량성분이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37a)와 같이 바꿔도 무방하다. ‘헛 옷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입으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일이 고되거나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 전후 설명이 없다면, 기후나 목적 외에 관습이나 자격 등 다양한 상황의 제약도 불가능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38) 现在许多电子产品功能多得惊人, 有的功能一年也用不了一两次。

(현재 많은 전자제품의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많아서 일부 기능은 일년에 한두 번 쓸까말까 한다.)

예문(38)에서는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는 술어 이행 대상의 특성을 불가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사용하는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 횟수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문장으로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대체해 볼 수 있다.

(38a) 现在许多电子产品功能多得惊人, 有的功能一年也不能用一两次。

(38b) 现在许多电子产品功能多得惊人, 有的功能一年也用不上一两次。

예문(38)은 술어 이행 주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의 종류나 사용 빈도에 비해 대상의 기능이 과도하게 많아서 일부 기능은 사용 횟수가 아주 적다는 사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지만, 만약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38a)와 같이 문장을 대체하면 話者의 어조에 확신이 더해져 일반적인 서술에 해당하는 원래 문장에 비해 주관성이 개입된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38b)에 사용된 결과보어 ‘上’은 쓰이게 되는 것 즉, 동작이 실현됨을 나타내는데, 뒤에 어림수를 나타내는 수량성분을 수반하여 한두 번도 채 쓰이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어 원래의 문장처럼 동작 자체는 실시되지만 그 정도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본다.

(39) 几间出租屋子, 也因地处僻郊, 总也租不了好价。

(세를 놓는 몇 집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상 좋은 가격에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

예문(39)는 ‘ 좋지 않은 위치(因地處僻郊)’가 원인이 되어 임대 행위를 해도 임대료는 많이 받을 수 없음을 나타낸 문장이다. 이 문장을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9a) \*几间出租屋子, 也因地处僻郊, 总也不能租好价。

(39b) 几间出租屋子, 也因地处僻郊, 总也租不上好价。

예문(39)에서는 임대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대 행위를 통해 나오는 결과는 話者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만약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려면 동사만을 단독으로 놓을 수 없고, 동사의 뒤에 결과보어를 놓아 ‘租到’로 고치거나, 뒤에 오는 목적어의 형식을 ‘不能租個好價錢’과 같이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정한 문장 대체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과보어 ‘上’을 이용해 가능보어의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바꾼 (39b)의 경우 희망하던 일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원래 문장과 가까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40) 政治舞台地位有限, 容不了许多人, 等于走入窄路一般。

(정치 무대의 자리는 제한적이어서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예문(40)의 경우, 정치무대라는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치무대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정치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미인데, 이 문장을 대체하여 표현한 문장은 아래와 같다.

(40a) \*政治舞台地位有限, **不能容**许多人, 等于走入窄路一般。

(40b) 政治舞台地位有限, **容不下**许多人, 等于走入窄路一般。

예문(40)을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바꾸게 되면, 동사 자체를 ‘容納’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편이 더 좋지만, ‘容納’을 동사로 사용하더라도 ‘不能’이라는 동작 전체를 부정하는 표현과 ‘許多’라는 분명하지 않은 수량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가능보어의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고칠 경우, (40b)와 같이 공간 수용을 나타내는 ‘下’를 사용하여 원래 문장과 가까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41) 现在成年人每周可以休息两天, 可是孩子却连一天也**休息不了**, 现在最忙最累的是孩子。

(현재 성인은 일주일에 이틀을 쉴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하루도 쉴 수 없다. 지금 제일 바쁘고 피곤한 사람은 아이들이다.)

예문(41)은 타의에 의해 정해져 있는 아이들의 생활양식이 아이들의 휴식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휴식이라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1a) 现在成年人每周可以休息两天, 可是孩子却连一天也**不能休息**, 现在最忙最累的是孩子。

(41b) \*现在成年人每周可以休息两天, 可是孩子却连一天也**休息不到**, 现在最忙最累的是孩子。

예문(41)이 아이들이 쉬는 행위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아 하루도 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단순히 서술하는 문장이라면, (41a)와 같이 조

동사 ‘不能’을 사용한 문장은 문장 성립에도 문제가 없고 원래 문장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루도 쉬면 안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중의적 해석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래의 문장에서는 휴식 시간의 길이를 ‘一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술어구 앞에 부사어로 놓여있기 때문에 (41b)와 같이 고칠 수 없으며, 만약 어법에 맞게 고쳐 ‘休息不到一天’으로 표현하게 되면 본고에서 정한 문장 대체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42) 不少消费者反映, 新鞋**穿不了**几天, 有的鞋面裂缝, 有的鞋底与鞋帮脱胶, 甚至断裂。

(적지 않은 소비자 반응에 따르면, 새 신발을 며칠 신지도 않았는데 어떤 것은 구두코가 갈라지고, 어떤 것은 바닥과 신발 옆 부분이 벌어지고 심지어 찢어지는 것도 있다고 한다.)

예문(42)는 새 신발을 신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신을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원인을 신발 품질이 좋지 않다는 외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2a) \*不少消费者反映, 新鞋**不能穿**几天, 有的鞋面裂缝, 有的鞋底与鞋帮脱胶, 甚至断裂。

(42b) 不少消费者反映, 新鞋**没穿**几天, 有的鞋面裂缝, 有的鞋底与鞋帮脱胶, 甚至断裂。

예문(42)는 주관적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문장으로 발생한 어떤 일에 대해 서술하는 문장이다. 그런데 조동사 ‘能’은 대체로 話者の 주동적인 의지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문장에서 주로 사용된다 할 수 있다. 가령 통상적으로 ‘不能’이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話者の 주관이 뚜렷이 드러나는 문장에 사용되거나 話者が 능력을 과시하는 문장에 사용이 되는 경우, 話者の 의지로 행해지는 동작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등장할 때 사용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sup>82)</sup> 하

82) 話者の 능력을 과시하는 문장의 예: 我能说五种外语。(나는 5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지만 예문(42)에서 사용된 동사 ‘穿’은 신을 당시에 잠깐 話者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가 신는 동작이 완료되고 나면 話者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은 상태만이 지속되는 동사이다. 신발을 며칠 신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話者가 신고 다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므로 話者의 주관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본다. 즉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된 것은 자동적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能’을 사용하면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42a)는 잘못된 문장이라 하겠다. 예문(42)를 대체할 만한 다른 가능보어 혹은 조동사 문장은 찾을 수 없었으며, (42b)와 같이 부정부사 ‘沒’을 사용하여 ‘~에 미치지 못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3) 没有光我们**走不了**多远。

(빛이 없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한다.)

예문(43)은 빛이 없는 환경에서 가는 행위 즉, 이동은 할 수 있지만, 매우 짧은 거리밖에는 갈 수 없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며,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3a) 没有光我们**不能走**多远。

(43b) \*没有光我们**走不开**多远。

(43c) \*没有光我们**走不出**多远。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43a)와 같이 바꿀 수는 있으나 어색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수량성분과의 의미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수량성분이 분명한 시간이나 거리 등<sup>83)</sup>을 나타낸다면 정해진 시간이나 거리만큼 술어를 이행할 수

---

동작에 방해되는 요소가 등장하는 문장의 예: 現在許多電子產品功能多得驚人, 有的功能一年也不能用一兩次。(현재 많은 전자제품의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많아서 일부 기능은 일 년에 한두 번 쓸까말까 한다.)  
 83) ‘1시간, 1Km’ 등과 같이 확실한 시간 혹은 거리이거나 ‘很長, 太多’ 등과 같이 정확한 수치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많다, 적다’와 같은 정도가 표시된 경우, ‘這麼長, 那麼重’과 같이 話者와 聽者 사이에는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표현의 경우는 ‘不能’과 함께 사용해도 어색함이 없다.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多長, 多遠’과 같은 의문 대체사가 이어질 때는 ‘얼마 ~지 못하다’와 같은 부분 부정의 문장을 표현하게 되어 술어 전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不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43b)나 (43c)와 같이 고치게 될 경우, ‘開’나 ‘出’는 떠난 후의 결과나 상태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므로 뒤에 수량성분을 수반하여 표현하는 문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上述한 예문들은 모두 ‘了(liǎo)’가 완료나 완성의 의미를 갖지 않으며, 술어 이행은 할 수 있지만, 앞이나 뒤에 대부분 부대 성분을 수반하여 환경적 요인이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술어 이행이 가능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不了(liǎo)’구의 뒤에 분명하지 않은 수량성분이 수반되어 술어 이행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간혹 수량성분이 부사어로 출현하기도 한다. 이때의 수량 성분은 다른 조건에서와 달리 話者나 聽者 사이에서도 인지되지 않은 막연한 수량일 때가 많다. 의식의 작용이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 기타 가능보어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동작 행위의 실현이나 공간적 수용의 가능 여부 정도를 들 수 있다.

## 2. 주관적 조건의 작용

주관적 조건이란, 키, 체중, 나이, 건강 상태 등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조건을 비롯하여 능력이나 한계, 사상, 성격, 성향 등을 가리키며, 행위나 상태를 완료 혹은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술어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술어 이행에 제공되는 환경이나 대상보다는 술어 이행 주체에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객관적 조건에서와 같이 주관적 조건에서도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주관적 조건에서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란, 대개 술어 이행 주체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나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동작이 완료로 이어지거나 모종의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때의 ‘了(liǎo)’는 사용 환경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조건에서와 비슷한 성질을 보인다.

우선 술어 이행 주체에게 부상, 사고, 질병 등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슬픔, 고통, 외로움, 실망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술어 이행 주체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술어 이행이 未完了·未完成에 이르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44) 他身体欠佳, 恐怕忍受不了长达18个月之久的审查之苦。

(그는 몸이 좋지 않아 18개월에 달하는 심사기간 동안의 고생을 참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위의 예문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인 ‘他’가 18개월이라는 예정된 기간을 참아내는 것을 술어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술어 이행 주체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18개월을 다 채울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4a) 他身体欠佳, 恐怕不能忍受长达18个月之久的审查之苦。

(44b) \*他身体欠佳, 恐怕忍受不完长达18个月之久的审查之苦。

(44a)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할 경우, ‘금지’의 의미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부사 ‘恐怕’로 인하여 중의적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과 대체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문장에서 술어 이행 주체가 참아내야 하는 대상을 시간과 정도, 과정 등 포괄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하여 (44b)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만 참아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실제 술어 이행 주체가 인내해야 하는 ‘고생’에 대한 부담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하기에 부적절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45) 下肢浮肿, 血压一度达180/120, 几乎是一步一喘, 上楼爬不了一层就感到困难。

(다리가 붓고, 혈압이 한 때 180/120까지 올라 거의 걸음을 땔 때마다 숨이 찰 지경이 되어, 한 층도 채 올라가지 못하고 힘들다고 느꼈다.)

위의 예문에서 술어 이행 주체는 자신의 최저 기준이 1층을 오르는 행위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고는 술어 이행의 未完成으로 보고, 그 원인을 ‘술어 이행 주체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로 보았다.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45a) \*下肢浮肿, 血压一度达180/120, 几乎是一步一喘, 上楼不能爬一层就感到困难。

(45b) 下肢浮肿, 血压一度达180/120, 几乎是一步一喘, 上楼爬不完一层就感到困难。

(45c) 下肢浮肿, 血压一度达180/120, 几乎是一步一喘, 上楼爬不到一层就感到困难。

(45d) 下肢浮肿, 血压一度达180/120, 几乎是一步一喘, 上楼没爬一层就感到困难。

조동사 能은 행위자의 주동성이 드러나는 문장에 주로 사용되는데, 문장에서 이미 술어 이행 주체의 심각한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45a)와 같이 바꾸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지므로 조동사 ‘能’을 이용하여 대체할 수 없다. 원래 문장이 일정 정도(1층)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므로 가능보어를 사용한 (45b)와 (45c)는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5b)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1층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 좋은 문장이라 할 수 없다. 부정부사 ‘没’만을 이용

해 ‘~에 이르지 못하다, 부족하다’의 의미를 나타낸 (45d)의 경우에도 원래 문장의 의미와 가까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6) 当他准备迎接高考的关键时刻, 严重的病魔向他袭来, 当地医生诊断是血液病, 最多活不了一个月!

(그가 대입 시험을 준비하던 중요한 시기에 심각한 병마가 그를 덮쳤다. 현지의 의사는 혈액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길어봐야 한 달을 채 살지 못할 거라고 하였다.)

예문(46)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가 ‘活’이라는 행위를 한 달도 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술어 이행 주체가 알고 있는 병 즉, 주관적 조건에 의한 것으로 의사에 의해 예견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조차 ‘活’이라는 행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6a) \*当他准备迎接高考的关键时刻, 严重的病魔向他袭来, 当地医生诊断是血液病, 最多不能活一个月!

(46b) \*当他准备迎接高考的关键时刻, 严重的病魔向他袭来, 当地医生诊断是血液病, 最多活不完一个月!

(46c) \*当他准备迎接高考的关键时刻, 严重的病魔向他袭来, 当地医生诊断是血液病, 最多活不到一个月!

예문(46)을 대체한 문장들은 ‘活不了’의 앞에 위치한 부사어 ‘最多’로 인해 (46a), (46b), (46c) 모두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46a)와 (46c)의 ‘最多’ 뒤에 부사 ‘也’가 첨가되거나 ‘最多’를 뺀다면, 문장 성립 자체에 발생한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본고에서 정한 문장 대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모두 대체할 수 없는 문장으로 본다. 그리고 (46b)와 같이 ‘完’을 사용하게 되면, 마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로 지정해 놓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점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7) 孙茂芳吃饭时总唉声叹气, 吃不了两口就放下筷子。

(孙茂芳은 식사할 때 계속 탄식을 하며 두어 술도 채 먹지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예문(47)의 경우, 식사 도중 연이어 탄식한다는 표현을 통해 ‘술어 이행 주체에 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주관적 조건이 밥을 먹기는 하지만 ‘식사를 제대로 끝낼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의 경우 조동사 ‘不能’이나 가능보어의 형식으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조건과 달리 술어 이행 주체의 주동성이 행동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객관적 조건에서는 환경이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주관적 조건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의 감정 표현이나 능력, 성향 등이 술어의 이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7a) \*孙茂芳吃饭时总唉声叹气, 不能吃两口就放下筷子。

(47b) \*孙茂芳吃饭时总唉声叹气, 吃不完两口就放下筷子。

(47c) 孙茂芳吃饭时总唉声叹气, 没吃两口就放下筷子。

위의 문장을 (47a)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바꾸게 되면 단순 서술보다는 話者의 주관에 개입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문장에 드러나는 불가능의 원인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잘못된 문장으로 본다. (47b)와 같이 ‘完’을 사용하여 고치면 마치 두어 술을 먹기로 정해 놓았던 것 같이 느껴져 일반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식사 시 한 사람의 식사량은 한 그릇으로 본다. 때문에 어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므로 잘못된 문장으로 보았다. 술어 이행 주체의 의지로 동작을 멈춤을 나타내는 (47c)의 경우 ‘두어 술도 채 먹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대체 문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술어 이행 주체의 주동성이 행동에 반영되는 문장의 특성과 부정의 방식이 부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8) 手术之后, 医生叫我进去, 告诉我说, 她撑不下去了, 她的**心脏负荷不了这么多**。

(수술 후 의사는 나를 불러 그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그녀의 심장은 이 정도의 부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예문(48)에서 술어 이행 주체는 그녀이지만, 사실 ‘負荷’라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은 ‘그녀의 심장’이라고 본다. 수술을 받은 후에도 그녀의 심장은 ‘이렇게 많은’ 부담을 견딜 수 없는데, 여기서 ‘這麼多’는 대화를 나누는 話者와 聽者 사이에 이미 인지되어 있는 정도라 할 수 있으며, 그녀의 심장은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의 부담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므로 술어 이행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고쳐볼 수 있다.

(48a) 手术之后, 医生叫我进去, 告诉我说, 她撑不下去了, 她的**心脏不能负荷这么多**。

(48b) \*手术之后, 医生叫我进去, 告诉我说, 她撑不下去了, 她的**心脏负荷不完这么多**。

(48a)의 경우 의사의 주장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문장의 내용상 주장이 포함되어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어 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48b)와 같이 고칠 경우, 負荷는 정도에 대한 술어이기 때문에 ‘完’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49) 事实上第一期的文章和插图大部分是他自己搞的, 照片和稿费一共还**花不了**2000元, 印刷费也只需6000元。

(사실 제1집에 있는 글과 삽화는 대부분 그가 손수 작업한 것이고, 사진과 원고료는 모두 합쳐봐야 2000위안도 들지 않았으며, 인쇄비용도 6000위안 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예문(49)의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에서 제1집을 발행하는 데 사용된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술어 이행 대상인 ‘2000위안’을 다 사용할 수 없었던 원인은 사진과 원고료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 (49a) 事实上第一期的文章和插图大部分是他自己搞的, 照片和稿费一共还不能花2000元, 印刷费也只需6000元。
- (49b) 事实上第一期的文章和插图大部分是他自己搞的, 照片和稿费一共还花不完2000元, 印刷费也只需6000元。
- (49c) 事实上第一期的文章和插图大部分是他自己搞的, 照片和稿费一共还花不到<sup>84)</sup>2000元, 印刷费也只需6000元。

원래의 문장이 ‘비용이 2000위안까지 들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49a)는 ‘2000위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 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성립은 가능하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49b)의 경우, 2000위안이 마치 사용해야 하는 정해진 액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원래 문장의 내용과 차이가 나며, (49c)의 경우는 2000위안까지 쓸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예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술어 이행 주체가 태생적으로 갖추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나 특징을 비롯하여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신적 조건 혹은 습관 등이 술어의 완성·완료 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예이다. 이 조건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어 이행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조동사 ‘能’을 사용해 대체할 수 없다.

(50) 她计算了凤儿一身衣服的尺寸, 觉着用不了这些布。

84) 到: 동작에 대한 결과를 얻다.(동사의 보어로 사용)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247)

(그녀는 凤儿이 입은 옷의 치수를 가늠해본 후 이 옷감들을 다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예문(50)에서는 ‘凤儿의 의복 치수’를 옷감 소비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신체의 치수가 준비된 옷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원인이 되어 이렇게 많은 옷감이 다 쓰이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0a) \*她计算了凤儿一身衣服的尺寸, 觉着**不能用**这些布。

(50b) 她计算了凤儿一身衣服的尺寸, 觉着用**不完**这些布。

(50c) 她计算了凤儿一身衣服的尺寸, 觉着用**不上**这些布。

(50a)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할 경우 ‘이 옷감들을 쓰면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用完’으로 고치더라도 話者의 주관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앞 절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잘못된 문장이라 본다. 예문(50)이 대상의 수량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문장이므로 결과 보여 ‘完’이나 ‘上’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는데, ‘用不完’을 사용할 경우, 마치 주어진 옷감을 의무적으로 다 소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원래의 문장과 다소 차이가 느껴지고, ‘用不上’의 경우가 가장 무난한 대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用不了’의 뒤에 수량성분이 오게 되면 대체로 ‘명시된 수량이 다 쓰이지 않는다’ 혹은 ‘그만큼이 필요하지 않다’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 특징을 가진 동사로 ‘過, 花, 要’ 등이 있다.

(51) 对那些抽象的概念, **听不了**五分钟, 她那个脑子就转不起来了。

(추상적인 그 개념들에 대해 오 분도 채 듣지 못하고, 그녀의 머리는 멍해지기 시작했다.)

위의 예문 역시 술어 이행 주체에게 동작이 완성될 수 없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문장으로 예문(51)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의 인내심 부족 혹은 산만함 등

정서적인 문제를 불가능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51a) 对那些抽象的概念, **不能听**五分钟, 她那个脑子就转不起来了。

(51b) \*对那些抽象的概念, **听不完**五分钟, 她那个脑子就转不起来了。

(51c) 对那些抽象的概念, **听不到**五分钟, 她那个脑子就转不起来了。

(51d) 对那些抽象的概念, **听不上**五分钟, 她那个脑子就转不起来了。

만약 이 문장을 (51a)와 같이 바꾼다면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지만 듣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되어 원래 문장과 의미가 크게 달라지므로 그다지 좋은 대체 문장이라 할 수 없다. (51b)의 경우처럼 ‘完’을 사용하여 바꾸게 되면 마치 5분이 지정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문제가 생기며, 이렇게 해석될 경우 전체 문장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잘못된 문장이라 본다. (51c)나 (51d)의 경우처럼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의미의 단어로 대체하면 의미는 비슷하겠지만 ‘술어 이행 주체에게는 들을 의향이 있으나 오래 견딜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원래 문장과는 달리 시간적인 부분만 부각이 될 뿐 술어 이행 주체의 감정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上述한 예문들은 술어 이행 주체가 태생적으로 혹은 성장 과정에서 구비하게 된 조건들이 술어 이행의 완료·완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객관적 조건에서 불가능의 주된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었다면, 주관적 조건에서는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술어 이행 주체의 신체 혹은 심리적 문제만이 동작을 완성하거나 상태를 지속시킬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정확히 명시되지 않더라도 話者和 聽者 간 확인 혹은 인지되어 있는 수량이 술보구 뒤에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힘, 지식, 기술, 재산, 지도력, 주량 등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능력이 술어 이행 대상을 처리하기에 부족하여 술어 이행이 완료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이상적인 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의 예이다.

(52) 一年内**挣不了**二千元, 一辈子不再开理发店。

(일 년 동안 2천 위안도 벌 수 없으면 평생 다시는 이발소를 열지 않을 거예요.)

예문(52)에서는 ‘2천 위안’을 술어 이행 주체의 입장에서 보는 최저 수입이자 술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일 년 동안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일반적으로 술어 이행 주체의 장사 수완 혹은 경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52a) 一年内**不能挣**二千元, 一辈子不再开理发店。

(52b) 一年内**挣不上**二千元, 一辈子不再开理发店。

(52c) 一年内**挣不足**二千元, 一辈子不再开理发店。

위의 대체 표현들은 모두 원래의 문장과 바꾸어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다만 (52a)로 고칠 경우 능력에 대한 강조가 더해진 느낌을 주고, 원래의 문장과 (52b), (52c)의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서술의 문장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

(53) 凭她学的文化, 还没有能力记笔记, 脑筋里一时也**消化不了**那么丰富的内容。

(그녀의 수준이 아직 필기할 능력도 못 되는데, 머릿속으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풍부한 내용을 다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문(53)에서는 ‘아직 필기할 능력도 못 된다’는 것으로 보아 술어 이행 주체의 ‘낮은 지적 능력’이 제공되는 정보를 주어진 시간 안에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53a) 凭她学的文化, 还没有能力记笔记, 脑筋里一时也**不能消化**那么丰富的内容。

(53b) 凭她学的文化, 还没有能力记笔记, 脑筋里一时也**消化不完**那么丰富的内容。

(53c) 凭她学的文化, 还没有能力记笔记, 脑筋里一时也**消化不来**那么丰富的内容。

위의 예문은 (53a)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도 이미 문장에서 능력의 정도를 밝혔으므로 중의적 해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가능보어의 형식을 적용하여 (53b)로 바꿀 경우에는 능력의 문제가 드러나기 보다는 시간적 제약이나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소화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므로 원래 문장에 드러난 불가능의 주된 원인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3c)와 같이 능력을 나타내는 ‘來’가 보어로 사용된다면 원래 문장의 내용을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된다.

(54) 光办乡镇企业还不够, 它**容纳不了**农业上大量剩余的劳动力。

(농촌 기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촌 기업은 농업에서 크게 남아도는 노동력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위의 예문은 농촌 기업이라는 술어 이행의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능력이 농업 분야에서 남아도는 노동력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나타내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54a) 光办乡镇企业还不够, 它**不能容纳**农业上大量剩余的劳动力。

(54b) \*光办乡镇企业还不够, 它**容纳不完**农业上大量剩余的劳动力。

(54c) 光办乡镇企业还不够, 它**容纳不来**农业上大量剩余的劳动力。

(54d) 光办乡镇企业还不够, 它**容纳不下**农业上大量剩余的劳动力。

앞선 예문(54)의 경우처럼, 문장 안에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문장을 바꾸어도 중의적 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밖에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을 이용하여 위의 몇 가지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원래의 문장에서는 불가능한 대상의 규모와 범위, 능력이 모두 관계되는데 반하여, (54b)의 경우 ‘完’은 수량의 소진만을 나타낼 뿐이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적절한 문장이라 할 수 없다. (54c)의 경우, ‘来’가 사용되어 불가능의 원인으로 능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원래 문장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54d)의 경우에는 공간의 수용 범위와 관계되는 ‘下’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아도는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며,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으로는 모든 노동력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과 대체 가능한 표현으로 본다.

(55) 没醉! 谁敢说我醉了? 你再打二斤来, 看我喝了**喝不了**?

(안 취했어! 누가 나더러 취했대? 자네, 술 2근 더 가져와서 내가 다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어?)

예문(55)의 경우, ‘話者의 주량’이 술을 ‘다 마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문장은 술의 양은 물론이고 술을 매우 잘 마시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5a) 没醉! 谁敢说我醉了? 你再打二斤来, 看我**能不能喝**?

(55b) 没醉! 谁敢说我醉了? 你再打二斤来, 看我**喝得完喝不完**?

(55c) 没醉! 谁敢说我醉了? 你再打二斤来, 看我**喝得下喝不下**?

위의 문장은 (55a)와 같이 조동사 ‘能不能’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문장의 내용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므로 조동사 ‘能’과도 잘 어울린다. 기타 가능보어 형식을 사용하여 문장을 바꿀 수도 있는데, (55b)의 경우, 술을 다 마실 수는 있지만, 술의 양만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 뿐 취하지도 않는다 즉, 주



량이 세다는 원래 문장의 느낌은 나타나지 않는다. (55c)의 경우에도 술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여 전부 다 마실 수 있다는 말일 뿐 모두 마시고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에 비해 話者의 능력 과시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다.

(56) 一名四星上将能够指挥一支百万人的军队, 但他**指挥不了**一百万个人。

(四星 將軍 한 사람은 백만 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백만 명의 個人을 지휘할 수는 없다.)

위의 예문은 ‘四星 將軍이 구비하고 있는 능력’이 술어 이행 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데,四星 將軍 한 사람이 백만의 군사를 지휘할 통솔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군인 신분이 아닌 個人 백만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술어 이행 주체이지만 대상이 군인이 아닐 경우,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이것이 행위를 완성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56a) 一名四星上将能够指挥一支百万人的军队, 但他**不能指挥**一百万个人。

(56b) \*一名四星上将能够指挥一支百万人的军队, 但他**指挥不完**一百万个人。

(56c) 一名四星上将能够指挥一支百万人的军队, 但他**指挥不灵**一百万个人。

예문(56)을 (56a)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해 대체하면, 문장 성립이 되기는 하지만, ‘1만의 個人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56b)와 같이 ‘完’을 사용하면 능력이 아닌 수량의 처치에 관한 문장으로 느껴지므로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문장으로 본다. (56c)와 같이 바꾸면 ‘기능이나 역할이 실통치 않다’는 의미가 되어 능력 발휘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원래 문장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므로 가장 적절한 대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57) 他已经完全无心卖馍了。他决定离开这个他无能为力的场所，到一个稍微清静  
的地方呆一会，至于馍**卖不了**怎么办，现在他也不想考虑了。

(그는 이미 만두를 팔아야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이 속수  
무책인 곳을 떠나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쉴 것을 결정했고, 만두가 안 팔  
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싶어졌다.)

예문(57)의 경우, 만두 장사를 하는 술어 이행 주체가 평소에 늘 하는 걱정인  
'만두가 안 팔리면 어쩌나'는 대체로 장사 수완이 좋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걱정이  
므로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판매 행위를 완료·완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  
래와 같다.

(57a) 他已经完全无心卖馍了。他决定离开这个他无能为力的场所，到一个稍微清  
静的地方呆一会，至于馍**不能卖**怎么办，现在他也不想考虑了。

(57b) 他已经完全无心卖馍了。他决定离开这个他无能为力的场所，到一个稍微清  
静的地方呆一会，至于馍**卖不完**怎么办，现在他也不想考虑了。

(57c) 他已经完全无心卖馍了。他决定离开这个他无能为力的场所，到一个稍微清  
静的地方呆一会，至于馍**卖不掉**怎么办，现在他也不想考虑了。

(57a)의 경우,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원래 문장과 달리 술어 이행 주체  
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원인보다는 어떠한 상황의 발생하여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장으로  
본다. 이 문장은 '만두를 모두 팔아 없애는 것'이 동작의 완성이므로 (57b)와 같  
이 바꾸어 써도 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57c)와 같이 '팔아치우다'와 같은 표현으  
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상의 예문들은 모두 술어 이행 주체가 지닌 능력이 부족하여 동작이 완료로  
이여지지 못하거나 모종의 상황을 지속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행위의 실현을 나타내는 '上'을 비롯하여,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을 표시하는

‘來’, 일정 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유를 표시하는 ‘下’, 수량의 소진 여부를 표시하는 ‘完’ 등이 ‘了(liǎo)’를 대신하는 대체 표현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 모두 ‘~不了(liǎo)’ 형식이 未完了·未完成을 나타내는 경우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보다 훨씬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데, 그중 객관적 조건에서 未完了·未完成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욱 적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문 수집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대체로 ‘~不了(liǎo)’ 형식이 未完了·未完成을 나타내는 경우, 술어로 처리해야 할 대상은 대체로 수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확한 수량이 명시되지 않아도 話者和 聽者 사이에 확인 가능한 수량인 경우 그 수량을 완료·완성해야 할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술어 이행 주체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비롯하여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개별적 특성 등 주관적 조건이 술어 이행을 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술어 이행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이에 속하며 다음과 같이 종류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가) 심신의 상태

다음은 나이, 체중, 키 등 술어 이행 주체가 자연적으로 구비하게 되는 신체적 조건을 비롯하여 술어 이행 주체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 신체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슬픔이나 고통 등 좋지 않은 상태인 심리적 요인이 발생하여 술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의 예이다.

(58) 我腰有伤, 睡不了软床。

(나는 허리를 다쳐서 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없다.)

(58a) 我腰有伤, **不能**睡软床。

예문(58)은 술어 이행 주체의 부상이 원인이 되어 폭신한 침대에서 자는 동작 자체가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객관적 조건에서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문장을 대체할 수 있고, 원래 문장과 의미상 차이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58a)의 경우는 話者의 주관이 개입되어 다소 강한 어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59) 牙床和左腮肿得太厉害, 他**笑**不了。

(잇몸과 왼쪽 뺨이 심하게 부어서 그는 웃을 수 없었다.)

(59a) 牙床和左腮肿得太厉害, 他**不能**笑。

예문(59)의 경우도 술어 이행 주체의 좋지 않은 몸 상태가 웃는 행위를 실현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59a)와 같이 조동사를 사용해 문장을 대체해도 원래 문장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다만, 구어체인 문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不了(liǎo)’를 사용한 문장이 더 어울린다 할 수 있다.

(60) 走到病房楼前, 他**怎么**也**控制**不了自己的感情, 眼泪止不住地淌。

(병동 앞에 도착하자 그는 도저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예문(60)은 걱정이나 슬픔 등 술어 이행 주체의 감정이 격해져 술어 이행 주체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장으로,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60a) 走到病房楼前, 他**怎么**也**不能**控制自己的感情, 眼泪止不住地淌。

(60b) 走到病房楼前, 他**怎么**也**控制不住**<sup>85)</sup>自己的感情, 眼泪止不住地淌。

85) 注: ① 동사의 보어로 사용되어 정지를 나타낸다. ② 동사의 보어로 사용되어 견고함, 안정적인임을 나타낸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p. 1659-1660.)

부사어 ‘怎麼也’가 술어 이행 주체의 노력에 대해 보여주는 동시에 중의적 해석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60a)와 같이 조동사를 사용한 형식으로 바꾸어도 원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준다.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을 사용한 (60b)의 ‘控制不住(진정시킬 수 없다)’도 원래 문장의 내용과 비슷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61) 你真**挡**不了有时候要落泪呢。

(당신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도저히 막지 못 할 때가 있다.)

예문(61)의 경우도 예문(60)과 같이 술어 이행 주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의 예로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결과는 아래와 같다.

(61a) \*你真**不能挡**有时候要落泪呢。

(61b) 你真**挡不住**有时候要落泪呢。

예문(61)은 막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므로 조동사 ‘能’을 사용해 고칠 수 있지만, 동사 ‘擋’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阻擋’과 같이 다른 동사와 함께 사용해야만 완전한 문장이 되므로 잘못된 대체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61b)와 같이 ‘停止’를 나타내는 ‘住’로 대체하면 더욱 의미가 부각되므로 적절한 대체 표현이라 본다.

(62) 她**受**不了这一切, 又回到家中过起孤寂无聊的日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 쓸쓸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62a) \*她**不能受**这一切, 又回到家中过起孤寂无聊的日子。

예문(62)는 인내할 수 없었던 술어 이행 주체의 감정이 작용하여 주어진 환경

을 견딜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이 문장을 조동사 ‘不能’을 사용해 바꾸게 되면 동사 ‘受’ 만으로 중심 술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 ‘受’를 ‘忍受’로 고치거나 동사 자체를 교체하지 않고는 문장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만약 ‘忍受’로 고쳐 사용한다고 해도 원래 문장만큼 구어체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표현을 대체할 기타 가능보어 형식은 찾을 수 없었다.

(63) 我眼睛不好, 对不了焦距。

(나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초점 거리를 맞출 수 없다.)

예문(63)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다는 話者의 신체적 조건의 제약이 초점 거리를 맞추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3a) 我眼睛不好, 不能对焦距。

(63b) 我眼睛不好, 对不上焦距。

(63a)는 초점을 맞추는 행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원래 문장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 (63b)는 ‘~하는 결과를 낳다’는 의미를 가진 ‘上’을 통해 맞추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원래 문장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上述한 예문들은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신체적·심리적 조건이 원인이 되거나 질병, 부상, 사고 등 신체적 문제나 충격, 실의, 분노 등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여 술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예로,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이라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조건에서의 未完了·未完成과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술보구가 정도를 표현하는 일부 문장의 경우 ‘不能’을 사용해 대체할 때 단독으로 중심 술어를 이룰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 사용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나) 능력의 한계

기술, 힘, 재력, 업무 능력, 재주 등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능력이 술어 이행의 대상을 감당할 수 없어 동작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며 ‘~不了(liǎo)’를 사용하는 문장 중 비교적 많이 출현하는 사용 환경이라 할 수 있다.

(64) 我作为一个游子，看到故土还有这么多的小弟弟小妹妹因贫困上不了学，心里很难受!

(나는 재외 국민으로서 고향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어린 동생들이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

예문(64)에서 話者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고, 술어를 이행할 수 없는 주체로 아이들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장 내에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64a) 我作为一个游子，看到故土还有这么多的小弟弟小妹妹因贫困不能上学，心里很难受!

(64b) 我作为一个游子，看到故土还有这么多的小弟弟小妹妹因贫困上不起学，心里很难受!

술어 이행 주체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문장이므로 조동사 ‘能’을 이용해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64b)에서와 같이 경제적 능력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起’를 사용하여 가능보어로 표현한 것이 더 적합한 대체 표현이라고 본다.

(65) 许多男人因养活不了家庭，丢下老婆孩子，离家出走。

(많은 남자들이 가정을 부양할 수 없어,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

예문(65)에서 술어 이행 주체인 ‘많은 남자들’이 가족을 부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능력의 부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65a) 许多男人因**不能养活**家庭, 丢下老婆孩子, 离家出走。

(65b) 许多男人因**养活不起**家庭, 丢下老婆孩子, 离家出走。

비록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문장 안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이므로 이 문장을 조동사 ‘不能’을 사용해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나타나는 ‘起’가 사용된 가능보어의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은 훨씬 분명하게 원인에 대해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66) 有的单位在专家走后自己**搞不了**, 又不得不花高薪再把外国专家请回来。

(일부 회사에서는 전문가가 돌아간 후 스스로 처리를 할 수 없어, 또 다시 높은 임금을 주고 외국 전문가를 초빙해 오기도 한다.)

예문(66)은 전문가의 기술이나 능력을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지 못한 것이 업무 처리 불가능의 원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비교적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66a) 有的单位在专家走后自己**不能搞**, 又不得不花高薪再把外国专家请回来。

(66b) 有的单位在专家走后自己**搞不定**<sup>86)</sup>, 又不得不花高薪再把外国专家请回来。

(66c) 有的单位在专家走后自己**搞不明白**<sup>87)</sup>, 又不得不花高薪再把外国专家请回来。

(66d) 有的单位在专家走后自己**搞不清楚**<sup>88)</sup>, 又不得不花高薪再把外国专家请回来。

86) 定: ① 안정되다 ②동사의 뒤에서 동작이 변하지 않고 쪽 이어짐을 나타낸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p.285.)

87) 明白: ① 분명하다, 명백하다 ② 알다, 이해하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p.877.)



(66e) 有的单位在专家走后自己**搞不好**<sup>89)</sup>, 又不得不花高薪再把外国专家请回来。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과 관련된 문장이므로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대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을 가능보어의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바꾼 (66b), (66c), (66d), (66e)중에서 (66b)의 경우는 동작을 완전하게 실행하기에는 다소 모자람을 나타내고, (66c)와 (66d)의 경우 머리로 이해하는 행위만 포함되기 때문에 원래 예문에서의 동작도 시도된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게 된다. (66e)의 경우, 의미 자체는 통하지만, 대개 가정문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 표현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67) 要是那半年时间我好好练, 再怎么放松也不会**进不了**决赛!

(만약 그 반 년 동안 내가 연습을 충실히 했다면, 아무리 긴장을 늦췄더라도 결승에 오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문(67)의 경우, 결승에 오르지 못한 원인을 술어 이행 주체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경기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67a) \*要是那半年时间我好好练, 再怎么放松也不会**不能进**决赛!

(67b) 要是那半年时间我好好练, 再怎么放松也不会**进不去**决赛!

이 문장의 경우 이미 ‘不會’라는 조동사가 있는 상태이므로 (67a)와 같이 다른 조동사를 첨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7b)와 같이 가능보어의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면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결국 위의 문장과 같은 구어체의 문장은 ‘不了(liǎo)’를 이용한 형식이 가장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88) 清楚: ① 분명하다, 명백하다 ② 알다, 이해하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p.1025.)

89) 好: ① 동사 뒤에 놓여 완성되었거나 잘 마무리되었음을 나타낸다.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pp.488.)

(68) 在香港警队接受心理辅导的人当中, 相当一部分是因为**处理不了**人际关系, 包括同上司、家人、亲友的关系而有心理障碍的。

(홍콩경찰대에서 심리지도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상사나 가족, 친구를 포함한 대인관계를 처리하지 못해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다.)

예문(68)에서는 ‘홍콩경찰대에서 심리지도를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술어 이행 주체로 등장하고, 그들이 대인 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원인으로 대인관계 관리 능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8a) 在香港警队接受心理辅导的人当中, 相当一部分是因为**不能处理**人际关系, 包括同上司、家人、亲友的关系而有心理障碍的。

(68b) 在香港警队接受心理辅导的人当中, 相当一部分是因为**不会处理**人际关系, 包括同上司、家人、亲友的关系而有心理障碍的。

(68c) 在香港警队接受心理辅导的人当中, 相当一部分是因为**处理不好**人际关系, 包括同上司、家人、亲友的关系而有心理障碍的。

(68d) 在香港警队接受心理辅导的人当中, 相当一部分是因为**处理不明白**人际关系, 包括同上司、家人、亲友的关系而有心理障碍的。

위의 문장은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문장이므로 (68a)와 같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문장을 대체해도 문장 성립은 가능하지만, ‘금지’를 나타내는 중의적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문장이므로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68b)와 같이 조동사 ‘会’를 사용하여 ‘할 줄 모름’으로 나타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68c), (68d)와 같이 가능보어의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한데, (68d)는 머리로의 이해만 해당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68c)로 나타내는 것이 원래의 문장과 더 가까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9) 我根本**拿不了**这么重的东西。

(나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다.)

예문(69)에서 술어 이행 주체인 ‘我’가 대상인 ‘這麼重的東西’를 들 수 없는 이유를 술어 이행 대상의 체력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정확한 중량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話者和 聽者 간 확인 혹은 인지 가능한 정도로 보며, 술어 이행 주체가 그 정도의 무게를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술어 이행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9a) 我根本**不能拿**这么重的东西。

(69b) 我根本**拿不动**这么重的东西。

(69a)는 술어 이행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어 원래의 문장에 비해 다소 강한 어기로 느껴질 뿐 의미상 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나는 원래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금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無法’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69b)에서는 ‘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무게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무방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70) 初来时, 有的姑娘因**讲不了**普通话连门都不敢出。

(처음 왔을 때 어떤 아가씨들은 표준어를 못 해서 문 밖 출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70a) 初来时, 有的姑娘因**不会讲**普通话连门都不敢出。

(70b) 初来时, 有的姑娘因**讲不好**普通话连门都不敢出。

예문(70)에서 ‘初來時’를 근거로 술어 이행 주체인 아가씨들이 표준어를 못 했던 원인을 표준어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 ‘할 줄 알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는 ‘會’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므로

(70a)에서와 같이 ‘不會’를 사용하여 바꾸어 주거나 (70b)와 같이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好’를 사용하게 되면 기초 단계 정도는 습득을 했다고 이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의미에 다소 차이가 생긴다.

上述한 예문들은 모두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핍되어 술어 이행이 불가능한 예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조동사 ‘不能’을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으나, ‘不能’이 금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중의적 해석의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을 이용하여 바꾸어 볼 수도 있는데,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에 사용되는 보어들은 각각 특정한 의미와 용도가 있어 세밀한 묘사가 필요한 문장에서는 ‘~得/不了(liǎo)’ 형식보다 더 좋을 수 있지만, 구어체 문장에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불가능의 표현에는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 (다) 개별적 특성

아래의 예문들은 술어 이행 주체가 태생적으로, 혹은 성장 과정에서 구비하게 된 습관이나 성향, 성격 등이 술어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로 볼 수 있다.

(71) 狗改不了吃屎。

(개는 똥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

예문(71)에서 술어 이행 주체로 등장하는 ‘狗’의 위와 같은 습성은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는 인간과 같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며, 이러한 개의 특성으로 인해 고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장을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71a) \*狗不能改吃屎。

(71b) 狗改不掉吃屎。

만약 예문(71)을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바꾸게 되면 ‘금지’의 의미가 적용되면서 의미 자체가 부적절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不能’ 대신에 ‘無法’를 사용하더라도 문장 성립은 불가능한데 만약 목적어를 변형하여 ‘狗無法改吃屎的習慣’이라는 문장으로 고친다면 문장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는 본고가 정한 문장 변환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므로 원래의 문장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전체적인 문장에 최소한의 변화를 주어 (71b)와 같이 ‘掉’를 사용한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고치는 것이 더 적합하다.

(72) 在他的头脑里, 有一种独特的农民思想根深蒂固, 容不了我们的思想。

(그의 머릿속에는 독특한 농민사상이 깊게 뿌리박혀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문(72)을 통해 술어 이행 주체로 등장하는 ‘他’는 주관이 비교적 뚜렷하고 독특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며, 다소 고집스러운 성격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이 너무나 굳건하게 자리 잡은 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2a) \*在他的头脑里, 有一种独特的农民思想根深蒂固, 不能容我们的思想。

(72b) 在他的头脑里, 有一种独特的农民思想根深蒂固, 容不下我们的思想。

예문(72)을 조동사 ‘能’을 사용한 문장으로 고치더라도 동사 ‘容’만으로는 문장 성립이 불가능하며, ‘容納’등으로 바꾸어야만 문장 성립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본고의 문장 변환의 기준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72b)에서와 같이 공간의 수용 여부를 나타내는 방향보어 ‘下’를 사용하여 기타 가능보어 형식으로 고치게 되면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문장이 된다.

(73) 羊嫩点还好, 老的煮上几个小时也烂不了。

(양은 부드러우면 몰라도, 늙은 양의 경우 몇 시간을 끓여도 연해지지 않는다.)

(73a) 羊嫩点还好, 老的煮上几个小时也不会烂。

예문(73)에서 고기가 연해지지 않는 원인은 늙은 양의 육질에서 나타나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조동사 ‘能’을 사용해 대체하려면 ‘不能使它變爛’처럼 문장 자체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만약 ‘能’대신에 ‘會’를 사용해 바꾼다면 다른 성분들은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會’를 사용하여 대체하는 편이 더 적할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보어 표현은 찾을 수 없었으며, 예문(73)가 단순한 설명이라면 (73a)는 話者의 주관에 개입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74) 其中重要一点就是现有领导干部缺乏现代经济知识, 工作思路摆脱不了旧的传统模式, 影响了经济发展步伐。

(이중 중요한 사실은 바로 현 지도자들에게는 현대 경제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업무 방향이 낡은 전통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예문(74)에서는 낡은 전통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원인을 현 지도자들의 사상이나 시대적 영향 혹은 문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교적 지긋한 나이의 현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일정한 사고의 틀이 생겼을 것이고, 현대 경제에 관한 지식이 없음에도 이것을 돌파할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만 고집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74a) 其中重要一点就是现有领导干部缺乏现代经济知识, 工作思路不能摆脱旧的传统模式, 影响了经济发展步伐。

(74b) 其中重要一点就是现有领导干部缺乏现代经济知识, 工作思路摆脱不掉旧的

传统模式, 影响了经济发展步伐。

예문(74)는 그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굳어진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식들에 의해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話者의 주관에 개입된 느낌이 들 수 있으며, (74b)에서와 같이 전통 방식을 떨쳐버린다는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掉’로 대체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본다.

#### 다.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아래의 예문은 술어 이행은 할 수 있으나,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열악하거나 무의미해서 단지 술어 이행만 할 수 있을 뿐, 술어 이행의 정도가 매우 미약함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75) 小孩子注意力没有那么集中, 看书往往**看不了**几分钟就想着出去玩。

(어린 아이는 집중력이 그리 높지 못하여 책을 본지 몇 분 만에 나가서 놀 생각을 하고는 한다.)

예문(75)에서 술어 이행 주체인 어린 아이는 그 또래 아이들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독서라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5a) 小孩子注意力没有那么集中, 看书往往**不能看**几分钟就想着出去玩。

(75b) \*小孩子注意力没有那么集中, 看书往往**看不完**几分钟就想着出去玩。

(75c) 小孩子注意力没有那么集中, 看书往往**看不到**几分钟就想着出去玩。

(75a)의 경우, 문장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분명하지 않은 시간을 수반한 형태로 술어 전체를 부정하는 ‘不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고, (75b)는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를 마무리하는 ‘完’이 불분명한 시간 앞에

놓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75c)의 경우, ‘到(~까지)’는 뒤에 시간을 수반하여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단어이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76) 不少农民种烟技术不过关, 烟叶质量低, **卖不了**好价。

(적지 않은 농민의 담배 농사 기술이 기준에 못 미치다보니 담뱃잎 품질이 낮아서 좋은 가격에 팔지 못하고 있다.)

예문(76)은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 부족(낮은 농사 기술의 수준)으로 인해 판매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결과는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76a) \*不少农民种烟技术不过关, 烟叶质量低, **不能卖**好价。

(76b) 不少农民种烟技术不过关, 烟叶质量低, **卖不上**好价。

예문(76)는 조동사 ‘不能’는 물론 ‘無法’로 고쳐도 성립되지 않는데, ‘好价’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팔다’라는 동사 뒤에 보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장을 조동사를 사용한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不能賣出’나 ‘不能賣到’로 고쳐야 하는데, 이렇게 대체할 경우 문장 성립이나 의미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聽者의 입장에서는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 문장은 (76b)의 경우와 같이 목적 달성을 나타내는 ‘上’을 사용하여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고치거나 원래 문장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77) 我自己昏头昏脑, 也**问不了**许多, 插上了门, 向四下里望着想找张床。

(나는 머리가 멍하여 얼마 묻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근 후 침대를 찾아 주변을 살폈다.)

(77a) 我自己昏头昏脑, 也**不能问**许多, 插上了门, 向四下里望着想找张床。

예문(77)의 경우, 술어 이행 주체의 좋지 않은 몸 상태가 원인이 되어 묻는 행



위는 이행을 하되, 몇 가지만 겨우 물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문장의 첫머리에서 술어 이행 주체의 상태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78) 如果我老是为这些事操心, 我将**支撑**不了多久。

(만약 내가 계속 이 일들로 애를 태운다면 나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예문(78)에서 話者が 지탱을 계속할 수 없는 원인을 話者の 심리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어떠한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적인 부담을 가져와 잠시는 버틸 수 있더라도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탱하려 해도 얼마 지탱할 수 없다’는 해석은 ‘~不了(liǎo)’구 뒤에 놓인 ‘多久’라는 불분명한 기간이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78a) 如果我老是为这些事操心, 我将**不能支撑**多久。

(78b) \*如果我老是为这些事操心, 我将**支撑不住**多久。

(78a)의 경우처럼 조동사로 대체하면 話者の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낸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래의 문장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78b)의 경우, ‘住’로 인해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多久’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79) 现在只杀两个**起不了**那么大作用了, 要多杀几个, 这才能真正表现我们的决心。

(이제는 겨우 두 명을 죽여서는 큰 영향이 없게 되었다. 몇 명을 더 죽여야만 우리의 결심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

(79a) 现在只杀两个**不能起**那么大作用了, 要多杀几个, 这才能真正表现我们的决心。

예문(79)의 경우, 영향을 일으키는 술어 이행 주체를 ‘두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는 미약하지만 분명히 일정 정도의 영향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큰 영향을 가져올 만큼의 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므로 조동사 ‘能’을 이용하여 대체 문장을 구성해도 원래 문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80) 造每箱5元的“三精水”，又要送货上门，细一算也**赚不了**太多钱。

(한 상자에 5위안인 ‘三精水’를 만들고 배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계산해보면 그리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한다.)

예문(80)에서 話者는 물품을 만들어 배달하는 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그 액수가 話者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80a) 造每箱5元的“三精水”，又要送货上门，细一算也**不能赚**太多钱。

(80b) 造每箱5元的“三精水”，又要送货上门，细一算也**赚不到**太多钱。

(80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바꾸어도 문장은 대체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80b)의 경우 목적의 실현을 나타내는 ‘到’가 사용됨으로써 話者가 기대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대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도 객관적 조건에서와 같이 술어를 이행하거나 실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술어 이행의 정도나 결과가 미미하며, 그 정도를 술보구 전후의 부대 성분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뒤에 ‘多少, 多久, 很多, 太多’ 등 분명하지 않은 수량성분을 수반하여 ‘얼마 ~지 못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 3. 주·객관적 조건의 동시 작용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능력이나 심신의 상태, 한계, 특성 등의 주관적 조건과 시간, 장소, 사건, 상황, 대상 등 술어 이행의 환경이나 대상으로 제공되는 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술어 이행을 불가능으로 이끄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역시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다음은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조건은 열악한 반면, 일정 정도 이상의 대상이나 환경이 동시에 술어에 영향을 주어 술어 이행이 완성 혹은 완료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상태의 지속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예문들이다.

(81) 刚刚解决温饱的俺们实在应付不了那么多的提留款项。

(이제 막 생계문제를 해결한 우리로서는 그렇게 많은 관리대금(提留款)을 감당할 수 없다.)

예문(81)의 경우, 이제 막 생계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보아 술어 이행 주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높은 액수의 관리대금이라는 외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술어 이행 주체가 상당한 양의 관리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대체 가능한 다른 표현으로 고쳐 보자.

(81a) 刚刚解决温饱的俺们实在不能应付那么多的提留款项。

(81b) 刚刚解决温饱的俺们实在应付不完那么多的提留款项。

예문(81)을 조동사 ‘不能’을 사용하여 고치게 되면 話者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그렇게 많은 대금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와 같은 강한 어기로 전달될 수 있다. 만약 이 문장을 (81b)와 같이 ‘應付不完’으로 고친다면 문장 성립은 가능하지만, 수량과 시간, 종류 등을 포괄하는 원문에서와는 달리 양적인 부분만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82) 中国已出版的蒙古族民俗百科全书的内容只限于较窄的范围, **涵盖不了整个蒙古学领域。**

(중국에서 이미 출판된 몽고족 민속백과사전의 내용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몽고학 영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예문(82)의 경우, 몽고족 민속백과사전의 내용이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는 주관적 조건과 폭넓은 몽고학 전체 영역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몽고학과 관련된 내용 모두를 포괄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문장은 아래와 같다.

(82a) 中国已出版的蒙古族民俗百科全书的内容只限于较窄的范围, **不能涵盖整个蒙古学领域。**

(82b) 中国已出版的蒙古族民俗百科全书的内容只限于较窄的范围, **涵盖不完整个蒙古学领域。**

(82c) 中国已出版的蒙古族民俗百科全书的内容只限于较窄的范围, **涵盖不尽整个蒙古学领域。**

이 문장은 (82a)와 같이 조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중의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목적어에서 수식 성분으로 사용되는 ‘整個’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整個’가 없다면 이 문장은 ‘몽고학 영역을 포괄할 수 없다’로 해석되어 동사 자체가 불가능한 문장으로 해석되고, 금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소지도 있다. 이 문장을 (82b)와 같이 바꿀 경우, 범위, 수량, 종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원래 문장과는 달리 수량에 국한된 부분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대체하여 사용하기 부적절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가능보어 ‘~得/不+ 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고친다면 ‘完’보다는 정도의 표현이 포함된 ‘盡’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83) 三个人绝对**抵挡不了**成群的坦克车与重炮。

(세 사람으로는 절대로 몰려오는 탱크와 중포를 다 막을 수 없다.)

예문(83)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세 사람 뿐이라는 술어 이행 주체의 열악한 조건을 주관적 조건으로, 탱크와 중포가 몰려오는 상황을 객관적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막을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3a) 三个人绝对**不能抵挡**成群的坦克车与重炮。

(83b) 三个人绝对**抵挡不完**成群的坦克车与重炮。

(83c) 三个人绝对**抵挡不住**成群的坦克车与重炮。

이 문장은 (83a)와 같이 조동사를 이용해 고칠 수는 있지만 금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話者의 주관적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원래의 문장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83b)의 경우와 같이 바꾸게 되면 수량에 관한 부분만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수량은 물론 세 명의 사람과 막강한 화력의 무기 간의 전투에서 오는 전투력의 차이나 규모 등은 나타낼 수 없으므로 대체하기 부적절하며, (83c)와 같이 ‘住’를 사용하여 ‘그들을 멈출 수 없는’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84) 一个人的资金和能力都有限, **办不了**这样大的事。

(한 사람의 자금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없다.)

예문(84)에서는 단 한 사람의 술어 이행 주체를 주관적 조건의 제약으로 볼 수 있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這樣大的事’을 객관적 조건의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84a) 一个人的资金和能力都有限, **不能办**这样大的事。

(84b) 一个人的资金和能力都有限, **办不到**这样大的事。

(84c) 一个人的资金和能力都有限, **办不成**这样大的事。

조동사 ‘能’을 사용하여 바꾸었을 때, 예문(84)가 단순한 서술을 하는 문장이면, (84a)는 ‘금지’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84b)나 (84c)와 같이 목적의 달성을 나타내는 동사를 보어로 사용하여 행위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은 환경적 요소인 객관적 조건과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하고 있는 주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술어 이행의 완료 혹은 완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의 예이다. 이 조건에서도 ‘不了(liǎo)’가 완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了(liǎo)’ 대신에 ‘完’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주로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이 모두 일정한 정도를 포함하여 서로 비교되는 상황일 경우가 많은 것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了(liǎo)’는 정도, 수량, 가치, 종류, 면적 등 포함하는 의미의 영역이 넓지만, ‘完’은 단지 수량의 소진이나 동작의 완성만을 의미하는 것도 ‘完’이 ‘了(liǎo)’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아래의 예문은 술어 이행 주체의 열악한 주관적 조건과 과도한 정도의 술어 이행 대상 혹은 환경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술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5) 我在街上顶风走了会儿发觉**坚持不了**, 便拐胡同去找一个朋友。

(나는 길에서 바람에 맞서 좀 걸어보다가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골목에 들어 친구를 찾아갔다.)

예문(85)의 경우, 바람이 세다는 객관적 조건과 함께 술어 이행 주체의 체력적 한계라는 주관적 조건을 불가능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견뎌보려는 술어 이행 주체의 의지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85a) 我在街上顶风走了会儿发觉**不能坚持**, 便拐胡同去找一个朋友。

(85b) 我在街上顶风走了会儿发觉**坚持不住**, 便拐胡同去找一个朋友。

술어 이행 주체의 체력적 한계가 드러나 있으므로 (85a)와 같이 ‘不能’을 사용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인 경우, (85b)와 같이 고정됨을 나타내는 ‘住’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구어체의 특성에 더 어울리는 원래 문장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86) 市场风云变幻, 过去那套本领**应付不了**今天的竞争。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기에, 과거의 수단으로는 오늘날의 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

예문(86)에서는 시장의 변화라는 환경을 객관적 조건으로, 술어 이행 주체가 과거의 수단을 이용하는 경쟁력 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관적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오늘날의 경쟁에 대응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6a) 市场风云变幻, 过去那套本领**不能应付**今天的竞争。

(86b) 市场风云变幻, 过去那套本领**应付不来**今天的竞争。

시장의 변화가 크다는 점과 술어 이행 주체가 과거의 수단에만 의존한다는 사

실로 술어 이행 주체의 대처 능력이 높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라면 이 문장을 조동사를 사용한 형식으로 고쳐도 중의적 해석의 문제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능력과 관련된 문장이므로 가능보어 ‘~得/不+결과보어·방향보어’ 형식으로 바꿀 때 ‘來’를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87) 这么油腻的碗, 凉水我可洗不了。

(이렇게 기름기 있는 그릇을 나는 찬물로 씻을 수 없다.)

예문(87)에서 그릇을 씻을 수 없는 원인은 그릇에 기름기가 묻었다는 술어 이행 대상의 상태를 객관적 조건으로, 나의 능력 부족 혹은 심리적 영향을 주관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볼 수 있다.

(87a) 这么油腻的碗, 凉水我可不能洗。

(87b) 这么油腻的碗, 凉水我可洗不好。

(87a)와 같이 조동사 ‘能’을 이용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비슷한 의미 전달은 가능하지만, 다소 고집스러운 話者의 어기를 포함하게 된다. (87b)와 같이 고치면 씻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나 결과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어 원래의 문장과 다소 차이가 난다.

(88) 她太聪明, 老师们都应付不了她, 因此老师们觉得课堂上少了她反而轻松。

(그녀가 너무 똑똑해서 선생님들조차 그녀를 상대할 수 없었다.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녀가 없는 편이 더 홀가분하다고 느꼈다.)

예문(88)은 그녀가 너무 똑똑하다는 사실이 객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술어 이행 주체의 지적 능력이 그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주관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그녀를 상대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88a) 她太聪明, 老师们都**不能应付**她, 因此老师们觉得课堂上少了她反而轻松。

(88b) 她太聪明, 老师们都**应付不来**她, 因此老师们觉得课堂上少了她反而轻松。

예문(88)은 사실에 대해 서술을 하는 문장으로 느껴지지만 (88a)인 경우 금지의 뜻이 적용되어 ‘상대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중의적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88b)의 경우 술어 이행 주체의 능력 부족이 잘 드러나는 문장으로 원래의 문장과 바꾸어 써도 무방하다.

上述한 예문들은 환경적 요소인 객관적 조건과 술어 이행 주체 자체가 구비하고 있는 능력, 특성, 한계 등 주관적 조건이 함께 작용하여 술어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예문으로 앞서 소개한 ‘Ⅲ-1-나’와 ‘Ⅲ-2-나’와 기본적인 특징은 같다고 할 수 있다.

#### 다. 술어의 부분적 이행 · 실현

아래의 예문들은 술어 이행 주체가 가진 열악한 조건과 상대적으로 과도한 환경적 배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단지 술어 이행만 가능할 뿐 술어 이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미미한 경우의 예이다.

(89) 她一家七口这点粮, **填不了**几天肚子。

(그녀의 가족이 일곱인데 이까짓 식량으로는 며칠 배를 채우는 것도 힘들 것이다.)

(89a) 她一家七口这点粮, **不能填**几天肚子。

예문(89)은 가족이 일곱 명에 이른다는 주관적 조건과 주어진 식량이 너무 적다는 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배를 채우는 행위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을 (89a)와 같이 조동사를 이용한 문장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완곡한 표현인 원래 문장에 비해 다소 강한

어조로 전달되어 聽者가 받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90) 诸如北京春节卖出多少瓶法国名酒之类的事情, **说明不了**多少问题。

(예컨대, 베이징의 춘제 기간 프랑스 명주 매출 현황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90a) 诸如北京春节卖出多少瓶法国名酒之类的事情, **不能说明**多少问题。

예문(90)의 경우, 프랑스 명주의 매출 현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주관적 조건과 문제에 대해 해결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여, 설명하는 행위 자체는 이루어지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동사를 이용하여 대체한 문장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는데, 이 문장의 경우, 목적어에 포함된 ‘多少’로 인해 조동사 ‘不能’을 사용해도 중의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1) 没有新技术, 咱可跟不上大市场, **赚不了**大钱。

(신기술 없이 우리는 큰 시장을 따라갈 수 없고,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예문(91)에서는 술어 이행 주체가 신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경쟁력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술어 이행 주체의 낮은 경쟁력을 주관적 조건이라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큰 시장을 객관적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조건이 한꺼번에 작용하여 신기술 없이 큰 시장에 진입했을 때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가능해도 그 정도가 미미할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1a) 没有新技术, 咱可跟不上大市场, **不能赚**大钱。

(91b) 没有新技术, 咱可跟不上大市场, **赚不到**大钱。

예문(91)은 (91a)와 (91b)의 형식으로 바꾸어도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조동사 ‘不能’을 사용한 문장의 경우는 주관성이 개입되어 보다 강한 어조를 전달

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92) 好一点的花布四块钱还**扯不**了一米呢。

(조금 괜찮다 싶은 꽃무늬 천은 4위안으로 1미터도 살 수 없다.)

예문(92)에서 천을 구입하기 위해 준비된 돈 ‘4위안’이 주관적 조건으로 ‘扯’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4위안’은 비교적 적은 액수임이 짐작 가능하고, 객관적 조건은 조금 괜찮은 정도의 꽃무늬 천으로 4위안으로는 1미터도 살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높은 가격의 물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92)은 4위안으로 꽃무늬 천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아주 조금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2a) 好一点的花布四块钱还**不能扯**一米呢。

(92b) 好一点的花布四块钱还**扯不到**一米呢。

(92c) 好一点的花布四块钱还**扯不起**一米呢。

위의 세 문장 모두 원래의 문장과 대체 가능하다. (92a)는 조동사 ‘能’을 사용한 문장이지만, 술어 뒤에 놓인 ‘一米’로 인해 중의적 해석을 피할 수 있고, (92b)는 1미터를 최소 단위로 보는 상태에서 1미터조차 구입할 수 없다는 의미의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92c)의 경우 가격 문제로 1미터의 천도 구입할 수 없다는 문장이 되는데, 원래의 문장과 대체 문장들 모두 가격이 기준이 되어 비교를 하고 있으므로 모두 대체 문장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은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이 불가능의 조건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了(liǎo)’가 완료를 나타내지도 않으면서 ‘不了(liǎo)’ 구조로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현하지도 않는 경우의 예이다. 이 경우들 역시 술어의 앞, 뒤로 등장하는 부사어나 목적어 등 부대 성분이 이러한 문장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거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할 때

뒤에 수반되는 수량성분은 대체로 분명한 수량이거나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더라도 문장 속에서 話者和 聽者是 인지하고 있는 수량 혹은 정도이지만,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이나 실현을 나타내는 경우, 뒤에 수반되는 수량성분은 대체로 ‘多少, 許多, 很多, 太多, 那麼多’ 등 막연한 수량이며, ‘얼마 ~지 못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예문들을 통해 ‘不了(liǎo)’ 형식이 사용되는 환경을 알아보았다. ‘不了(liǎo)’ 형식은 口語에 주로 이용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話者の 주관이 드러나는 문장을 제외하고는 ‘不了(liǎo)’ 형식이 자주 사용되며, 특히 주·객관적 조건에 관계없이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는 절반 이상의 사용 빈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문장 안에 불가능의 원인만 명시되어 있다면 ‘不了(liǎo)’ 형식의 문장에서 중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정도, 범위, 종류 등 불가능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不了(liǎo)’는 다른 가능보어 형식에 비해 중심 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술어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용 환경과 부대 성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만 할 수 있더라도 어법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IV. ‘~不了(liǎo)’구의 전후 성분의 구조

Saeed는 “문장들 사이에 유지되는 의미관계는 문장 속에 나와 있는 특정 단어 나 통사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sup>90)</sup>”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글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단어와 통사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는 중국어의 경우, 아래와 같이 특정 단어가 첨가되어 문장의 의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明天他会来。

(내일 그가 올 것이다.)

→ 明天他会来吗?

(내일 그가 올까?)

② 那件衣服洗也无法洗。

(그 옷은 빨 수조차 없다.)

→ 那件衣服洗也无法洗了。

(그 옷은 빨 수도 없게 되었다.)

③ 在门口的玻璃上写四个字。

(입구에 있는 유리 위에 네 글자를 쓰다.)

→ 在门口的玻璃上写着四个字。

(입구에 있는 유리 위에 네 글자가 쓰여 있다.)

예문①은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嗎’를 첨가하여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꾼 것이고, 예문②는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了’를 첨가하여 상황이 변하였음을 표현한 것이며, 예문③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着’를 첨가하여 동작 표현의 문장을 상황 묘사의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들 어기조사와 구조조사는 단어의 뒤에 수반되어 일정한 어법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이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조사 중 일부만 나열하더라도 중국어 문장의 의미 관계에서

90) John L. Saeed, 이상철 역, 『최신 의미론』, 한국문화사, 2004, p.111.

단어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不了(liǎo)’구 전후에 위치하는 성분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분들이 문장의 의미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전후 성분을 크게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不了(liǎo)’의 부대 성분’으로 양분하였다.

## 1. 주어와 목적어

### 가. 주어

邢福義는 주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91)</sup>

주어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명사구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인물을 나타내고, 때로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張老師去閱覽室。(張 선생님께서는 열람실에 가셨다 - 인물) / 閱覽室有很多報刊。(열람실에는 많은 간행물이 있다 - 장소) / 今天是星期日。(오늘은 일요일이다 - 시간)

중국어에서는 인물·동물·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장소·시간·사물·추상적 개념 등 ‘무생물’이 주어가 되기도 한다.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물인 경우 동작 행위가 가능하여 동작의 주체로서 동작 대상에 일정한 영향을 주겠지만, 무생물인 경우는 술어에 의해 묘사되는 대상으로 동작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는 주어로 사용될 것이다. 이처럼 주어와 술어 사이에는 일정한 의미 관계가 존재하는데, 邢福義는 주어의 의미 유형을 다음과 구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어의 의미 유형은 6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① 施事主語: 주어가 事物을 가리키며,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실행한다.

牛吃過草了。(소는 풀을 먹었다.)

91) 邢福義, 『漢語語法三百問』, 商務印書館, 2002, pp.25-26.

大媽在切牛肉。(큰어머니께서는 소고기를 썰고 계신다.)

② 受事主語: 주어가 事物을 가리키며,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받는다.

牛牽走了。(소가 끌려갔다.)

刀子切鈍了。(칼이 무더졌다.)

③ 用事主語: 주어가 事物을 가리키며, 사용에 공급됨을 의미한다.

這把刀子切牛肉。(이 칼로 소고기를 자르다.)

這些土豆燒牛肉。(이 감자들을 소고기와 끓이다.)

④ 于事主語: 주어가 事物을 가리키며, 행위가 발생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刀子上刻着几个小字。(칼에 작은 글자 몇 개가 새겨져 있다.)

土豆里長了好些虫子。(감자에서 벌레가 많이 생겼다.)

⑤ 斷事主語: 주어가 事物을 가리키며, 술어가 단정을 내리는 대상이다.

這個盤子是我的。(이 쟁반은 내 것이다.)

這些土豆有霉味。(이 감자에서 곰팡내가 난다.)

⑥ 描寫主語: 주어가 事物을 가리키며, 술어가 묘사하는 대상이다.

這孩子特別机灵。(이 아이는 유달리 영리하다.)

這把刀子很名貴。(이 칼은 아주 진귀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주어들 중에서 주어와 술어 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施事主語, 受事主語, 用事主語, 于事主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斷事主語’와 ‘描寫主語’의 경우, 술어 이행을 통해 주어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술어가 단지 주어에 대해 묘사와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不了(liǎo)’구가 사용된 문장 중에서 주어와 술어 간 영향을 주고받는 의미 관계가 드러나는 주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각각의 주어가 술어와 어떠한 의미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那位小姐**移动**不了她的床。

(그 아가씨는 자신의 침대를 옮길 수 없다.)

(2) 这个问题我**答复**不了。

(이 문제에 나는 대답할 수 없다.)

(3) 一方水土**养活**不了一方人。

(한 지방의 풍토로 그 지방 사람을 기를 수는 없다.)

(4) 停车场可以放250辆左右的车, 当时没现在这么多, 这么大的车场**满**不了。

(주차장에는 250대 가량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큰 주차장이 가득 찰 수 없었다.)

예문(1)에서 ‘移動’이라는 동작을 실행하여야 하는 술어 이행 주체가 ‘那位小姐’이므로, ‘那位小姐’는 술어 이행을 통해 대상의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대상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施事主語’에 해당하고, 예문(2)에서 문두에 있는 ‘這個問題’는 ‘答复’라는 행위를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這個問題’는 이 문장의 ‘受事主語’로 사용되고 있으며, ‘我答复不了’는 ‘我 | 答复不了’의 주술 관계로 이루어진 술어라 할 수 있다.

예문(3)에서 문두에 위치한 ‘一方水土’는 ‘養活’라는 행위를 하는 데 공급되어 행위를 완성시키는 도구나 수단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用事主語’로 볼 수 있으며, 대상을 처리하는 도구나 수단으로서 행위에 가담하여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문(4)에서 문두에 위치한 ‘停車場’은 동작이나 행위, 상황 등에 의해 ‘滿’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대상인데, 동작이나 행위, 상황 등이 발생하고 가득한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등 모든 상황 진행의 배경이 되고 있으므로 ‘于事主語’라 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행위를 통해 대상에 영향을 주어 변화나 이동을 발생시키는 주어는 施事主語와 用事主語이며, 행위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발생하는 주어는 受事主語와 于事主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施事主語인 경우 주로 생물이 주어가 되고, 受事主語인 경우는 생물과 무생물 모두 주어로 사용 가능하며, 用事主語와 于事主語인 경우 주로 무생물이 주어로 사용되지만 문장에 따라 생물이 이용 대상으로 등장할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윤정은 가능보어에 ‘受事主語’가 자주 등장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수동자의 전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sup>92)</sup>

92) 김윤정, 「가능보어의 수동자 중심 양상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6, pp.50-55.



대부분의 경우 가능보어는 행위자<sup>93)</sup>와 수동자<sup>94)</sup> 모두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가능보어문에는 언제나 이 두 참여자가 출현한다.

(a) 我打破了杯子。 (나는 컵을 깼다.)

(b) 杯子被我弟弟打破了。 (컵은 내 동생에 의해 깨졌다.)

예(a)에서는 주어 ‘我’가 ‘打破’라는 동작을 수행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전반적으로 능동 의미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예(b)의 주어 ‘杯子’는 동작 ‘打破’에 의한 영향을 받는 수동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수동 의미를 띠게 된다.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수동형식보다 능동형식이 더 기본적이라고 여긴다. 인간의 이러한 능동성이 스스로를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사건을 항상 능동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話者が 어떤 사건을 언어로 반영할 때 특별한 의사전달 의도가 없다면 대개는 능동형식을 우선적으로 취하게 된다.

중국어는 어순에 의해 각종 문법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동자가 기본 위치를 벗어나 다른 위치에 출현한다면 이것은 모종의 문법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話者の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这么些饭我三天也吃不了。

(이 밥(음식)들은 내가 사흘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한다.)

这事太难, 我做不了。

(이 일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할 수 없다.)

위의 예문들은 B형 가능보어(‘吃不了’, ‘做不了’)가 출현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들에도 사람지시어와 사물지시어가 모두 출현하지만 사물지시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유형의 가능보어에서 공통적으로 수동자가 행위자에 선행하여 문두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수동자의 전치 현상이 가능보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임을 말해준다.

‘~不了(liǎo)’ 형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受事主語로 구성되는 ‘~不了(liǎo)’ 형식의 예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3) 행위자는 수동자의 상대적 개념인 주동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94) 경험자(Experiencer) 포함

- (7) 每年全国有一半的此类案件**破不了**, 破案率高的地方也不过70%左右。  
 (매년 전국에서 이와 같은 사건의 절반가량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비율이 높은 지역도 7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8) 羊嫩点还好, 老的煮上几个小时也**烂不了**。  
 (양은 부드러우면 몰라도, 늙은 양의 경우 몇 시간을 끓여도 연해지지 않는다.)
- (9) 如果海南岛只引进资金不引进人才就永远**发展不了**。  
 (만약 海南島가 자금만 끌어들이고 인재 영입을 등한시한다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 (10) 实际上, 不少问题用个人品质是**解释不了的**。  
 (사실 적지 않은 문제가 개인의 품성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 (11) 这么油腻的碗, 凉水我可**洗不了**。  
 (이렇게 기름투성이인 그릇을 찬물로 나는 씻지 못한다.)

예문(7)에서 주어 ‘此类案件’은 ‘破案’의 동사 ‘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고, 예문(8)에서 주어 ‘老的(羊)’은 ‘爛’의 상태로 변화해야 하는 대상이며, 예문(9)에서 주어 ‘海南島’가 ‘發展’의 상태로 변화해야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0)에서 주어인 ‘不少問題’는 ‘解釋’라는 행위를 통해 일정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대상이고, 예문(11)에서 주어 ‘油腻的碗’은 ‘洗’라는 행위를 통해 깨끗한 상태로 변화하게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들 모두 술어이행을 통해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受事主語’이다.

사실 가능보어 전체 범위가 아닌 ‘~不了(liǎo)’ 형식만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수동자의 전치 현상이 나타난 문장은 능동자가 주어로 출현한 문장에 비해 훨씬 적었다. 오히려 주어보다는 술어 자체의 의미가 수동문에 어울리는지와 주·객관적 조건의 제약 관계, 그리고 기타 성분과의 의미관계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 나. 목적어

‘~不了(liǎo)’구의 부대 성분에 대해 조사하며, 목적어의 위치에 일반적으로 출현하는 ‘명사성 구’ 외 여러 성분도 모두 목적어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본절에서 그 성분들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CCL검색 결과 중 20회 이상 출현한 ‘~不了(liǎo)’ 문장을 대상으로 목적어 동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不了(liǎo)’구가 ‘是~的’구문에 사용된 경우도 결과에 함께 포함시켜 그 결과를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술어	사용횟수	목적어 동반	술어	사용횟수	목적어 동반
受	1,801	524	忘	1,338	1,066
免	1,042	916	少	827	692
過	440	412	管	387	164
用	368	335	成	303	293
干	271	99	出	258	246
下	253	248	吃	246	96
做	246	173	上	212	98
到	211	184	進	197	188
离	183	132	辦	175	52
死	174	12	活	174	72
帮	159	153	要	140	140
好	139	59	錯	129	1
改	126	41	來	116	21
去	112	38	当	111	99
逃	107	39	開	100	87
回	96	93	差	89	82
治	81	41	賣	64	34
打	57	44	騙	51	48
變	48	10	花	45	41
作	44	40	瞞	44	42
值	43	43	說	40	25
斷	40	29	翻	40	28
誤	34	28	搞	34	16

入	34	32	學	34	19
寫	33	15	占	32	32
丟	31	10	傷	29	28
躲	28	14	拿	28	20
看	28	17	短	27	22
買	27	19	完	27	1
等	26	13	收	24	15
得	23	22	快	23	4
隔	20	20	應付	61	21
產生	59	58	克服	44	12
維持	43	36	形成	37	36
保護	28	19	照顧	28	20
處理	25	1	堅持	23	14

### (가) 명사성 구

‘~不了(liǎo)’의 목적어로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은 ‘명사성 구’이며, 명사, 대체사<sup>95)</sup>, 수량사 등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명사와 대체사, 명사구로 이루어진 목적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2) 他座着人力车两小时还**到不了**学校。

(그는 인력거를 타고 2시간을 달렸지만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다.)

(13) 要注重演员的自我修养, 光有技巧是**成不了**大演员的。

(배우의 자기 수양을 중시해야 한다. 연기만으로는 큰 배우가 될 수 없다.)

(14) 大哥, 我活不长了, 这辈子**报答不了**你, 下一辈子变牛变马都报答你。

(형님, 저는 오래 살지 못 할 겁니다. 현생에서는 형님께 보답할 수 없지만, 다음 생에서는 소가 되든 말이 되든 반드시 형님께 보답하겠습니다.)

(15) 尹小帆说你知道我? 你一辈子也**知道不了**我。

(네가 나에 대해 안다고 尹小帆이 그러던데? 너는 평생을 가도 나에 대해

95) 대체사 중 의문 대체사와 지시 대체사는 항목을 분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가)에서는 인칭 대체사가 단독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만을 소개한다.

알 수 없을 거야.)

(16) 这一段简历**说明不了**罗斯福的内心世界。

(이 약력으로는 루즈벨트의 내면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다.)

(17) 有人把东西送到家里, 她都拿到办公室来, 要么寄回, **寄不了的**比如要烂掉了的东西, 她就把钱寄过去。

(누군가 물건들을 집으로 보내면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반송하든지 부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부패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송금하였다.)

예문(12)와 예문(13)에서는 각각 ‘學校’와 ‘大演員’라는 명사(구)가 목적어로 사용되었고, 예문(14)와 예문(15)에서는 인칭 대체사 ‘你’와 ‘我’가 사용되었다.

예문(16)에서는 ‘羅斯福的内心世界’라는 ‘관형어+명사’의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명사구가 목적어로 사용되었으며, 예문(17)에서는 ‘부칠 수 없는 물건’의 ‘寄不了的東西’에서 ‘東西’를 생략한 대신 구체적인 예인 ‘比如要爛掉了的東西’를 사용하여 수식 관계로 이루어진 명사구가 수반되었으며, 대체로 ‘~不了(liǎo)’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사용된다.

#### (나) 술어성 구

동사나 형용사를 단독으로 목적어 자리에 놓거나 동사구·형용사구를 ‘~不了(liǎo)’구의 목적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술어성 구는 명사성 구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술어성 구로 이루어진 예는 다음과 같다.

(18) 一名十七、八岁的女工**抵挡不了**困乏, 趴在机台上悄然入睡。

(열일곱, 여덟 살쯤 되는 한 여공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받침대에 엎드려 살며시 잠이 들었다.)

(19) 他**短不了**来, 不过没到我们那儿, 我夫妇他不认识。

(그는 오지 않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다. 우리 부부를 그는 알지 못한다.)

(20) 你真挡不了有时候要落泪呢。

(당신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도저히 막지 못 할 때가 있다.)

예문(18)은 ‘피곤하다, 피로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困乏’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고, 예문(19)는 ‘來’라는 동사를 ‘短不了(피할 수 없다)’의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며, 예문(20)은 ‘有時候要落泪(가끔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다)’라는 술목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성분의 조합이 목적어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不了(liǎo)’ 문장의 의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대 성분의 예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 2. ‘~不了(liǎo)’구의 부대 성분

문장 구성의 기본 요소가 되는 ‘주어’와 ‘술어’에 다양한 문장 성분이 앞, 뒤로 더해지면 더욱 명확하고, 풍부한 의미를 담은 문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앞서 ‘~不了(liǎo)’구의 경우, 술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 ‘不了(liǎo)’를 수반할 때 의미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不了(liǎo)’문장의 예를 살펴보면 기타 부대 성분 역시 문장의 의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石毓智는 “동보구의 타동성이 동사나 보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어와 기타 문장성분의 어법적 관계와 동사, 보어 간 통합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sup>96)</sup>”고 설명하고, 아래의 예를 들고 있다.

她哭哑了嗓子。

(그녀는 울다가 목이 쉬었다.)

小孩子哭醒了隔壁的李奶奶。

(아이가 우는 바람에 이웃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가 잠에서 깨셨다.)

96) 石毓智, 『現代漢語語法系統的建立-動補結構的產生及其影響』,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5, p.38.

첫 번째 예문에 사용된 동사 ‘哭(울다)’와 형용사 ‘啞(목이 쉬다)’는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성을 가진 단어들이지만, 두 단어가 통합을 이루게 되면 ‘울다가 (목이) 쉬다’의 의미가 되어 뒤에 목적어 ‘嚙子(목, 목소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두 번째 의 경우에도 동사 ‘哭(울다)’와 ‘醒(잠에서 깨다)’은 각각 자동사이지만, 통합을 이루게 되면 ‘哭醒(울음이 계속된 결과 깨어나다)’의 의미가 되어 잠에서 깨는 대상(李奶奶)을 뒤에 놓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특정 성분이나 단어 간의 통합이 문장 전체의 의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不了(liǎo)’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不了(liǎo)’구를 사용한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부대 성분 중 술어의 앞에 놓이는 부사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 가. 부사어

‘~不了(liǎo)’구는 일반적으로 문장 전후에 불가능의 원인을 나타내는 구나 문장이 동반되지만, 전후 설명 없이 한 문장 안에 있는 부사어만으로 불가능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장들도 자주 볼 수 있다. 부사가 단독으로 부사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성분과 통합된 형태로 부사어가 되어 ‘~不了(liǎo)’구를 수식하기도 하는데, 본 절에서는 부사가 단독으로 부사어 역할을 하는 예와 다른 성분과 부사어를 이루어 ‘~不了(liǎo)’구를 수식하는 예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어 부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何永清은 부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sup>97)</sup>

부사의 종류		예
評注 <sup>98)</sup> 性副詞(추정을 나타내는 부사)		畢竟 簡直 也許 顯然 似乎 仿佛 恐怕 索性
限制性副詞 (제한을 나타내는)	關聯(어기)副詞	却 才 又 還 再 也 就 便
	時間(시간)副詞	馬上 立刻 永遠 已經 忽然 仍然 終于 后來
	頻率(빈도)副詞	頻頻 往往 漸漸 常常 時時 經常 逐漸 偶爾
	範圍(범위)副詞	都 全 只 唯獨 僅僅 單單 統統 一律
	程度(정도)副詞	很 更 最 略 極 非常 稍微 極其 特別

97) 表示然否的副詞(何永清, 『現代漢語語法新探』, 台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2008, pp. 78).

부사)	否定(부정)副詞	不 沒 別 未 休 甬 勿 莫 沒有 不必
	協同(협동)副詞 <sup>99)</sup>	一起 一道 一同 一塊儿 一齊 一并 一總 共同
	重複(반복)副詞	再 又 重 一再 再三 再度 從新 重新
描摹性副詞(양태를 나타내는 부사)		全力 竭力 親自 徒步 隨手 偷偷 悄悄 迥然

‘~不了(liǎo)’ 형식의 문장에서는 이들 부사만으로 ‘~不了(liǎo)’구가 나타내는 불가능의 원인을 짐작할 수도 있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21) 你的大恩大德，终究**报答**不了。

(당신의 크나큰 은덕은 결코 다 갚을 수 없을 겁니다.)

(22) 尽管攻击力世界首屈一指，可始终**跨越**不了稳定性这道难关。

(비록 공격력은 세계에서 으뜸이라 할지라도 안정성이라는 이 어려운 난관을 줄곧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23) 婆婆尽管通情达理，大伯子这么个情况终归让人**受**不了。

(시어머니께서 비록 사리에 아주 밝은 분이시지만, 시아주버님의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람을 참을 수 없게 한다.)

(24) 我们的改革措施出台，总是**摆脱**不了过去搞政治运动的毛病。

(우리의 개혁 조치가 실시되어도 좀처럼 과거 정치 운동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시간과 관련된 부사<sup>100)</sup>가 ‘~不了(liǎo)’구 앞에 놓인 경우로, 예문(21)은 ‘終究(결국, 필경)’라는 부사가 ‘~不了(liǎo)’구를 수식하여 술어 이행 주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즉, 술어 이행 주체의 역량에 비해 훨씬 초과된 객관적 조건이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문(22)는 부사 ‘始終(한결같이, 줄곧)’을 통해 술어 이행 주체의 한계 즉, 안

98) 評注: ‘평론과 주석을 달다’의 의미이지만, 한국의 어법서에서는 어기부사에 포함하거나 추정부사로 분리하기도 함.

99) 한국에서 출판된 어법책에서는 대부분 범위 부사에 포함하고 있음.

100) 어법책마다 분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미를 기준으로 추정을 나타내는 부사를 어기부사에, 반복부사를 빈도 부사에, 협동부사를 범위 부사에 포함시킴.



정성을 갖출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거나 술어 이행 주체의 특성이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문(23)은 부사 ‘終歸(결국에는, 어쨌든)’를 통해 술어 이행 주체가 보이는 인내심의 한계와 정도를 넘어서는 시아주버님의 상황이 동시에 작용하여 불가능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24)는 부사 ‘總是(항상, 언제나)’를 통해 개혁 조치 실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과거 정치 운동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예문에 사용된 부사어는 다른 형식의 문장에서도 긍정문과 부정문을 가리지 않고 자주 사용되지만, ‘~不了(liǎo)’ 앞에 놓여 술어를 수식할 때는 술어가 놓인 조건의 범위나 영향력을 강조하여 술어 이행 주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살려 주는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25) 现在很多人意识到仅仅靠救济绝对**改变不了**落后面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제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낙후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27) 乐观的前景, 毕竟**代替不了**严峻的现实。

(낙관적인 전망은 결국 가혹한 현실을 대신할 수 없다.)

(27) 这件事根本**影响不了**她们。

(이 일은 그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28) 我给你好好藏起, 一定**丢不了**, 你啥辰光要, 就啥辰光给你。

(내가 너 대신 잘 숨겨둬서 잃어버릴 리 없어, 네가 원할 때 너에게 줄게.)

위의 예문들은 어기부사가 ‘~不了(liǎo)’구 앞에 놓인 경우로, 예문(25)는 부사 ‘絕對(절대로, 완전히)’를 통해 ‘구제’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고, 예문(26)은 부사 ‘畢竟(결국, 드디어)’를 통해 현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27)에는 부정문에 자주 사용되는 부사 ‘根本(아예, 도무지)’이 ‘~不了(liǎo)’구의 앞에 놓여 술어 이행의 대상이 매우 확고한 상태임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예문(28)은 부사 ‘一定(반드시, 분명히)’를 통해 안전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부사는 모두 話者의 확신을 드러냄과 동시에 상태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여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부사를 통해 話者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9) 她又是個太軟弱的人，從來就**抵禦**不了孤獨的誘惑。

(그녀는 또한 너무나 약한 사람이라 여태껏 고독의 유혹을 막지 못했다.)

(30) 你任何反抗，不管用什麼方式去反抗，你最後都**逃脫**不了悲劇的結局。

(네가 무슨 수를 써서 어떤 반항을 해도 너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31) 您老對抱石的恩德我們來生也**報答**不了。請受我夫妻三拜。

(당신께서 抱石에게 베풀어주신 은덕은 다음 생에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의 삼배를 받아주십시오.)

(32) 謝謝你，我這一輩子也**忘記**不了你待我的好處。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주신 도움을 평생 잊지 못 할 것입니다.)

예문(29)는 ‘從來(지금까지, 여태껏)’라는 부사에 ‘원래 또는 진작부터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 ‘就(본래, 원래)’가 수반되어 그녀의 천성 자체가 그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문(30)부터 예문(32)까지는 ‘명사+부사’의 조합이 부사어로 동반되는 경우의 예로, 각각 ‘最後·來生·一輩子’라는 명사에 어기부사 ‘也’와 범위부사 ‘都’가 첨가되어 뒤에 부정어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언제까지나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정해진 비극적 결말’,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대단히 값진 도움’이라는 사용 환경을 추측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도 부사어와 ‘~不了(liǎo)’구의 조합만으로 듣는 사람이 위 조건들과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不了(liǎo)’구가 내포하는 ‘술어 이행 주체는 실현시키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부사어와 함께 쓰이면서 긴 설명 없이도 더욱 절박한 감정을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

## 나. 부대 성분

### (가) 수량성분

‘~不了(liǎo)’구를 이용한 문장을 살펴다 보면, ‘수량성분’이 ‘~不了(liǎo)’구의 뒤에 목적어로 출현하여 술어 이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수량성분이 ‘~不了(liǎo)’구의 목적어로 오는 예는 다음과 같다.

(33) 妈妈，这间屋子住不了三个人。

(엄마, 이 집에서 세 사람이 다 살 수는 없어요.)

(34) 好一点的花布四块钱还扯不了一米呢。

(조금 낫다 싶은 꽃무늬 천은 4위안으로 1미터도 살 수 없다.)

(35) 一年内挣不了二千元，一辈子不再开理发店。

(일 년 동안 2천 위안도 벌 수 없으면 평생 다시는 이발소를 열지 않을 것이다.)

(36) 局面维持不了3个月。

(국면이 3개월도 채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예문(33)에서는 ‘住不了’의 뒤에 ‘三个人’이 수반되면서 살 수 없는 원인이 ‘세 사람을 수용하지 만큼 좁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문(34)의 경우, ‘扯不了’의 뒤에 ‘一米’가 수반되면서 ‘4위안이라는 돈이 1미터의 꽃무늬 천을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35)에서는 ‘挣不了’의 뒤에 ‘二千元’이 오면서 ‘수입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예문(36)의 경우, ‘3个月’이라는 시간이 ‘維持’의 상태 지속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數詞와 量詞가 통합된 형태로 목적어 뒤에 동반되어 ‘술어가 이행되거나 이행·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을 나타내는데, ‘~不了(liǎo)’ 뒤에 위치한 수량 성분은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하여 술어 이행이 완료·완성에 이를 수 없거나 술어 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표현에

자주 사용된다.

만약 수량성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데, 이것으로 수량성분이 단순히 동작이나 상태의 진행 시간이나 대상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술어의 의미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의문 대체사+형용사/명사’

‘你學習多長時間?’과 같이 의문문에 의문 대체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때의 의문 대체사는 話者が 알고자하는 대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역할을 할 뿐 정도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의문 대체사가 평서문의 목적어로 이용될 때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알아보자.

何永清은 의문 대체사의 종류와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sup>101)</sup>

사람·사물: 誰, 哪, 什麼 -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장소: 哪兒, 哪裏 - 관형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시간: 哪會兒, 多會兒, 多早晚 - 부사어, 주어, 목적어, 관형어  
성질, 상태, 행동방식: 怎麼, 怎麼樣, 怎樣  
- 술어, 관형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수량: 多, 多少, 几 - 관형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정도: 多 - 부사어

‘~不了(liǎo)’구의 뒤에 의문 대체사 ‘多’와 형용사가 조합을 이루어 목적어의 위치에 오게 되면 ‘정도가 미약함’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7) 没有光我们走不了多远。

(빛이 없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한다.)

101) 何永清, 『現代漢語語法新探』, 台湾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2008, p.76.

(38) 只要太阳还没下山, 你还可以继续往前走; 但你再逃也**逃不了**多远。

(아직 해만 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계속 앞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더 도망가 봐야 얼마 갈 수 없을 겁니다.)

(39) 如果我老是为这些事操心, 我将**支撑不了**多久。

(만약 내가 계속 이 일들로 마음을 졸인다면 나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40) 在现代科学技术培育下, 也许**用不了**多久, 用单细胞蛋白制成的饭菜, 就会出现在你家的餐桌上。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아마도 머지않아 단세포 단백질로 만든 음식이 당신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CCL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결과 ‘~不了(liǎo)’구가 ‘多+형용사’만을 목적으로 취해 ‘정도가 미약함’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형용사는 위에서 소개한 ‘遠, 久’ 뿐이었지만, 사용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문(37)과 예문(38)은 ‘多遠’을 통해 갈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을 나타내고, 예문(39)은 ‘多久’를 버티기는 하겠으나 그 시간이 매우 짧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예문(40)은 부사 ‘多久’가 오래 걸리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예문(39)과 같지만, ‘用’이라는 동사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는 다르게 의문 대체사가 명사(중심 목적어)를 동반하여 ‘의문 대체사+양사+명사’의 구조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의문 대체사 혹은 ‘의문 대체사+양사+명사’의 조합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 ‘~不了(liǎo)’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41) 我在家种地, 一年也**赚不了**几个钱, 去广州打工比在家里强, 还可以互相照顾。

(내가 집에서 농사를 지어도 일 년에 몇 푼 벌지 못한다. 광저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집에서보다 낮고, 또 서로 살펴줄 수도 있다.)

(42) 痛苦也痛苦不了几天了。

(괴로움도 며칠 가지 않을 것이다.)

(43) 投诉后, 情况也好不了多少。

(소송 후에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는다.)

(44) 这么窄窄的一根简牍上书写不了多少文字。

(이렇게 좁은 서간 하나에는 몇 자 적지 못한다.)

(45) 我们国家每年财政收入的增量即使全部补给农民, 也不过人均30元左右, 解决不了多大问题。

(우리나라에서 매년 재정 소득 증가분을 모두 농민들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일인당 30위안 정도밖에는 돌아가지 않아 고작 몇 가지 문제 밖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46) 这时的幼苗不是绿色的, 而是白色的, 这种白色的幼苗生长不了多长时间就死掉了。

(이 시기의 새싹은 녹색이 아니라 흰색인데, 이 하얀 새싹은 자라면서 얼마 안 되어 죽고 만다.)

(47) 每月60元的费用对她们来说根本算不了什么。

(매월 60위안이라는 비용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48) 他为自己定的工资是800来元一个月, 基本上存不了什么钱。

(그가 자신을 위해 정한 임금은 한 달에 800원 가량으로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문(41)은 ‘의문 대체사+양사+명사’가 사용된 예문으로 ‘几个錢’은 ‘~不了(liǎo)’구 뒤에 놓여 ‘몇 푼도 벌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42)는 ‘의문 대체사+차용양사<sup>102)</sup>’ 구조인 ‘几天’이 ‘~不了(liǎo)’구 뒤에 놓여 ‘단지 며칠 동안만 괴로울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43)과 예문(44)는 의문 대체사 ‘多少(+명사)’를 이용하여 정도가 매우 낮음을 나타내는데, 예문(43)의 경우 ‘나아진 것이 없거나 매우 조금 나아졌음’을

102) 차용양사: 사물이나 인체, 시간 등을 나타내는 명사를 잠시 차용하여 양사로 사용한 경우를 일컫는다.

나타내고, 예문(44)에서는 ‘多少文字’를 통해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45)와 예문(46)은 ‘의문 대체사 多+형용사+명사’의 조합이 목적어 위치에 놓이는 경우의 예로, 각각 ‘多大·多長’의 뒤에 명사가 수반되어 ‘매우 낮은 정도’를 표시하는데, 예문(45)에서는 ‘多大問題’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예문(46)에서는 ‘多長時間’을 사용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47)과 (48)은 의문 대체사 ‘什麼’를 ‘아무런, 무엇이든’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각각 ‘대단한 것으로 치지 않는다’와 ‘저축할 돈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의문 대체사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성분과 구를 형성하여 ‘~不了(liǎo)’ 형식의 목적어로 쓰이게 되면 ‘술어 이행은 가능하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함’을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문 대체사가 의문문에 사용되어 질문의 핵심으로 작용할 때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지시 대체사+형용사/명사’

‘~不了(liǎo)’구의 뒤에 지시 대체사가 양사와 함께 중심 목적어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성질이나 상태의 정도 표현에 사용되는 지시 대체사 ‘這麼/那麼/這樣…’ 등이 형용사 혹은 명사와 함께 수반되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시 대체사의 종류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何永清은 다음과 같이 지시 대체사를 구분하고 있다.<sup>103)</sup>

사람·사물: 這, 那 -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장소: 這兒, 這里, 那兒, 那里 - 관형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103) 何永清, 『現代漢語語法新探』, 台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2008, p.76

시간: 這會兒 那會兒 - 부사어, 주어, 목적어, 관형어

성질, 상태, 행동방식: 這麼, 這樣, 這麼樣, 那麼, 那樣, 那麼樣

- 술어, 관형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수량: 這麼些, 那麼些 - 관형어, 부사어, 주어, 목적어

정도: 這麼, 那麼 - 부사어

아래의 예문은 지시 대체사 ‘這·那’와 양사의 조합이 목적어 위치에 오는 경우로, 각각 ‘這些·這個·那次·那種’과 같이 ‘지시 대체사+양사’ 혹은 ‘지시 대체사+양사+명사’의 구조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

(49) 不过布什看来已**顾不了**这些。

(하지만 부시는 이미 이런 것들을 돌볼 겨를이 없어 보인다.)

(50) 可是**窦太后**跟**汉桓帝**一样相信**宦官**, 怎么也**下不了**这个决心。

(그러나 **窦太后**는 **汉桓帝**와 같이 환관을 믿었으므로 도저히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51) 我至今都**忘不了**那次的经历。

(나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

(52) 此篇开一个头, 写不下去, 原因实在是因为他**搜肠刮肚**觉得自身实在**无禅**, **进入不了**那种境界。

(이 글의 첫머리를 떼고는 계속 써 내려갈 수 없었는데, 그 원인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자신에게는 ‘**禪**’이라는 것이 없어 그 경지에 돌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의 구조만을 따졌을 때는 예문(33)부터 예문(36)의 ‘수사+양사(+명사)’의 조합과 일치하지만, 의미를 따져보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양사(+명사)’의 조합이 ‘실행되거나 실행 가능성은 있으나 그 정도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면, 지시 대체사 ‘這, 那’와 양사의 조합은 ‘(지시 대체사로 한정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술어 이행이 전혀 불가능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49)는 사람·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체사 ‘這些’가 단독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며 ‘이것들을 돌볼 수 없음’을 나타내고, 예문(50)은 사람·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체사 ‘這+양사+명사’가 구를 형성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없음’을 나타낸다.

예문(51)과 예문(52)는 사람·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체사 ‘那+(동)량사+명사’가 구를 형성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며, 각각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음’과 ‘그런 경지에 들 수 없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은 지시 대체사와 형용사가 함께 사용된 경우로, 일반적으로 술어 이행 주체의 역량 부족이 불가능의 전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53) 手术之后, 医生叫我进去, 告诉我说, 她撑不下去了, 她的**心脏负荷不了**这么多。

(수술 후 의사는 나를 불러 그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그녀의 심장은 이 정도의 부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54) 一头母牛可**产生不了**这么多的东西!

(암소 한 마리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55) 我根本**拿不了**这么重的东西。

(저는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어요.)

(56) 一个人的**资金和能力都有限, 办不了**这样大的事。

(한 사람의 자금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없다.)

(57) 现在只杀两个**起不了**那么大作用了, 要多杀几个, 这才能真正表现我们的决心。

(지금 겨우 두 명을 죽여서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몇 명을 더 죽여야만 우리의 결심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지요.)

(58) 我的家人还未到齐, 他们老的老、小的小, 行李又多, 一时**走不了**那么快……。

(우리 가족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어요. 노인은 너무 늙고, 아이는 너무 어리고, 짐도 많아서 당장은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없어요.)

위의 예문들은 ‘這麼/那麼/這樣+형용사’의 구조가 보어로 사용되거나 ‘這麼/那麼/這樣+형용사+명사’의 구조가 목적어로 사용된 것으로, ‘這麼/那麼’가 기준이 되어 대상의 상황이나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53)부터 예문(56)까지는 각각 ‘이렇게 큰 부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없다’,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없다’,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這麼/這樣’은 일반적으로 話者와 聽者 사이에 확인이 가능하거나 兩者 간 그 정도가 인지되어 있는 상태일 때가 많다.

예문(57)과 예문(58)은 각각 ‘그렇게 큰 작용을 할 수 없다’와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 예문에서 사용된 ‘那麼’는 위에 사용된 ‘這麼’와 달리 話者와 聽者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막연한 정도인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這麼/那麼/這樣’ 등의 지시 대체사는 정도의 기준 역할을 하는데, 이때 술어 이행을 통해 처리해야 할 대상은 대체로 술어 이행 주체가 가진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한 정도를 나타낸다.

#### (라) 정도를 표시하는 구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형용사구 혹은 명사구이지만 ‘~不了(liǎo)’ 형식의 뒤에 놓이면서 그 정도가 높지 않을 것임을 표현하는 부분 부정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59) 在如今的国际形势下, 采用这种办法只能保护一时, **保护不了**长久。

(오늘날과 같은 국제 형세에서 이러한 방법을 쓰면 잠시는 보호가 되겠지만 오랫동안 보호할 수는 없다.)

(60) 我详细告诉你吧, **用不了**很长时间。

(내가 상세하게 알려주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61) 由于情况危急, 我们**顾不了**太多, 只管下海去救他们。

(상황이 다급하니 우리는 많은 것을 살필 수 없다. 물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구하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

(62) 大家**顧不了**許多，爭先恐後地跳入冰冷的海水。

(사람들은 여러 생각할 것 없이 앞 다투어 차디찬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

(63) 造每箱5元的“三精水”，又要送貨上門，細一算也**賺不了**太多錢。

(한 상자에 5위안인 ‘三精水’를 만들고 배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계산해보면 그리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한다.)

(64) 他的泥腿向來就**跑不了**很快，這天又忘了帶着手杖。

(그의 흙투성이 발은 여태까지 그리 빨리 달릴 수 없었는데, 오늘은 또 지팡이마저 들고 오는 걸 잊어버렸다.)

(65) 周炳知道她的脾氣變幻無常，好也**好不了**好久，惱也**惱不了**好久的。

(周炳은 그녀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안다. 좋아도 얼마 못 가고 화를 내도 얼마 가지 않는다.)

(66) 但有了錢却没有技術、才智、抱負和覺悟也**成不了**大氣候。

(그러나 돈이 있어도 기술과 재능, 포부, 각오가 없다면 대성할 수는 없다.)

예문(59)와 예문(60)은 각각 ‘긴 시간’을 나타내는 형용사 ‘長久’와 명사구 ‘很長時間’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는데, 앞에 놓인 ‘保護不了(보호할 수 없다)’와 ‘用不了(필요하지 않다)’와 함께 사용되면서 오히려 술어 이행 시간이 짧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부분 부정의 의미가 적용되어 예문(59)은 ‘오래 보호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60)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61)과 예문(62), 예문(63)은 ‘많은 양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구 ‘太多’, ‘許多’와 명사구(太多錢)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顧不了(돌볼 수 없다)’와 ‘賺不了(돈을 벌 수 없다)’와 함께 놓일 때, 부분 부정의 의미가 적용되어 예문(61)과 예문(62)은 ‘그리 많은 것을 돌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63)은 ‘그리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64)에 사용된 ‘很快’ 역시 ‘跑不了(달릴 수 없다)’와 함께 놓여 부분 부정의 의미가 적용되어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예문(65)의 ‘好久’ 역시 ‘好不了(좋지 못하다)’, ‘惱不了(화낼 수 없다)’와 함께 사용되

어 ‘좋아도 얼마 못 가고 화를 내도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66)의 경우, 명사 앞에 ‘대단한, 훌륭한, 큰’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大’를 놓아 정도를 표현하였는데, 대단한 인물을 하나의 목표 대상으로 보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술어가 이행되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형용사구나 명사구만을 해석하면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不了(liǎo)’ 형식의 뒤에 수반되면 상반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不了(liǎo)’의 의미적 역할에서 예로 들었던 정도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형용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不了(liǎo)’구는 앞·뒤 부대 성분의 영향을 받아 술어 사용 환경을 암시하거나, 술어 이행 범위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비교적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 불가능한 원인과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부사어, 수량성분 등이 다른 형식의 문장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지만, ‘~不了(liǎo)’는 그 부대 성분들과 함께 사용될 때 더욱 분명한 의미와 생생한 감정 색채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부대 성분이 ‘不了(liǎo)’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結論

본 논문은 ‘~不了(liǎo)’ 형식이 사용되는 언어 환경 및 사용 조건과 사용상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보어·방향보어를 수반하는 가능보어 형식은 동사구 또는 형용사구 등으로 구성되어 보어구가 나타내는 의미도 전체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비해 ‘~不了(liǎo)’ 형식의 경우에는 ‘了(liǎo)’가 ‘완결되다. 끝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어구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 가능보어의 한 형식인 ‘~不了(liǎo)’는 널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언어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설명만 있을 뿐, 그 사용 환경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不了(liǎo)’구가 사용되는 환경과 사용상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不了(liǎo)’구를 이용한 문장을 더욱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의 語料庫(CCL)를 비롯해 신문기사와 어법서, 논문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는 크게 ‘주관적 조건의 작용’과 ‘객관적 조건의 작용’, ‘주·객관적 조건의 동시 작용’일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조건이란, ‘술어 이행을 하는데 제공되거나 혹은 술어 이행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을 위해 제공된 환경이나 술어 이행의 대상이 술어 이행 주체가 가진 능력이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환경이나 대상일 때 사용되며, ‘다 ~하지 못하다’로 해석 가능하다. 대체로 수량이나 정도와 관련된 문장으로, 이때 등장하는 대상이나 환경은 매우 큰 규모나 높은 정도임이 드러나는 단어이거나 話者와 聽者 간 확인 혹은 인지된 상태의 일정 수량이나 정도를 포함하는 단어이다.

이 경우의 ‘了(liǎo)’는 완료·완성을 표시하지만, 경우에 따라 ‘了(liǎo)’를 ‘完’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문장 성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不能~’로 대체할 경우, 원래 문장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不了(liǎo)’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경우, 대상의 상태나 선행조건  
의 종결 여부 등 상황의 영향을 받는대거나 대상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 또는  
보편적 인식이나 인정, 허가 등 의식의 작용에 의한 원인 등이 술어 이행을 막는  
환경으로 작용하며, ‘~할 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조동사 ‘不能~’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한 결과 話者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경우에는 대체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③ ‘不了(liǎo)’가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을  
위해 제공되는 환경이나 술어 이행의 대상이 술어 이행을 할 수 있는 최소 조건  
만을 갖추었을 뿐, 술어 이행의 정도나 결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특징이 있다. ‘了  
(liǎo)’를 ‘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술어는 이행·실현되거나 이행·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얼마 ~지 못하다’ 등의 해석이 가능하다. ‘了(liǎo)’ 대신 방향동사 ‘上,  
下’ 등과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不能~’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조건이란, ‘술어 이행 주체와 관련된 내적 조건’을 가리키며,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 주체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나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조건 등이 술어 이행을 완료나 완성으  
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며, 객관적 조건에서와 같이 ‘다 ~할 수 없  
다’로 해석할 수 있다. 수량만을 포함하는 환경일 경우는 대체로 ‘了(liǎo)’를 ‘完’  
과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정도나 범위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바꾸어 쓸 수 없  
다.

술어 이행 주체의 조건을 기준으로 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체로 문장 안에 명  
확한 수량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② ‘不了(liǎo)’가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 주체가 자신  
의 신체·심리적 상태를 통제하지 못하여 술어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술  
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능력이 부족하여 술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술어 이행  
주체가 태생적으로, 혹은 성장 과정에서 구비하게 된 개별적 특성이 술어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객관적 조건에서와 같이 ‘~할 수 없  
다’로 해석 가능하며, 주관적 조건이 불가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

는 술어 이행 주체에 변화가 생길 경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 조건과 차이가 있고, 대체로 ‘不能~’로 대체가 가능하다.

③ ‘不了(liǎo)’가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 주체가 구비한 능력, 신체·심리적 조건 등이 술어 이행의 최소 조건만을 갖추었다는 점이 객관적 조건과 다를 뿐, 술어 이행의 정도나 결과가 매우 미미하며, ‘了(liǎo)’를 ‘完’으로 대체할 수 없고, 술어는 이행되거나 이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객관적 조건에서와 일치한다. ‘~不了(liǎo)’구 뒤에 수량성분 등이 놓이면 ‘不能~’로 대체할 수 없다.

셋째, 주·객관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란, 술어 이행 주체가 가진 조건과 술어 이행의 환경이나 대상이 주는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여 술어 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가리키며, 이 조건에서도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표시하는 경우, 술어의 부분적인 이행·실현을 표시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으며, 주관적 조건이 개선되면 술어 이행의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사용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총 351개의 예문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는데, 사용 환경에 따른 예문의 사용 현황을 아래 <표 2>로 작성하였다.

조건 구분	‘不了(liǎo)’	출현 횟수	백분율(%)
객관적 조건	未完了·未完成 표시	19	5.4
	술어 이행의 불가능	136	38.7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18	5.1
주관적 조건	未完了·未完成 표시	26	7.4
	술어 이행의 불가능	93	26.5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33	9.4
주·객관적 조건의 동시 작용	未完了·未完成 표시	9	2.6
	술어 이행의 불가능	8	2.2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9	3.6

<표 2>를 통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 모두 ‘~不了(liǎo)’ 형식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지만, 공통적으로 ‘不了(liǎo)’가 未完了·未完成을 나타내는 경우에 비해 술어 이행의 불가능을 나타내는 경우의 출현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조건 중 ‘상황의 영향’이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총 79회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여 ‘~不了(liǎo)’ 형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환경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조건 중 ‘능력의 한계’가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총 42회로 전체의 12%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객관적 조건 중 ‘의식의 작용’이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총 32회로 전체의 9.1%를, 주관적 조건 중 ‘개별적 특성’이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총 30회로 전체의 8.5%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는데, 의식의 작용인 경우 ‘作不了主’ 등의 관용적 표현이 5회 이상 출현하였으므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개별적 특성과 비슷한 사용 빈도일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不了(liǎo)’ 형식의 전후에 위치하는 성분들이 문장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不了(liǎo)’ 형식을 사용하는 문장의 경우, 주어는 문장 내 의미관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중심 술어로 사용된 동사나 형용사 자체의 의미가 수동문에 어울리는지와 주·객관적 조건의 제약 관계, 그리고 기타 성분과의 의미관계는 문장 전체의 의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不了(liǎo)’구 앞에 놓이는 부사어의 경우, 주·객관적 조건을 강조하여 다른 설명 없이도 부사어만으로 불가능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不了(liǎo)’구의 뒤에는 ‘명사성/술어성 구’ 외 여러 성분이 부대 성분으로 올 수 있는데, 첫째로 ‘수량사구’가 ‘~不了(liǎo)’구의 뒤에 출현하여 술어 이행의 범위를 제한한다. 둘째 ‘의문 대체사(+형용사/명사)’의 조합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가 미약함’을 나타낸다. 셋째 ‘지시 대체사+(형용사/명사)’가 놓여 ‘도저히 따라잡지 못 할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술어 이행 주체의 역량 부족이 불가능의 전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구가 ‘~不了(liǎo)’구의 목적어로 사용되어 ‘정도의 미약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不了(liǎo)’구는 앞·뒤 부대 성분의 영향을 받아 술어 사용 환경을 암시하거나, 술어 이행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통해 비교적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 불가능의 원인과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不了(liǎo)’구문의 이해를 통해 언어 환경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그 원인을 고찰하여 문장 사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 사용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不了(liǎo)’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평소 궁금하던 ‘不了(liǎo)’의 사용 환경에 대한 초보적인 구분은 이루어졌다고 본다. 앞으로 문학작품이나 신문 기사 등 보다 체계적인 예문 수집을 통해 ‘不了(liǎo)’의 사용 환경과 ‘不了(liǎo)’의 역할에 대한 보충 연구를 해 나가 고자 한다.

## 【參考文獻】

\*\* 本稿에서 참고한 文獻은 發刊시기와 關係없이 筆者가 열람한 책의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각 분야별로 분류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음.

### 【사전 및 단행본】

丁聲樹 等, 『現代漢語語法講話』, 上海, 商務印書館, 1961.

孟琮·鄭懷德·孟慶海·蔡文蘭, 『動詞用法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4.

劉月華外二人著, 尹和重·朴靚植·李陸禾·吳憲必共譯,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대사전편집실, 『中韓辭典』,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0.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0.

相原茂·石田知子·戶沼市子, 박귀진·민병석 譯, 『중국어문법책』, 시사중국어문화원, 2001.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北京, 商務印書館, 2001.

中國社會科學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2002年增補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2.

陳亞川·鄭懿德著, 『呂叔湘著《漢語語法分析問題》助讀』, 語文出版社, 2002.

邢福義, 『漢語語法三百問』, 北京, 商務印書館, 2002.

亢世勇·劉海潤等, 『新詞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2003.

曲 僞·韓明安, 『當代漢語新詞詞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4.

馬慶株,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周 荐, 『漢語詞匯結構論』, 上海辭書出版社, 2004.

侯學超, 『現代漢語虛詞詞典』, 北京大學出版社, 2004.

John L. Saeed, 이상철 譯, 『최신 의미론』, 한국문화사, 2004.

石毓智, 『現代漢語語法系統的建立-動補結構的產生及其影響』, 北京, 北京語言大學

- 出版社, 2005.
- 劉 順, 『現代漢語語法的多維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 최병덕, 『현대중국어어법』, 학고방, 2005.
- 屈承熹 著, 潘文國 等 譯, 『漢語篇章語法』,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06.
- 房玉清,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范 曉 著, 김난미, 김정은, 김진아, 서희명 譯, 『三个平面的語法觀』, 차이나하우스, 2007.
- 宋永圭, 『現代漢語情態動詞否定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 上海, 商務印書館, 2007.
- 朱德熙,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2007.
- 何永清, 『現代漢語語法新探』, 台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2008.
- 北京大學中文系, 김애영·김현철·소은희·심소희 譯, 『現代漢語(현대중국어의 이해)』, 차이나하우스, 2009.
- Gunter Radden·Rene Dirven, 임지룡·윤희수 옮김, 『인지문법론』, 도서출판박이정, 2009.
- 黃宣範, 『漢語語法』, 文鶴出版有限公司, 2012

## 【논문류】

(학위논문)

- 김윤정, 「가능보어의 수동자 중심 양상 의미에 대한 인지적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6.
- 趙福龍, 「能性述補結構“V不了”研究」, 延邊大學碩士論文, 2007.
- 朴貞姬, 「韓漢能性結構及相關問題對比研究」, 清華大學碩士論文, 2008.
- 孫姪愛, 「現代漢語可能補語研究」, 北京語言大學博士論文, 2009.

- 張 婉, 「能性述補結構“V得/不了”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論文, 2009.
- 陸 意, 「“V不了”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論文, 2010.
- 李紅艷, 「“V不了”格式考察」, 廣西師範大學碩士論文, 2011.
- 駱莉萍, 「現代漢語的可能補語與“可能”意義」, 蘇州大學碩士論文, 2012.
- 潘 璇, 「可能補語的對外漢語教學研究」, 湖南師範大學碩士論文, 2012.
- 許 帥, 「漢語否定式能性表達結構研究」, 青島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劉慧芳, 「“能/不能+V(C)”與“V+可能補語”的語義用法差異及相關教學研究」, 中央民族大學碩士論文, 2013.

(일반논문)

- 郭志良, 「可能補語“了”的使用範圍」, 『語言教學與研究』1期, 語言教學與研究編輯部, 1980.
- 양희석, 「중국어 보어 발전 - 원곡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3권, 중국인문학회, 1984.
- 고후원, 「현대중국어의 ‘동+보’관계(1)－현행대학교재에 나타난 문장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第17集, 한국중어중문학회, 1990.
- 劉月華, 「可能補語用法的研究」,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 丁聲樹·呂叔湘·李榮 等, 「補語(節選)」,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 揚建國, 「補語式發展試探」,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2.
- 沈家煊, 「‘語法化’研究綜觀」, 『外語教學與研究』第4期,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94.
- 이우철, 「현대중국어 “V得/不C”구조 연구」, 『中語中文學』第27集, 한국중어중문학회, 2000.
- 郝 維, 「補語的可能式研究綜述」, 『漢語學習』第3期, 上海辭書出版社, 2001.
- 李 艷, 「“V不下”與“V不了”句法語義語用對比探析」, 『常熟理工學院學報』2005年第3期, 常熟理工學院學報編輯部, 2005.
- 윤유정, 「현대중국어에서 ‘得’자의 어법화 현상 고찰」, 『中國語文學論集』, 제41호,

-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 송영규, 「否定式 可能補語와 情態動詞 否定式の 比較研究 初探」, 『중국어문논역  
총간』,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
- 이금희, 「“能/不能VC”와 “V得/不C”구조의 의미분석」, 『中國語文學論集』, 제4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 杉村博文, 「可能補語的語義分析－從漢日語對比的角度」, 『世界漢語教學』, 2010年02  
期, 世界漢語教學學會, 2010.
- 김민선, 「‘吃不了’의 사용 환경과 의미 고찰」, 『인문학연구』, 제14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부 록 1】

※ 본고는 본문에 언급한 예문 외에도 다수의 예문을 참고하였으며, 본고에서 사용 환경을 구분하는 데 사용된 예문은 아래와 같다.

### 1. 객관적 조건의 작용

####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 (1)这么多菜, 我吃不了。
- (2)这个损失, 我文杰堂就是死100次也挽回不了!
- (3)一匹马可载不了全部的人哪!
- (4)一头母牛可产生不了这么多的东西!
- (5)虽然克雷姆斯的大病院和住房都已变成军医院, 但是仍然容纳不了全部伤病员。
- (6)到了家里, 又是大鱼大肉, 吃不完, 用不尽, 有时候那几台冰箱冰柜装不了, 送人又怕影响, 不得不半夜里起来拿出去扔掉。
- (7)国有企业与专业银行之间的债务问题, 是多年来实行旧体制积累下来的问题, 原因在于计划经济体制本身, 企业与银行都承担不了全部责任, 国家要有一个统一的解决办法。

#### <보충 예문>

- 如果走资本主义道路, 可以使中国百分之几的人富裕起来, 但是绝对解决不了百分之九十几的人生活富裕的问题。
- 即使山道多么陡峭, 我也要不停地攀登; 即使累倒在半山腰到达不了峰顶, 总要比在山脚下看得更远。
- 现在全中国的发电装机容量是3.8亿千瓦, 但这还远远满足不了中国经济建设的需要。
- 虽然不断增加产量, 但仍满足不了客商要求。
- 如果捕到的鱼虾暂时吃不了, 还可在皮囊中贮藏。

- 许多顾客进了今日的市场，仍不满足。究其原因，就是嫌东西不齐全，老是缺东少西，**配不了套**。
- 只做工农群众的工作**解决不了全部问题**。
- 她为我做了很多菜，多得**吃不了**。
- 有的州县，送的酒席多到上百桌。别说隋炀帝**吃不了**那么多，就连他带的宫纪太监、王公大臣一起吃，也吃不完。
- 你看他文章里面所列的书目吓人，我们两辈子三辈子可能也**读不了**那么多的书。
- 现在夏字号收下的高粱实在太多，就是以便宜一半的价格卖出去，包头市场上也**消化不了**这么多高粱啊！
- 因此，也不能单单因为一个国家靠它自己的土地**养活不了**它的全部人口，就说它人口过剩。

####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 (가)상황의 영향

- (8) 那箱子太小，**装不了**一个死人，那么它装的一定是钱了。
- (9) 妈妈，这间屋子**住不了**三个人。
- (10) 这笔迹太乱，我**对不了**。
- (11) 有个患急腹症的战士因没有床位**住不了**院。
- (12) 他们已经把儿子养大了，既然**防不了**老，也只有认命。
- (13) 如果在氧化环境下，暴露在地表，那很快就腐烂了，化石也**保存不了**。
- (14) 这种危机感将创造出许多智慧，而平时是**产生不了的**。
- (15) 有的孩子学数学并不困难，但一等到有应用题出现，他们就**应付不了了**。
- (16) 这种体制不转变，增长方式也**转变不了**。
- (17) 谢谢你们，没有你们的帮助，我们就**来不了**。
- (18) 不打大仗**出不了**将军，不搞大课题**出不了**人才！
- (19) 大系统若不革命化，小系统根本就没办法，连改良都**改良不了**。
- (20) 如果没有多元化战略，海尔就**成不了**中国家电第一品牌。

<보충 예문>

- 我晚饭本来吃得很饱, 但**抵御不了**香郁的甜点心的诱惑, 也吃了两块。
- 要是土耳其舰队没有避进港里, 它们一定沉没了; 这样的风浪是**抵御不了的**。
- 处在目前这种情况, 无论怎样**负不了**责。
- 这种散乱局面, 政府不下决心采取有力措施, 是**治理不了的**。
- 搞平均主义, 吃“大锅饭”, 人民生活永远**改善不了**, 积极性永远调动不起来。
- 种田能手无地可种, **形成不了**土地的规模经营, 分散的承包田利于农业机械的发展。
- 我省由于历史原因, 是**完成不了**这个宏伟目标的。
- 蒙古地处高寒地区, 冬季气候异常寒冷, 不吃肉是**抵御不了**严寒的, 记者对此深有体会。
- 自1990年5月1日起, 中国寄信除了要用标准信封外, 信封上还必须填上邮政编码。不这样做的话, 信件就**到不了**收信人手中。
- 但进入高速公路前有200公里车辆对开的小路, 必须在天黑以前开过去, 否则一夜开车**到不了**纽约。
- 产品没有规模, 造价就降不下来, 对市场没有覆盖能力, 也就**形成不了**冲击力, 养在深闺人未识, 时过境迁也就“人老珠黄”了。
- 没有这婚姻磨难, 也许我**成不了**材。
- 世界汽车大国的经验说明, 轿车不进入家庭, 汽车工业永远**成不了**支柱产业。
- 种田能手无地可种, **形成不了**土地的规模经营, 分散的承包田利于农业机械的发展。
- 农业搞不好, 工业就没有希望, 吃、穿、用的问题也**解决不了**。
- 鸟儿关在笼里**跑不了**。
- 如果他们**用魔法掩护他的话我就根本赢不了了**。
- 没有煤, **吃不了饭**, 没有煤, **发不了电**, 也**生产不了**, 山西煤对全国负有很大责任。
- 高雅艺术目前在国内还是冷门, 干这行也**发不了财**, 但它对于培养和提高国民



素质有很好的作用。

- 没有技术**发不了家**, 没有文化**学不了技术**。
- 没有水, 油机**发不了电**, 一切工作将陷入瘫痪。
- 没有科技**发不了财**!
- 你没有这个决心就当不了**审计长**。
- 仅靠地里刨食, 单产提不高, **发不了家**; 单靠卖原料, 不搞深加工, 也**致不了富**。
- 在西藏实现乡乡通电话之前, 她一年给远在北京的儿子**打不了一个电话**。
- 没有医疗鉴定, 就**解决不了问题**, 就**打不了官司**, 甚至连新闻舆论监督都感到很为难。
- 旅馆里很寂寞, 想借几本文学书籍看看, 因为她是失去了自由的人, **出不了门**, 希望能把书送到东兴顺旅馆来。
- 管理不科学, **出不了效益**。
- 在资本主义国家绝对**出不了苏宁这样的英雄**。
- 但是有了高质量的产品, 不善于吆喝, 养在深闺人未识, 也**出不了名牌**。
- 碰到了问题, 才出了新的观点, 不碰到问题**出不了新的观点**。
- 一旦这种产品过时, 滞销的时候, 便会形成谁也**挽救不了**的局面, 在巨大的赢利之后紧接着的是巨大的亏损。
- 如果机电行业不在质量上下功夫, 机电工业就永远**翻不了身**, 结构性的矛盾也**解决不了**。
- 日本的制造业, 由于劳动成本高, 国内**搞不了**, 经济出现空心化, 过去的终身雇佣制开始瓦解。
- 那些车子都开得飞快, 躲了这一辆**躲不了那一辆**……
- 农民不种粮食不得了, 只种粮食**富不了**。
- 可谁知, 拿回家刚扔了几枚硬币, 突然不知那儿卡住了, 小娃娃**转不了圈**, 悦耳的音乐也变得沙哑, 刺耳了。
- 他左右的摆动, 而**滚转不了**, 腿上的锁镣不许他翻身。
- 要是肚子里有食, 抽那几袋烟真**醉不了**。

- 女人在这种占有关系中则始终处于占有物和玩物的地位，从而**实现不了**自我的创造。
- 许多残疾人通道经常被汽车占据，使这些巨资兴建的设施根本**发挥不了**作用。
- 没有这一条，即使机遇再好，也认不清抓不住，有利条件再多也**发挥不了**它应有的作用。
- 要不是邻居好心肠，我们的农舍根本**翻修不了**，甚至于连第一个冬天也挨不过。
- 尤其是一些型号车厂家已不生产或是中外合资的新型号车往往发生零配件供应不上的现象，一旦车辆坏了**修不了**，又退不掉，一拖少则一两个月，多则长达一年之久。
- 目前运输密度达到平均每公里2800万换算公里，居世界第一，导致许多设备换不下，**修不了**，超期服役，伤损疲劳严重。
- 如今我倒是在做戏。我也不清楚他是否明白了这一点。他明白不明白，对我都无所谓了。我是由他，才无形中学会作戏的。我的角色还没完成。我还不能摘下行头。我还**卸不了**妆。
- 我们坐火车，坐汽车，走了好远好远的路。我们**洗不了**脸，浑身都是土，吃的是干粮喝的是洋铁壶的水。
- 他烦恼到了极点，不过，何老太一定要他回去，他知道**推不了**。
- 现在，他们最拿手的报复办法就是破坏，叫敌人**通不了**车，利用不上。
- 不过事情并没有完结，留下的长长的影子总也**散不了**。
- 家里没有你们这两个常开会的人，我这家还**散不了**！再要去开会我就不算你的妈！
- 这两天有点事，**送不了**水。
- 只要电视台素质高，不出现新闻导向的毛病，我就**失不了**足，站不错队。
- 要不是有他，公报恐怕**签不了**。
- 谁懂科技谁理家，**亏不了**！
- 中国的买家也**亏不了**，因为争先恐后烧钱买乐的观众送上了大把的钞票。
- 几年前，我装着它从东京带到四国峡谷的笼子，现在已**派不了**用场了。

- 如果谁的话都听, 那么我们在土耳其, 和约就缔结不成, 战争也**结束不了**。
- 妈妈总哄我们说, 爸爸快回来啦, 因为眼看着仗就要打完了。然而, 战争总是**结束不了**。此后, 妈妈终于对我们说了实话: 父亲还在意大利前线作战。
- 那你请总经理来一下, 不然这儿**结束不了**!
- 沙漠化土地急剧扩大, 治理速度赶不上沙化速度, **抵御不了**大范围的沙尘暴灾害。
- 他预感到这关键的一大步走出去, 今后往回收都**收不了了**。
- 他总是跑前跑后地张罗, 有时一忙几天都**回不了家**。
- 再过几个月, 当这妹妹由于发育良好已经长得够大而**骂不了**“太小了”时, 他又找出另一个“她并不值得如此受重视”的理由。
- 一定是你哥哥把它用过头了, 结果现在根本连修都**修不了**, 比废铁还不如。
- 这一本帐算不清楚, 报复是**完不了的**。

#### (나) 대상의 특성

- (21) 灯光究竟**夺不了**那边的月色; 灯光是浑的, 月色是清的。
- (22) 在这个边界上, 太阳风和恒星风它们的密度相当, 谁也**影响不了**谁。
- (23) 各个群体的需要是很不相同的, 而商务规章又太复杂, 一个应用程序**处理不了**。
- (24) 这是各门技术中流动最快的一个专业, 其人员流动量之大, 连他们也**掌握不了**详情。
- (25) 单用经济学理论**解释不了**许多社会问题, 整个社会对社会学知识的需求量前所未有地激增。
- (26) 以我们现有的经验也**应付不了**千变万化的市场波动。
- (27) 任何历史变革和体制转换时期都**避免不了**“新”、“旧”两代的精神和文化冲突。

#### <보충 예문>

- 他便强调人文研究超越自然科学方法观念, 以“生动介入”方式深入了解事物的非系统现象, 未知层面的潜力, 以及专门学科顾及或**归纳不了**的关系网络。

- 磁石对铁的吸引是一般物质**隔断**不了的。
- 这足以说明此案早有定论，是谁也**推翻**不了的铁案。
- 石巨人是用魔法赋予假生命的怪物，跟精灵一样，不用魔法的武器是**伤**不了它们的。
- 工具越原始就越**扔**不了，像锤子，像刀，总要的。
- 凡来过天津的各省市领导同志也**漏**不了参观科技馆。
- 西方一些国家对中国的制裁是不管用的，中国**垮**不了，而且还要更加发展起来。
- 它是大自然中去除烦恼的灵丹妙药。然而，它却买不到，求不得，**借**不了，偷不去。因为在被赠予之前，它对任何人都毫无价值可言。
- 即使错误的如“共存共荣”之类，也不必“废”，因为那是反映了周作人笔墨的历史真实，废也**废**不了。
- 用生铁或平炉钢制造的老式保险箱是**防**不了以钢钻和炸药武装起来的窃贼的。
- 那是根一寸来长的刺，横卡在他的嗓子眼！喝醋是不管用的，醋**软化**不了这么粗的刺！
- 这就是历史的命运。先知或许可以预见历史，但却**安排**不了历史，历史有它自身的逻辑。
- 这个法律依据是任何个人**改变**不了的。
- 但是历史的车轮是**扭转**不了的，南方的奴隶主终于尝到了自己种下的苦果。
- 当他对自己说他是一个傻子，这种思想会象鬼火似的把他诱向毁灭，而且结果他在那里并得不出什么好处来的时候，它仍然**消失**不了。
- 中国历史上每朝每代都**免**不了农民起义。但同样也**动摇**不了旧秩序的根基。
- 它是前进途程中的必然趋势，是既**躲避**不了，也并不可怕的。
- 在那个地方举行会晤**碍**不了任何人。

#### (다) 의식의 작용

(28) 邪恶永远**战胜**不了正义。

(29) 世界上没有什么困难是**克服**不了的。

- (30) 婚姻大事老天爷早就安排好了，是你的怎么也**跑不了**，不是你的追也追不来。
- (31) 人**摆脱不了**生老病死这些苦的煎熬。
- (32) 偏偏到他家装电话这天，他和妻子都**请不了**假。
- (33) 那猫是女儿东梅的朋友送给东梅的，东梅学业很紧，根本**照顾不了**。
- (34) 请你们带回北京去吧。我说，这件事现在**决定不了**，要请示领导。
- (35) 海明威才21岁，很想当作家，但苦于**入不了**文坛的门。
- (36) 任何别的力量都**取代不了**中国共产党的领导地位。

<보충 예문>

- 如今个人主义渐渐抬头，各干各的，意见总是**统一不了**。
- 作为教学单位的北京舞院，法律注定它**终止不了**不以商业利益为终极的教学演出。
- 人民法院之间因管辖权发生争议，由争议双方协商解决；协商**解决不了的**，报请它们的共同上级人民法院指定管辖。
- 一旦主管行政工作的机构之间协调**解决不了**时，就有可能涉及到工商主管部门或者主管的司法机构。
- 老太婆说她**作不了**主，房子不是她的，是吕家的。
- 你的事我们可**作不了**主。
- 邓总不在家，我们**作不了**主，必须请示北京领导和邓总同意之后才能提供。
- 不是我们拒绝，上边的事我们**作不了**主。
- 维持不维持咱也**作不了**主，看村里人的意思吧！
- 人家说只要男女本人愿意，就能到区上登记，别人谁也**作不了**主。
- 只要毕业生与用人单位双向选择即可。他们去哪，学校也**管不了**。
- 别人的事情我们**管不了**，只讲一个道理：中国的社会主义是**变不了的**。
- 别国的事情我们**管不了**，中国的事情我们就得管。
- 交朋友，包括在美国交朋友是每个人的自由，谁也**管不了**。
- 别人走我们**管不了**，但是我不会离开中国体操队。

- 这是我自己家里的事，别人谁也**管不了**！
- 我一个人也**决定不了**，那是你二哥的人生大事。
- 铁路上的派性问题，地方**解决不了的**，由铁道部解决。
- 她有什么罪？没良心的坏蛋，人民**饶不了**你们！
- 奴才他也是和珅家的奴才，您也**叫不了**。
- 每个人有每个人自己的喜剧或悲剧，你**管不了**那么多！
- 所有这一切都是举世公认，任何人也**抹杀不了的**。
- 人们是识货的，好东西是**淹没不了的**。

#### 다. 슬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 (37) 要是你找得到旧衣服，还是穿上的好，象眼前这样的衣服，在这儿是**穿不了**多久的。
- (38) 现在许多电子产品功能多得惊人，有的功能一年也**用不了一两次**。
- (39) 几间出租屋子，也因地处僻郊，总也**租不了**好价。
- (40) 政治舞台地位有限，**容不了**许多人，等于走入窄路一般。
- (41) 现在成年人每周可以休息两天，可是孩子却连一天也**休息不了**，现在最忙最累的是孩子。
- (42) 不少消费者反映，**新鞋穿不了**几天，有的鞋面裂缝，有的鞋底与鞋帮脱胶，甚至断裂。
- (43) 没有光我们**走不了**多远。

#### <보충 예문>

- 由第四十三届世乒赛而掀起的“乒乓热”很可能**持续不了**几日。
- 因为花不常好、月不常圆、人不长寿，都短暂得很，**好不了**多久，所以都不可得。
- 他说自己有两怕：一怕住进去后房主随意涨价，二怕**住不了**多久被扫地出门。
- 我为了她可以做世界上任何事情。我永远也**报答不了**一半她对我的帮助。
- 那天天气好，太阳很毒，好多人**支持不了**多久就晕倒在地上。

- 他就这样拖着, 明知道**拖**不了多久, 那“炸弹”迟早会爆炸的。
- 那么这么窄窄的一根简牍上**书写**不了多少文字。
- 张广才岭的植树地点离家十五余公里, 别说是山路, 就是柏油公路也得走两三个小时, 何况他们要踩着草稞子, 钻着树隙……除去这些时间, 在山上干上一天, 树却**栽**不了多少。
- 咱们的军队就是由这条路撤退的。可这条路也**通**不了多久了。
- 我详细告诉你吧, **用**不了很长时间。
- 一旦造成社会混乱, 你**承担**不了那么大的社会责任。

## 2. 주관적 조건의 작용

### 가. 未完了·未完成的 표시

- (44) 他身体欠佳, 恐怕**忍受**不了长达18个月之久的审查之苦。
- (45) 下肢浮肿, 血压一度达180/120, 几乎是一步一喘, 上楼**爬**不了一层就感到困难。
- (46) 当他准备迎接高考的关键时刻, 严重的病魔向他袭来, 当地医生诊断是血液病, 最多**活**不了一个月!
- (47) 孙茂芳吃饭时总唉声叹气, **吃**不了两口就放下筷子。
- (48) 她计算了凤儿一身衣服的尺寸, 觉着**用**不了这些布。
- (49) 对那些抽象的概念, **听**不了五分钟, 她那个脑子就转不起来了。
- (50) 一年内**挣**不了二千元, 一辈子不再开理发店。
- (51) 凭她学的文化, 还没有能力记笔记, 脑筋里一时也**消化**不了那么丰富的内容。
- (52) 光办乡镇企业还不够, 它**容纳**不了农业上大量剩余的劳动力。
- (53) 没醉! 谁敢说**我**醉了? 你再打二斤来, 看我喝了**喝**不了?
- (54) 一名四星上将能够指挥一支百万人的军队, 但他**指挥**不了一百万个人。
- (55) 他已经完全无心**卖**馍了。他决定离开这个他无能为力的场所, 到一个稍微

清静的地方呆一会,至于**馍卖不了**怎么办,现在他也不想考虑了。

<보충 예문>

- 手术之后,医生叫我进去,告诉我说,她撑不下去了,她的**心脏负荷不了**这么多。
- 事实上第一期的文章和插图大部分是他自己搞的,照片和稿费一共还**花不了**2000元,印刷费也只需6000元。
- 13年前,我与周恩来总理一起喝茅台,现在已**喝不了**那么多了,但是今天还是要喝。
- 她父亲原来是个拉橡皮塌车的工人,赚钱很少,**养活不**了一家五口人。
- 我根本**拿不了**这么重的东西。
- 我**管不了**那么多,奖金由代表团负责,如果我掏那么多钱,腰包里就空了。
- 一是财力有限**订不了**那么多报纸,二是精力有限**看不了**那么多报纸。
- 从现阶段的农民收入水平来看,还**承担不了**那么多保费。
- 她**安排不了**那么些个人的饭食,没什么钱,精神也不济。
- 媳妇,大概算是伙伴吧。没有她,我也**写不了**那么多,写到四十集,估计就烦死了。
- 我**管不了**那么多,奖金由代表团负责,如果我掏那么多钱,腰包里就空了。
- 一名博士可以在最好的企业里任职,年薪超过30万元,而没有文化的人可能一辈子也**挣不了**这么多钱。
- 沿海经济比较发达的地方,偷税在10000元以上的案件很普遍,如果都要移送检察院立案,事实上做不到,检察机关也**受理不了**这么多案件。
- 小谭,这是老叔的一点心意,我都这把年纪了,也**用不了**这么多,你就看着给受灾的乡亲们捎去,你们这些头都当得好啊!

#### 나. 슬어 이행의 불가능

##### (가) 심신의 상태

(56) 我腰有伤, **睡不了**软床。



(57) 牙床和左腮肿得太厉害, 他**笑**不了。

(58) 走到病房楼前, 他怎么也**控制**不了自己的感情, 眼泪止不住地淌。

(59) 你真**挡**不了有时候要落泪呢。

(60) 她**受**不了这一切, 又回到家中过起孤寂无聊的日子。

(61) 我眼睛不好, **对**不了焦距。

<보충 예문>

- 他的小眼睛几乎闭严了, 也**决定**不了什么。说话就要负责, 他不能乱说。
- 大哥, 我活不长了, 这辈子**报答**不了你, 下一辈子变牛变马都报答你。
- 一碗热气腾腾的面条端到他的面前, 怎料他残疾的双手怎么也**奈何**不了那双搁在碗边的筷子。
- 步行的人不用勉强, 如果还没到就累了是**打**不了仗的!
- 引芝奶奶患有严重的腰腿疼病, 平时**断**不了腰酸腿疼, 阴天下雨愈发厉害。
- 口腔溃疡, 牙龈发炎, 现在所有牙都活动了。有时疼得**吃**不了饭。
- 对不起, 我不能去。就是我去, 我也**跳**不了舞。
- 她不是不愿意做, 是身体不好, **做**不了。
- 有时腰疼得**起**不了床。
- 史更新一定是离开了原来的地方, 可是他往哪里去呢? 既然他不能走路了, 当然他就**远**不了。
- 当然**扔**不了, 因为不想扔, 差一点儿。
- 为了文学他白天干了一天体力活儿, 夜里半宿半宿地写作, 累瘦了, 母亲心疼, 可又**劝**不了他。
- 在长征路上, 保卫局有些干部患了重病, 连牲口也**骑**不了。
- 她熟悉这个城市的许多人, **忘**不了那么多的白眼、怒眼和闲眼。
- 李敏患了严重的关节炎, 心脏不好, 手也肿了, **活动**不了。

#### (나) 능력의 한계

(62) 我作为一个游子, 看到故土还有这么多的小弟弟小妹妹因贫困**上**不了学,

心里很难受!

- (63) 许多男人因**养活不了**家庭, 丢下老婆孩子, 离家出走。
- (64) 有的单位在专家走后自己**搞不了**, 又不得不花高薪再把外国专家请回来。
- (65) 要是那半年时间我好好练, 再怎么放松也不会**进不了**决赛!
- (66) 在香港警队接受心理辅导的人当中, 相当一部分是因为**处理不了**人际关系, 包括同上司、家人、亲友的关系而有心理障碍的。

<보충 예문>

- 近年来才逐步实行的高校收费政策在客观上也加重了学生上学的负担, 可能会导致个别学生因家庭困难**上不了**学。
- 我对**不了**鸡尾酒。
- 他一道题也**对不了**。
- 从王宅到学校不过一公里半路程, 他坐着人力车两小时还**到不了**学校。
- 受教育而**就不了**业, 就算不上人才; 如果是人才, 不就业更是浪费。
- 如果没有一定的音乐记谱知识, 是**完成不了**这项工作的。
- 在文艺作品中, 由于**区别不了**友情与爱情而做出错误判断, 酿成悲剧的描述的确不少。
- 不要荒废学业, 没有文化, 你**成长不了**。
- 仅有金融意识而没有金融知识, **成不了**聪明的投资者。
- 我们发现靠我们这老一代**解决不了**长治久安的问题, 于是我们推荐别的人, 真正要找第三代。
- 妻子所在的工厂不景气, 常**发不了**工资。
- 河北省灵寿县是全省的贫困县, 大多数乡镇和学校经常**发不了**工资, 一些老干部的药费也**报不了**。
- 你只是无数体育战线上优秀代表中的一分子, 切记一根铁**打不了**几颗钉。
- 海关不是超人, **包打不了**天下, 只能抓住重点, 什么都管反而什么都管不好。
- 低素质的员工**构成不了**高素质的企业, 而低素质的企业又肯定**出不了**高品位的产品。

- 难道中国就**出不了**一本完全由中国人自己编纂的，以第一手资料辑成的大词典吗？
- 中国水球在奥运会上也许连小组都**出不了**线。
- 一个总**出不了**成绩的队伍是沉闷的。
- 我的节奏没控制好，小组排第四，大排名是第12，**进不了**决赛了。
- 这个医生太饭桶，光出血都**救不了**！
- 一杯水是**救不了一**场大火的呀！
- 你讲的那些笑话正像只会说说大话的那些懦夫们的刀剑一样**伤不了**人。
- 实行公开招投标后，他一个工程都**中不了**，只好改行跑运输去了。
- 如果让他们去当什么长，也许**发挥不了**他的作用；如果一个人有管理才能，就应当去担任具体工作。
- 1976年春播时，一个生产大队的拖拉机曲轴严重磨损，开到董玉华的厂里，董玉华**修不了**，他也不知道国内外尚无这项修复技术。
- 维修人员精通业务，别人**修不了的**，他们不仅能修好，而且还提供如何使用和保养方面的知识。
- 对于精密度高的进口电子产品对方实在**修不了**，也总是提出维修建议，或介绍顾客到别的店，周到的服务令人感动。
- 我道路很熟，**摔不了**跤，一照倒眼花起来。
- 我现在先放了他，他**成不了**什么大事，**乱不了**我们的天下。
- 小牛**拉不了**车。
- 她凭着她的记性，也**碰不了**板凳也**碰不了**桌子，顺顺当当走到窗跟前，放下课本，擦着火点上灯，然后来疏散那些桌子板凳。
- 初来时，有的姑娘因**讲不了**普通话连门都不敢出。
- 他们要求我今天讲一讲‘劳资关系’。我**讲不了**这个题目，我只知道‘人际关系’，我从未遇到过什么‘劳资关系’。
- 像临沂电业局，面对资金困难，**盖不了**18层高楼，他们就搞5层矮建筑。
- 她知道，她今天撞上的是货真价实的款爷，否则，伴一场舞，**决给不了**这么高的服务费。

- 社会上的资金毕竟是有限的，目前我国的市场规模也**容纳不了**这么多的股票上市。
- 你一个小医生，就是干一辈子也**挣不了**这么多钱和这么大的房子，想开点儿吧！

(다) 개별적 특성

- (67) 狗**改不了**吃屎。
- (68) 在他的头脑里，有一种独特的农民思想根深蒂固，**容不了**我们的思想。
- (69) 羊嫩点还好，老的煮上几个小时也**烂不了**。
- (70) 其中重要一点就是现有领导干部缺乏现代经济知识，工作思路**摆脱不了**旧的传统模式，影响了经济发展步伐。

<보충 예문>

- 明峰**抵御不了**支票的诱惑，又把支票拿来过来。
- 在激烈的战场上，哪怕密集的子弹从他的耳边上掠过，也**影响不了**他对某一个问题的深思。
- 一次偶然的车祸**影响不了**他们对摩托车的喜爱。
- 这些旨在带来战争的谎言及企图，丝毫**影响不了**德国解决犹太人问题的态度。
- 可是窦太后跟汉桓帝一样相信宦官，怎么也**下不了**这个决心。
- 印度人则纠缠在物质生活与精神生活之间永远**调协不了**的矛盾里。
- 花言巧语**蒙哄不了**二位老人家，甜言蜜语也**迷惑不了**二位老人家。
- 痛苦与幻灭不能使他灰心丧气，“忧愁”虽然吹瞎了他的双眼，却**熄灭不了**他心中的火焰。
- 苒青**忍受不了**孤独，更**抵御不了**寂寞。
- 过去10年的历史经验已说明，仅仅靠经济增长并**解决不了**失业问题。
- 仅仅在经营形式方面进行改革是很不够的，**解决不了**企业运行机制方面的一些根本性问题。
- 他擅长篮板球，身体强壮，但投篮很糟，罚球和跳投都**进不了**，只在3英尺或者

更近的地方能进。

- 我**进不了**球是因为我太胖了，记者们也总是很关心我的体重，甚至还有记者专门送给我一本关于节食的书。
- 我这衙门太小，**问不了**你这人命大案，你到乡里县里去吧！
- 我告诉你，宁宁这孩子，你让她输她都**输不了**。她非赢不可。
- 真是，才刚刚回香港去买了一大堆，回来又**忍不了**手！
- 刚才您讲话的时候，他是一个一个字都记在心间，赶明儿要他复述您的话，他准一个字儿也**落不了**。
- 这种“热”大概一下子还**冷不了**——虽则它迟早要冷，即逐步趋于深入，从而归于平淡的。
- 不用，您那是铁嘴，**烂不了**。
- 打量他搬来后台老板也**砍不了**头！好汉作事好汉当，决不连累你们。
- 你看我这铁打的样，**垮不了**。
- 他才醒悟：语言这玩艺，光是记在本本里，是**派不了**大用场的，必得吃进心里去。
- 从下午7时半开始的会议，往往到半夜12时也**结束不了**，通常吃过夜宵后一直讨论到凌晨3时才结束。
- 上中学时自行车骑得特好，现在连自行车也不敢骑了，她主要是**适应不了**这么多人，人一多她就心慌。
- 林小枫**等不了**这么久。她必须立刻得到答案，否则，她会憋死。
- 真正的土鸡蛋永远也**长不了**这么大。

#### 다. 슬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 (71) 小孩子注意力没有那么集中，看书往往**看不了**几分钟就想着出去玩。
- (72) 不少农民种烟技术不过关，烟叶质量低，**卖不了**好价。
- (73) 我自己昏头昏脑，也**问不了**许多，插上了门，向四下里望着想找张床。
- (74) 如果我总是为这些事操心，我将**支撑不了**多久。
- (75) 现在只杀两个**起不了**那么大作用了，要多杀几个，这才能真正表现我们的

决心。

(76) 造每箱5元的“三精水”，又要送货上门，细一算也**赚不了**太多钱。

<보충 예문>

- 但这时的幼苗不是绿色的, 而是白色的, 这种白色的幼苗**生长不了**多长时间就死掉了。
- 虽然是三家人同住在一个院子里, 也没有热闹的气象, 日子过得很清闲, 甚至在除夕, 也比平时**热闹不了**多少。
- 我可能**活不了**多久, 但我要把最后的生命献给党和人民。
- 大学或者师范专科分配去的教师往往**呆不了**多久, 就找路子调走, 这严重影响了教师队伍的整体素质。
- 现在, 大多是独生子女, 由于孩子生长快, **穿不了**多久就不能穿用, 只好作废了, 造成浪费。
- 要写就写那个患了血癌的小姑娘吧, 她才13岁, 眼看**活不了**多久了, 还天天攻读英语。
- 无论是跟长期占据奥运会金牌榜前列的国家相比, 还是跟一些**拿不了**多少奥运金牌但是经济发达的国家相比, 中国的体育人口还是太少。
- 北京的天气暖和时, 居民不过是烧煤做饭, **烧不了**多少煤, 因此春夏秋三季的大气质量还说得过去。
- 初学之时, 总不是味, 身体又那么胖, **转不了**几下就满头大汗。
- 就拿这面包虫来说, 一斤面包虫四毛五, 放在繁殖设备中**喂不了**多少麸子一个月就能生产两吨面包虫。
- 有的玩具即使带回了家, 孩子**玩不了**几天, 就“爬窝”不动了。
- 我现在是秋后的蚱蜢, **跳不了**几天了, 如果说还有什么事想做, 大概就只有回家去看看了。
- 两位领导人**谈不了**几句话就会出现停顿和冷场, 而且这种停顿绝不只是一分钟。
- 我们老队员**打不了**几年了, 希望他们总结经验, 早点成熟起来。

- 一开始扫地, 如他的邻居所说, 像打拳一样。使了好大的劲, **扫不了**多大的一块。
- 碰上了, 可以成为新兴的暴发户; 碰不上, 反正也**输不了**多少本钱。
- 我看你这腔调也叫**不了**多久了。我知道, 你已经完蛋了。你连税金也付不起。
- 曹操经过这一次讨伐战斗, 觉得跟这些人一起, 根本**成不了**大事, 就单独到扬州 (今安徽淮水和江苏长江以南)一带招募人马, 准备重整旗鼓。
- 矿产开采也好, 林地更新也好, “五荒”开发也好, 中低产田改造和草原改良也好, 单靠国家投资, **投不了**那么多, 投了不采用新机制也收效不大甚至背包袱。
- 一个人一辈子**做不了**太多的事。
- 鱼缸里的金鱼通常**活不了**那么久。
- 我的家人还未到齐, 他们老的老、小的小, 行李又多, 一时**走不了**那么快……。
- 因为昆虫不拚命鼓动着它们小小的翅膀就**飞不了**那么高。
- 我可以保证, 他绝对**活不了**那么久的。
- 她说她挣12块钱, 但是这个数是**买不了**那么多东西的。
- 可国内一些企业加工就是**做不了**这么精致。
- 他说他**给不了**他们太多的帮助, 他哭了。

### 3. 주 · 객관적 조건의 동시 작용

#### 가. 未完了 · 未完成的 표시

- (77) 刚刚解决温饱的俺们实在**应付不了**那么多的提留款项。
- (78) 中国已出版的蒙古族民俗百科全书的内容只限于较窄的范围, **涵盖不了**整个蒙古学领域。
- (79) 三个人绝对**抵挡不了**成群的坦克车与重炮。
- (80) 一个人的资金和能力都有限, **办不了**这样大的事。

<보충 예문>

- 报名要求参加随访的企业家很多, 可专机**容纳不了**那么多人。

- 你别把我司空摘星的功劳不提, 没有我, 你们两个人四只手是绝对**涂不了**那么多黄金的。
- 看我儿子他们破案子的家什, 说是太落后了, 用那些破玩意儿根本**破不了**那么多案子。
- 天然橡胶受气候和地理因素限制, **满足不了**各方面飞快增长的需要。
- 那面积有 3 万多平方米的货场, 各种货物堆积如山, 仍**容纳不了**从这里进出口的货物。

#### 나. 술어 이행의 불가능

- (81) 我在街上顶风走了会儿发觉**坚持不了**, 便拐胡同去找一个朋友。
- (82) 市场风云变幻, 过去那套本领**应付不了**今天的竞争。
- (83) 这么油腻的碗, 凉水我可**洗不了**。
- (84) 她太聪明, 老师们都**应付不了**她, 因此老师们觉得课堂上少了她反而轻松。

#### <보충 예문>

- 那个逃难的女人也用她的胳膊护着她的孩子, 这象一张纸一样单薄, **抵御不了**枪弹。
- 我们的装甲车太轻, 不能抵御敌人战斗机的火力, 并且由于没有安装大炮, **抵御不了**德国的八轮装甲车, 后者有炮, 而且速度也较大。
- 这么几个人去打那么多的敌人**打不了**。
- 我的胃可**受不了**那么油腻的东西!

#### 다. 술어의 부분적 이행·실현

- (85) 她一家七口这点粮, **填不了**几天肚子。
- (86) 诸如北京春节卖出多少瓶法国名酒之类的事情, **说明不了**多少问题。
- (87) 没有新技术, 咱可跟不上大市场, **赚不了**大钱。
- (88) 好一点的花布四块钱还**扯不了一米**呢。



<보충 예문>

- 一个月你要花多少钱? 可不是一百五六十么? 你一个人万万**花不了**那么多! 一定有人帮同你在那里花, 是不是?
- 它的机种亦非设计用来承受你的工作量, 因**负荷不了**而需要超过你所希望的修理次数, 这个问题我们也还没解决。
- 飞机只有两架, **坐不了**那么多的人。
- 光靠有数的几个经济开发热点地区还是**吸收不了**这么多渴望致富的农民。
- 书好沉, **抱不了**多大一会儿, 我就抱不动了, 妈妈接过去, 抱婴儿一样把书紧紧抱着。

## 【부 록 2】

‘不了(liǎo)’를 취하는 단음절 술어 목록			
술어	사용횟수	술어	사용횟수
受	1,801	忘	1,338
免	1,042	少	828
大	519	过	440
管	387	用	368
算	361	成	303
干	271	出	258
下	253	吃	246
做	243	走	220
上	212	到	211
跑	211	进	197
离	183	办	175
死	174	活	174
帮	159	救	147
顾	143	要	140
好	139	脱	134
起	131	错	129
改	126	来	116
去	112	比	112
当	111	逃	107
开	100	回	96
赚	92	差	89
赢	85	治	81
发	74	卖	64
打	57	长	56
饶	52	骗	51
变	48	花	45
破	45	作	44
瞒	44	值	43
挣	42	说	40
断	40	翻	40
交	39	杀	36
误	34	搞	34
入	34	学	34

写	33	报	32
占	32	丢	31
伤	29	躲	28
拿	28	看	28
保	27	短	27
买	27	完	27
等	26	收	24
得	23	快	23
高	22	胜	22
小	21	隔	20
사용횟수 11-20회	住 睡 见 负 富 变 缺 教 强 喝 穿 转 抵 分 假 容 给 怪 撑 付 飞 亏 省 带 读 多 讨 落 演 避 劝 坐 倒 定 停 顶 垮		
사용횟수 10회 미만	讲 掩 遮 压 颇 奶 锤 扯 乔 证 捆 孤 间 结 会 刨 撒 娄 红 甩 鹜 淘 奈 跟 尝 忙 烤 甜 赢 涨 喊 骂 宠 信 载 露 兴 恕 滚 庆 撕 撼 追 忽 奶 颇 压 助 由 点 端 对 踢 挑 填 听 掉 毕 修 舍 种 关 装 中 跳 和 毁 挪 通 待 养 弄 醒 吓 解 减 禁 戒 坏 直 白 蒙 犯 晚 靠 藏 防 咬 画 输 饱 就 识 推 抢 归 害 唱 赔 签 由 早 反 近 谈 乱 除 忍 赖 登 懂 夺 斗 耐 冷 亮 惹 钻 留 溜 散 沾 问 补 包 背 平 掩 医 印 担 堵 戴 挺 拖 念 造 增 存 胖 迷 弹 调 怨 费 答 想 难 合 哄 挡 低 叫 立 凉 嫁 练 真 超 沉 站 摔 配 废 缴 尽 降 混 唬 宽 砸 娶 阻 扫 碰 派 赎 爱 失 及 驾 借 加 欠 适 苦 空 砍 瘦 遮 张 争 冲 抽 里 爬 播 闭 编 搬 憋 抱 拔 批 满 慢 灭 迈 放 服 添 投 退 驮 疼 拢 拉 履 领 了 烂 揽 漏 盖 贵 刮 醉 栽 咋 攒 坑 卡 抗 护 化 建 接 记 捡 寄 架 骑 岂 清 销 陷 毙 象 洗 续 凶 卸		

消	折	抓	致	着	找	传	逞	迟	创	撤	插	产	掺
守	烧	剩	饿	认	测	送	碍	熬	矮	挖	喂	为	闻
玩	远	游	淹	圆	运	硬	并	遂	望	任	捉	歇	病
兑	考	裱	获	深	扶	统	壮	赌	营	惯	全	轧	割
怀	引	美	讳	恼	沦	碎	刻	兼	止	充	塌	滑	制
经	吞	困	剃	献	王	套	褪	斗	挪	愁	招	惑	高
足	埋	济	拆	毛	捷	均	罩	黄	密	消	亦	挖	支
复	掏	采	顺	订	吸	薄	欺	急	请	休	官	团	划
伸	刷	在	遭	偿	绕	宰	显	扛	患	却	控	达	鼓
鞠	通	塞	笑	塌	挨	射	瞑	撞	志	绝	蹦	租	触
充	托	滋	臭	渴	乐	段	恨	抹	若	够	纯	同	涂
流	筑	择	黑	糊	劫	赤	崩	搭	咽	闯	扒	熄	扇
犁	屈	掀	博	息	文	武	啃	侮	呆				

‘不了(liǎo)’를 취하는 이음절 슬어 목록

슬어	사용횟수	슬어	사용횟수
解决	621	忍受	276
满足	399	摆脱	279
承受	212	改变	164
接受	141	代替	116
实现	103	逃脱	84
发现	78	控制	78
发挥	63	应付	61
产生	59	说服	59
理解	58	保证	55
避免	54	奈何	53
说明	50	掩盖	48
回避	47	克服	44
维持	43	解释	41
回答	39	影响	39
动摇	39	忘记	39
经受	37	形成	37
进入	36	消灭	35
消化	35	脱离	33

承担	32	掌握	32						
决定	31	回避	29						
保护	28	挽救	28						
完成	28	照顾	28						
掩饰	28	替代	27						
处理	25	代表	24						
坚持	23	养活	23						
支持	23	容纳	23						
落实	24	打动	22						
吸引	22	动弹	20						
弥补	20	生死	20						
征服	20								
사용횟수 11-20회	报答	抵挡	抵御	抵抗	证明	欺骗	参加	享受	消除
	否认	消受	伤害	支撑	制止	破坏	驾驭	挽回	战胜
	耽误	体现	解答	招架	执行	轻饶	取代	确定	抗拒
	恢复	占领	持续	长久	成就	收拾	容忍	安慰	安排
	躲避	提供	突破	报销	发展	兑现	生产		
사용횟수 10회 미만	担当	答复	到达	躲避	抵制	遮盖	包括	急救	掩藏
	解说	解救	巴结	独立	打发	独立	打发	推进	打湿
	支配	失败	自由	摒弃	瞒骗	利用	运用	体面	冷静
	外行	轮回	耐受	防治	宰杀	扼杀	封杀	开脱	洒脱
	提倡	拘束	磨折	公布	忍耐	婉拒	拒收	狡赖	振奋
	撤换	流传	布置	滚转	唠叨	隔断	抢救	开销	隔离
	逃离	推诿	复元	折磨	受理	治理	料理	火红	痊愈
	逃遁	分辨	顶替	防御	脱卸	长寿	发泄	继承	永远
	担心	思考	守护	体验	生存	兑付	抛锚	运输	描述
	抵挡	逃跑	年轻	复苏	创新	崛起	报废	投降	合作
	聪明	抚慰	摆弄	侍弄	唬弄	架弄	拨弄	违背	破解
	麻烦	触及	检测	办理	判定	修理	停留	保留	给予
	运动	协调	移动	照亮	清亮	弹压	救护	跟踪	起飞
	穷尽	保卫	运送	销毁	补偿	打消	沉默	消费	破费

燃烧	评判	高级	辩解	照料	安静	抵御	劝说	颠倒
继续	打断	割断	阻断	添补	帮补	过问	为难	熔化
舒服	下载	盛载	装载	隔阻	振兴	沟通	精通	开支
挪动	孝敬	见证	付诸	播放	痛苦	团结	了结	总结
麻痹	消磨	治服	赢得	摇动	当选	驱除	清除	拆除
破除	化解	分享	投入	收入	招呼	安生	形容	包容
烧毁	淹没	传递	医治	抵受	好受	侵犯	书写	改写
靠近	照护	开导	退避	命名	配合	攀登	认识	平分
消失	消亡	归还	支承	违反	固定	躲藏	受苦	承负
前进	推进	制造	打发	独立	掌控	假借	断定	打破
对抗	抵赖	抵偿	抵补	抵销	研究	引诱	掩藏	移动
运转	掩蔽	应酬	打败	推动	摧毁	认识	自救	抹杀
否定	缺少	超越	感动	高明	帮助	抹煞	反映	发表
接近	平静	平息	结束	刺激	休息	欣赏	毁灭	制服
挣脱	拯救	把握	剥夺	明白	发觉	拒绝	起动	习惯
亏待	指挥	出版	成功	胜任	实行	发动	损害	左右
交代	割舍	遮盖	长远	取消	填补	改造	承载	成为
离开	压抑	预测	抵消	隐瞒	淹没	担当	推翻	提高
抑制	推脱	领导	成立	生活	阻隔	造就	存在	错待
推托	损失	主宰	支付	逮捕	阻碍	伺候	模仿	磨灭
温暖	稳定	抵制	约束	负荷	隐藏	反对	解除	集中
轻松	含糊	涵盖	吸收	工作	缓解	活动	占有	转动
证实	成全	担负	包括	表达	领会	领略	垆断	发生
发明	反抗	操纵	急救	减少	解脱	进行	纠正	驱散
泄露	开发	生长	缝补	分配	覆盖	服侍	防止	激发
解说	解救	进步	建立	接触	进展	吓唬	孤立	开除
克制	肯定	获得	主持	制约	制伏	感受	侦破	镇压
转变	持久	保持	表现	保存	报复	保障	便宜	抛弃

排遣	平衡	迷惑	灭亡	泯灭	勉强	面对	蒙蔽	埋没
妨碍	腐蚀	耽搁	等待	担任	杜绝	打败	调动	得罪
推却	脱身	统一	调解	推广	推辞	统治	痛快	落后
巩固	供应	根治	贯彻	顾及	告别	隔绝	干净	干扰
根绝	阻挠	管理	改善	遵守	概括	扩大	跨越	抗御
化解	糊弄	捍卫	禁止	解放	建设	交待	惊动	启动
强迫	劝阻	取缔	吸纳	潇洒	暴露	扮演	享用	消停
驯服	相差	限制	谢绝	行驶	修复	招徕	治愈	知道
遮掩	猖狂	实施	收服	收购	闪避	侍候	遏止	扼杀
遏制	软化	采取	摧残	安置	安全	歪曲	忘却	威胁
采取	忘怀	维护	湮没	淹没	压缩	压制	激励	饲养
培养	禁绝	孕育	同情	优先	说话	私了	善终	欺辱
顺畅	火烧	繁荣	对接	佑护	拉拢	伸展	麻醉	处置
平安	联络	躲闪	室灭	歼灭	熄灭	爱护	陪护	决策
开展	独尊	辨别	扩展	识别	绝迹	复活	贪污	转换
破获	轻闲	粉饰	暖化	同化	绿化	淡化	开动	辉煌
折损	发达	埋伏	积攒	挫折	摧折	拗折	消融	调处
精简	缺乏	疲软	履行	补充	注意	鼓动	依旧	开始
提拔	消灾	万岁	断绝	封锁	摆布	失去	终止	静止
停止	中止	把持	收复	模拟	管制	填充	考虑	拦截
哄骗	圆融	计划	诱惑	收缩	亏损	显示	埋汰	稀罕
协商	流动	混同	发放	埋葬	教育	推销	推行	开航
弥被	开拓	提取	调整	改换	指导	加工	扭曲	告诉
束缚	实践	冤枉	施展	蹦达	开启	遮蔽	兼顾	行使
瓦解	触动	充实	盖没	造成	带动	端正	宽裕	装饰
保护	抛却	监察	调控	踏实	出售	冷却	减弱	承办
消弭	通俗	挑战	利索	禁锢	蹦哒	开会	调养	融解
挽求	放弃	辅导	训释	咨询	确诊	扶持	怀疑	热闹

区别	归纳	估计	制御	减损	清楚	换取	脱越	夺取
成长	劝阻	限隔	玷污	透视	传授	调协	包庇	汇聚
招集	商榷	收束	交手	误会	转移	贿赂	推御	减轻
累赘	颞动	团聚	安稳	肃静	松弛	凶恶	调皮	记挂
理会	驳斥	更换	忽略	见告	打奇	遮饰	蒙哄	改良



## 【부 록 3】

### 韓國中國言語學會 中國語文法用語 統一 試案

#### 0. 用語 選擇의 原則

1. 含义가 같거나 유사한 것은 국문법의 대응어를 사용한다. (부분적으로 영어문법 용어 수용)
2. 번역이 가능한 것은 번역어를 만든다. (造語)
3. 대응어가 없고 번역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차용한다.

#### 0. 용어 선택 시안

##### 1. 언어단위

###### (1) 語素: 형태소(morpheme)

自由語素: 자립 형태소

不自由語素: 의존 형태소

\*詞素는 詞에 의한 개념이고 語素는 어음 의미상의 최소한 어법단위

\*字: 글자

###### (2) 詞: 단어(word)

單純詞: 단순어

合成詞: 합성어 - 複合詞: 복합사

派生詞: 파생어 - 詞根: 어근

詞綴: 접사 - 前綴: 접두사

後綴: 접미사

###### (3) 詞組, 短語, 勒語: 구

名詞短語: 명사구

動詞短語: 동사구

形容詞短語: 형용사구

數量短語: 수량구

主謂短語: 주술구

介詞短語, 介賓短語: 전목구

固定短語: 관용구

複指短語: 동격구(잠정)

\*우리말의 구는 중국문법 용어인 句, 句子와는 다른 개념임.

\*한국어의 문법 용어인 '節'에 해당하는 '主謂短語'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이 개념은 구와 절을 포괄하는 개념인 셈이다. (cf. 分句: 절)

###### (4) 句, 句子: 문, 문장

\*句라고 쓸 때에는 앞에 부가 성분이 있다. (把字句)

\*문장은 중의성을 갖는다. (짧은 문장과 중심내용이 있는 긴 문장)

###### (5) 句群: 문결합(text)

##### 2. 詞類: 품사(parts of speech)

虛辭: 허사

實辭: 실사

###### (1) 名詞: 명사

方位詞: 방위사 ---- 단순방위사 / 합성방위사

時間詞: 시간사

處所詞: 처소사

###### (2) 代詞: 대체사

人稱代詞: 인칭대체사

指示代詞: 지시대체사

疑問代詞: 의문대체사

\*대명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這麼, 那麼, 這樣, 那樣'과 같이 명사 뿐만 아니라 동사, 형

- 용사, 부사들을 대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3) 數詞: 수사      量詞: 양사      數量詞: 수량사      動量詞: (동량사)
- (4) 動詞: 동사  
     能願動詞: 조동사      趨向動詞: 추향동사 (감정) - 본고에서는 **방향동사**로 칭함.  
     及物動詞: 타동사      不及物動詞: 자동사
- (5) 形容詞: 형용사
- (6) 副詞: 부사
- (7) 介詞: 전치사  
     \*전치사 뒤의 방위사는 목적어의 의미관계로 설명  
     在桌子上: on the table  
     \*전치사의 후치현상은 특수용법으로 설명
- (8) 連詞: 접속사
- (9) 助詞: 조사  
     構造助詞: 구조조사      動態助詞: 동태조사      語氣助詞: 어기조사
- (10) 嘆詞: 감탄사
- (11) 擬聲詞: 의성사

### 3. 句子成分: 문장성분(sentences component)

- (1) 主語: 주어
- (2) 謂語: 술어
- (3) 賓語: 목적어
- (4) 定語: 관형어
- (5) 狀語: 부사어
- (6) 補語: 보어  
     結果補語: 결과보어      趨向補語: 추향보어 (본고에서는 '방향보어'로 칭함)  
     程度補語: 정도보어      介詞短語補語: 개사구보어  
     可能補語: 가능보어(可能式補語, 動詞的可能態, 能性補語로 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  
     는 '가능보어'로 칭함)
- (7) 獨立成分: 독립성분
- (8) 句子成分: 문장성분

### 4. 문장의 종류(class of sentence)

- (1) 單句: 단문(포유문이 포함됨)
- (2) 複句: 복문(重文과 복문이 포함됨)
- (3) 主謂句: 주술문  
     1. 動詞謂語句: 동사술어문  
         是字句: 是구문      有字句: 有자문      把字句: 把자문      連動句: 연동문  
         兼語句: 겸어문      存現句: 존현문 (예: 城里有公園. 명사구에 의해 제시되는  
         실체가 어딘가 존재함. 예: 來了一個人. 실체가 동작동사에 의해 제시되는 경우)  
         被動句, 被字句: 피동문  
     2. 形容詞謂語句: 형용사술어문  
     3. 名詞謂語句: 명사술어문  
     4. 主謂謂語句: 주술술어문

- (4) 特殊句式: 특수문형
- (5) ‘是…的’句: ‘是…的’구문
- (6) 疑問句: 의문문
- (7) 反問句: 반어문
- (8) 陳述句: 진술문, 서술문
- (9) 祈使句: 명령문
- (10) 感歎文: 감탄문
- (11) 無主句: 무주어문
- (12) 獨詞句
- (13) 緊縮句: 압축문. 구조면에서 보면 단문이고 의미면에서 보면 복문인 문장  
예: 有錢就拿出去。
- (14) 主句: 주절
- (15) 從句: 종속절

#### 5. 문장부호(punctuation mark)

- (1) 標點符號: 문장부호
- (2) 句號: 마침표
- (3) 逗號: 쉼표
- (4) 頓號: 작은 쉼표
- (5) 分號: 쌍반점
- (6) 冒號: 쌍점
- (7) 問號: 물음표
- (8) 感歎號: 느낌표

#### 6. 문장구조(structure of sentence)

- (1) 結構: 구조
- (2) 竝列結構: 병렬구조
- (3) 偏正結構:
  - . 복문이상인 경우: 주종구조
  - . 복문미만인 경우: 수식구조
- (4) 主謂結構: 주술구조
- (5) 補充結構: 보충구조 (動補結構, 形補結構)
- (6) 動賓結構: 동목적구조
- (7) 介賓結構: (개목적구조)

#### 7. 기타

- (1) 句子分析: 문장분석
- (2) 成分分析法: 성분분석법
- (3) 層次分析法: 계층분석법
- (4) 二分法: 이분법
- (5) 多分法: 다분법
- (6) 遞層: 짐층
- (7) 轉折: 전환
- (8) 因果: 인과
- (9) 假說: 가정
- (10) 條件: 조건
- (11) 承接: 연결